2021 호남한국학 열린 강좌

# 바깥에서 바라본 호남, 그리고 광주

▢ 일 정 : 2021년 7월 22일 ~ 8월 21일

▢ 장 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 주최/후원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주 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Honam Foundation

## <프로그램>

| 강좌 | 일 시 | 강의 주제 | 강사 |
|---|---|---|---|
| 1강 | 7.22(목) 19:00 | 호남 역사문화 다시보기, 바로보기 |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 |
| 2강 | 7.27(화) 19:00 | 무등산에 다녀간 사람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 **박명희** 전남대 교수 |
| 3강 | 7.29(목) 19:00 | 담대헌(澹對軒)에서 무등을 바라보다 -노사학파의 지성사적 기원- | **이향준**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 4강 | 8. 3(화) 19:00 | 언론을 통해 본 광주학생독립운동 | **김 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
| 5강 | 8. 5(목) 19:00 | 선교사의 눈에 비친 남도, 남도인 |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
| 6강 | 8.10(화) 19:00 |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전라기행」속 전라도의 멋 |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
| 7강 | 8.12(금) 19:00 | 근현대 언론인들이 본 호남 | **노영기** 조선대 교수 |
| 8강 | 8.17(화) 19:00 | 기록물로 광주경관을 보다 |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
| 답사 | 8.21(토) 09:00~ | 화순·보성 일원 | |

※ 이 프로그램의 강사와 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 차>


1강 호남 역사문화 다시보기, 바로보기 …… 5

2강 무등산에 다녀간 사람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 15

3강 담대헌(澹對軒)에서 무등(無等)을 바라보다 …… 31

4강 언론을 통해 본 광주학생독립운동 …… 45

5강 선교사의 눈에 비친 남도, 남도인 …… 61

6강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전라기행」속 전라도의 멋 …… 71

8강 기록물로 광주경관을 보다 …… 81

제1강

# 호남 역사문화 다시보기, 바로보기

이 해 준

공주대 명예교수

# 호남 역사문화 다시보기, 바로보기

**이 해 준**[1](공주대 명예교수)

1.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과연 어떻게 볼까?
2. 호남문화의 정체성 이해 문제
3. 역사적으로 본 호남문화의 특징
4. 근·현대사와 민중논리의 현장

## 1.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과연 어떻게 볼까?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지역민을 주체로 하는 문화사, 종합사, 생활사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와 그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면 무엇보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하여야 한다.

지역사,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이 주인이자 주체인, 그들 자신의 이야기이다. 문화와 역사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한 지역의 문화가 성장.발전해 온 과정을 지역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이 지역사 연구의 목적이라 한다고 보았을 때 그 같은 문화가 생성되는 배경으로서 자연환경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자연지리나 환경, 생태 등은 지역문화의 동질성과 특성을 지니게 한 요인이며, 지역민들이 같은 생활터전에서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적응, 도전, 극복하면서 선택한 자신들의 생존방식이었다. 지역의 문화 전통(문화적 동질성, 정체성, 특수성)들은 다양성, 실용성, 상대성을 전제로 하는 문화이며, 동시에 과거의 역사경험 속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평가'받으면서 살아남았던 경쟁력과 생명력 있는 가치들인 셈이다.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 2. 호남문화의 정체성 이해 문제

"호남문화"라는 용어는 한국의 여러 지역문화 중에서도 그 특성이 많이 부각되어온 지역문화이다. 그만큼 지역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포함하는 의미에 대하여는 거론하는 연구 분야마다, 그리고 평가하는 시각별로 각양각색으로 지적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호남문화는 과연 다른 지역의 문화와 비교하여 어떤 독특한 지역성과 기질성이 있을까? 사실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호남문화의 특수성은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다.

대체로 문화의 특질을 이야기할 때는 백제문화니 신라문화니 가야문화니 하는 것처럼 문화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지역기반에 따라 탐라문화니 영남문화니 호남문화니 충청문화니 하는 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호남문화는 지역적 범주를 우선하여 내려진 문화 특질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 내용이나 지역 기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 불변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시대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려고 하는 "호남문화의 지역성과 기질성" 문제는

① 호남지역이라는 지역기반을 구체적 범주로 하면서도
② 각 시기가 지니는 역사적 경험과 문화축적에 따라서 시기를 나누어 중층적

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각 시기의 차이점과 공통적 성격이 다시 논의된다면 전체적 모습도 구조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호남문화」.「남도문화」.「전라도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역문화 특성을 논위할 때 흔히 '예향, 의향, 풍류, 음식, 충절' 등의 지역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반대로 '차별, 유배지' 등을 포함하여 '소외와 한(恨), 피해, 저항'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매우 강했다. 호남문화의 기저에 소외와 한이 서려 있다고 하는 주장의 내면에는 호남지역의 역사나 문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깔려 있다.

즉 호남의 역사의 대부분이 승자가 아닌 「패자의 기록」으로 이해하여 예를 들면 선사시대 이래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라도의 중심세력들은 역사의 대세나 지배층의 핵심에서 이탈하고 있었으니,

① 백제에 편입된 <영산강과 서남해안일대의 마한세력> ② 통일신라에 합병된 <백제>
③ 고려에 병합된 <후백제> ④ 조선개국에 소극적이었던 <호남의 고려세력>
⑤ 반골적인 야당성향으로 남아 있던 대다수의 <조선조 호남지식인들>

에서 보는 것처럼 철저히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이해는 긍정보다는 부정, 참여보다는 저항, 그리고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한 맺힌 심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역사이해의 구도가 일반화되게 만들었다.

* 무등산 / 금성산 / 지리산 * 고려의 御鄕 나주, 진도 용장성과 삼별초

이런 구도를 가지고 본다면 호남은 실제로 각 시대의 역사 주도세력이라기 보다는 '패자편'이었

고 '비주류'였던 셈이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해도 이같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호남에 대한 해당 시기와 그 이후의 역사적 평가가 객관성을 잃은 편향적인 것이었음도 사실이다. 조선조까지도 호남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에 어김없이 "백제의 후예"가 운운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일 수 있다.

다른 분야는 논외로 하고 역사분야만 하더라도, 이제껏 우리가 파악해온 전라도는 그 자체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기에 너무나도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호남문화.전라도문화의 근원을 百濟文化라고 무비판적으로 강조했던 사실이 그것이고,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에 나오는 호남차대에 대한 피해의식이 사실보다 훨씬 확대되어 있는 것, 恨과 소외적인 성향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일편에서 풍류성을 부각하는 아이러니, 그리고 유배인들의 영향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경우 등등은 모두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 3. 역사적으로 본 호남문화의 특징

**1) 풍요로운 인문환경과 선사-고대문화 :** '호남'하면 먹을 것이 많고 살기좋은 땅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우선 기후가 그렇고 넓은 평야와 이를 살찌우는 강.하천의 발달, 여기에 대하여 넓은 바다와 개펄의 해산자원은 이 지방인들의 삶에 여유를 부여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물산은 이를 탐내고 빼앗으려는 외적인 힘에 의해 표적이 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정복전쟁과 중앙의 강력한 정치지배구조가 확립되지 않았던 선사~고대사회에서 이러한 환경과 풍족한 물산은 그대로 이 고장 사람들의 것이었으며, 오랜 기간을 경과하면서 이로 말미암은 인성도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한」사람들, 「정」이 많은 사람들, 자연의 섭리에 가깝게 살아온 이 호남인의 천성은 바로 이 같은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실제 선사시대의 이 지방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 문화적 깊이가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석묘의 분포나 그들의 군집상은 바로 그러한 예증일 것이며, 이러한 문화의 배경에서 馬韓 세력도 생겨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의 역사(문화) 기원은 백제보다는 오히려 그에 의해 일부가 훼손된 이들 「마한문화」에서 찾아져야 한다.

삼한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 있던 마한은 삼한의 마루(宗) 즉 으뜸이었으며, 세력규모로도 마한에 소속된 부족국가가 54개국이었다고 하고, 읍락의 규모도 큰 경우는 1만여호, 작은 경우도 수 천 호에 달한다고 하였음은 그것을 말해준다. 한국고대사에서 삼한문화는 북방의 고조선 중심문화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였고, 북방민족문화의 영향보다는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형성해가면서 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를 모색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고 있었다. 농경을 주된 생업의 수단으로 하던 이들의 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독자성을 유지하여왔고, 그 주요한 근거가 바로 영산강 유역에만 존재하는 대형 옹관묘 유적이다. 호남 지역은 바로 이러한 마한문화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었던 것이다.

- 호남 음식문화 ; "전라도 음식 치레, 충청도 묘 치레, 경상도 집 치레"
- 전라도 지역은 義鄕 ? 藝鄕 ?

**2)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바닷길과 호남 :** 뒤이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호남 역사.문화는 「바닷길」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변모와 활기를 되찾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고대사회부터 이 시기에 이르러 부흥한 호남문화는 바닷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하였다. 이 바닷길은 흡사 오늘날의 철도교통이나 고속도로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내륙의 깊숙한 골짜기와 평야지대보다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화전파 루트였고, 그 때문에 백제시대까지만 하여도 이 지역의 많은 군현(郡縣)의 치소들은 바닷길과 연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서남해안을 경유하는 이 고대의 해로는 단지 육로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신 해로가 이용된다는 차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이 해로는 중국이나 일본을 연결하는 대외 교역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개 중국의 문화중심이 江南에 있었을 때 흑산도를 경유하여 이곳 서남해안에 이르는 이 해로는 주목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력과 문물이 교류되었다. 일찌기 이 해로는 선사시대 혹은 옹관묘 사용문화와 인연이 있었고, 왕인집단의 에에서 보듯 백제문화가 일본에 문물을 전하는 통로로도 이용되었다고 여겨진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이 해로를 다시 장악하여 대중국.일본무역을 통해 세력을 결집 경주 중심세력과 대치한 바도 있었고, 후삼국 정립기에는 왕건과 견훤을 이 해로를 쟁패의 대상으로 삼아 격전을 치렀으며 결국은 이 유리한 해로를 장악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였음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바닷길을 이용한 문화가 호남문화의 근본줄기였으며, 타지역에 결코 뒤질 수 없는 독자성과 능력을 지녔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다고 믿는다.

좀 더 바닷길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보면, 청자의 발달이나 선종의 발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저 고려시대 무인정권의 경제적 배경이나 호남지역이 삼별초의 항거거점이 되었던 것 역시 이 해로와 긴밀히 연관된 것이었다. 더우기 중앙집권이 강화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경상우도와 호남의 세곡이 운반되던 조운로로 이 바닷길은 다시한번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피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크고 작은 전란에 항상 연관되어 전화를 입은 예나 때로 도외의 수탈을 당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왜구의 창궐, 왜란기의 피해 등은 바로 그 같은 예에 속할 것이다.

한국문화사상에서 백제문화가 개방적이었고, 고려의 문화는 그 다양함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바로 그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바로 「바닷길」의 활용이라는 숨겨진 배경이 있었고, 이 주체가 「호남 사람」.「호남 문화」였다고 믿고 싶다. 호남문화가 이러한 바닷길과 연관되어 발전한 측면을 우리는 여러 형태의 문화 소재로 증거 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해양 문화의 새로운 전개와 호남발전을 현대에도 직결시켜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3) 중앙지배권력과의 오랜 상충과 갈등 :** 통일신라 말 경주왕실로 진출한 장보고가 호남의 섬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세된 뒤, 백제의 한을 풀기 위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막강했던 과거의 백제세력기반이던 서남해 해상세력을 결집하여 장보고 이후 90여년 만에 다시 신라의 수도 경주를 공격하고, 바로 김우징의 7대손이었던 김부를 옹립 경순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견훤의 후백제세력은 미구에 왕건의 고려에 의하여 흡수 통합된다. 왕건이 서남해안 지역 주요 세력의 포섭에 성공한 것도 그 한 이유였다.

고려태조 왕건이 그의 후손들에게 내렸다는 〈훈요십조〉중 호남차대의 기록도 이러한 대립상의 흔적으로 이는 왕왕 호남인의 자학과 지역차별 의식의 효시로 거론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다른 각도에서 추단하는 입장이다. 즉 고려왕실의 중심세력이 초기와 다르게 점차 경주계 인물들에 의해 장악되어 감에, 이러한 변화를 수긍하지 않던 호남 세력이 반발을 하자 이에 대한 견제 수단의 하나로써 훈요십조가 현종~문종대에 부각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조선시대보다도 고려시대에 중앙정계에서 괄목할 활동을 한 호남 인물들이 많았던 점이나, 특히 전라도가 만덕산 백련결사, 조계산 수선사 등 불교사상계를 지도한 걸물들을 성장케한 지역이었던 점들은 그같은 사정을 증거하는 일면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정부의 정치적 실권이 신라계열의 문신세력에 의해 장악되면서 점차 중앙정치무대에서 도태되어간 호남 세력은 무신집권기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정계진출의 계기를 맞게 된다. 무신집권기가 되면서 새로운 친무신계열의 호남 세력이 등장하여 그 경제적.사상적인 배경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최씨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서남해안 및 도서지역의 유력토호 세력이 등장하여 뒤의 삼별초 항쟁을 끝까지 지원하는 세력이 되는가 하면 불교사상적으로도 송광사의 정혜결사와 같은 친무신적 성향을 갖는 집단도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려몽연합군에 가담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 대립되는 성향을 보이며 성장하는 세력들도 많았던 것은 호남지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점이 될 것이다.

한편 몽고지배 하에서 이처럼 양분된 지방세력의 상충이 심화되는 와중에서 왜구에 의한 전라도 연해안의 침탈상은 이 지역의 사회 전반적인 구조재편을 야기 시켰다. 왜구침탈로 인해 20여 군데나 되는 전라 연해지역의 고을 터가 자리를 옮기게 되며 아예 고을 자체가 없어진 곳도 10여 곳이나 되었던 것은 그 같은 피해상을 잘 증명해준다.

**4) 호남사림의 시대와 오랜 충절의 역사 :** 여말선초의 혼란과 행정공백은 이 지역의 주도세력들을 전면적으로 교체,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많은 경우 전라지역의 조선초기 주도세력집단이 고려말기 이래 토착적인 세력에 뿌리하지 않은 새로운 이주,정착 집단이었다는 점에서도 밝혀진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호남의 조선시기 충절과 실천적 지성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이주한 가계의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호남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한 여러 세력 중에서 조선개국기에는 극히 일부만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고, 이 시기에는 많은 이주 성씨와 인물들이 새롭게 호남 지역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바로 이들 조선전기에 호남지역에 이주한 세력들 중에서 절의와 사림정신으로 무장된 일군의 유학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사실 조선 건국 이래 호남지방이 특별히 역사적으로 부각되거나 중심적 역할을 할 계기는 마련된 바가 없다. 그러나 조선 개국세력의 역성혁명이나 세조의 왕위

찬탈, 그리고 계속된 사화의 와중에서 절의파 인물들의 은거.이주.정착이 계속되고 그들에 의한 사림활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었다.

고려 말 조선 초 전남지역의 세력들은 무등산과 지리산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듯 반 개국세력, 즉 절의계 인맥을 잇고 있었고, 이와 함께 고려멸망, 세조의 왕위찬탈, 그리고 계속된 사화의 와중에서 절의파 사림인물들의 은거.이주.정착이 계속되었다. 조선전기 전라도 이거세력들 중에서 절의와 사림정신으로 무장된 일군의 유학자들이 배출되고 있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 조선 전기의 사림들에 의해, 혹은 그 계통을 잇는 인물들에게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호남정신의 근본 줄기라고 이야기하는 충절과 저항과 비판의 실천력을 갖춘 이 지역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묘사화(1519년)와 기축옥사(정여립 모반사건, 1589년)를 치루면서 전남지역의 명망 있는 지식인들은 중앙 진출의 기회를 폐쇄 당하였고, 그에 따라 조정 및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던 부류들과는 구별되는 냉소적.저항적.비판적 식견들이 팽배해졌다. 냉소를 포함한 고도의 풍류정신과 반골적 성향의 문학들이 지역정서로 자리 잡는 것도 이때부터였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 : 전라도의 역사와 인물배출을 말할 때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물론 없겠으나,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조선시대의 경우 학문과 사상으로 이름을 날린 걸출한 인물들이 전남지역에는 정말 기라성같이 많았었다. 그중에서도 조선조의 명실상부한 선비문화가 확립되어가던 중종.인종.명종.선조 조는 가히 전라도가 「인물의 보고」로 칭해질만한 때였다. 예컨대

최 부(1454 ~ 1504) 송 흠(1459 ~ 1547) 박 상(1474 ~ 1530) 양팽손(1480 ~ 1545)
최산두(1483 ~ 1536) 송 순(1493 ~ 1583) 윤 구(1495 ~ 1554) 임억령(1496 ~ 1568)
양산보(1503 ~ 1557) 김인후(1510 ~ 1560) 유희춘(1513 ~ 1577) 양응정(1519 ~ 1581)
이후백(1520 ~ 1578) 박 순(1523 ~ 1589) 기대승(1527 ~ 1572) 정개청(1529 ~ 1590)
최경회(1532 ~ 1592) 고경명(1533 ~ 1592) 정 철(1536 ~ 1596) 백광훈(1537 ~ 1582)
김천일(1537 ~ 1593) 최경창(1539 ~ 1583) 이 발(1544 ~ 1589) 조대중(1549 ~ 1590)
임 제(1549 ~ 1587)

등등이 바로 그들로 우리는 그 심대한 지역적 학문기반을 실감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사림들의 정신적인 토대와 그 실천성은 왜란과 호란이라는 국가적 환난에 직면하여, 타 지역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활발한 의병봉기와 충절로 표출되었고 양란이후 사회의 모순이 노정되었을 때는 날카로운 비판적 식견과 개혁논의(실학)로서 본연의 지성적 책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충절의 의병들 : 정치적 차대와 소외를 경험했었음에도, 호남인들은 국가의 환란에 직면하자 마치 벌떼와도 같이 여기저기서 의병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목숨을 건 의병항쟁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물론 전국 어느 지역이고 왜란·호란 중에 국가의 환란을 몸으로 막아 싸운 의병이나 충절인물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 수에 있어서나 특히 참여만이 아닌 목숨을 바친 충절(순절)인의 수에 있어서 호남을 따를 곳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若無湖南 無是國家" / '죽어야만 의병이라'

**5) 호남실학과 다산 :** 주지하듯 다산은 18~19세기 한국이 낳은 대표적 학자요,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경세가이로 손꼽힌다. 그는 벽지인 호남 끝 강진 땅으로 유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고 유배 18년 동안 개인적인 불운을 딛고 불후의 대 저술들을 남겨 놓았다. 그런데 다산의 저술들은 대부분 그가 ① 직접 목격하고 겪은 체험에 토대하여, ② 범인이 지닐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경지(식견)에서 정리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즉 그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은 결국 대부분 호남의 사정이며, 실제 지역을 호남으로 밝힌 경우가 매우 많다. 다산이 당시의 이러한 현실 모순을 교구할 목적으로 체계를 세워갔을 때, 결국 그것은 당시의 호남 지식인들에게 자극도 되고, 혹은 어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다산의 훈유가 당시 이 지역 지식인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감발시키는 촉매제로서 일방적인 것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지역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온축시켜 온 사고와 의지가 다산과 투합 되고, 또 다산이 Leader로서 집성자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그와 긴밀히 연결된 것이 아닐까? 결국 공감대나 동질성을 발견한 이 지역 지식인들에 의해 다산은 그 스승으로 선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우리는 실학자라 지칭되는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을 일단 보다 폭넓은 재야지식인군의 대변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실학이 시대사조로서의 실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도에 유배된 다산과 그 학문만 알았을 뿐, 그와 연결된 주인이었던 당시 이 지역의 지식세계에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다산이 귤동을 떠난 후에 잊지 못했던 "茶信契"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호남지식인들이었을 터이다.

반계 - 성호 - 다산으로 연결되는 한국 실학의 큰 줄기와는 달리 호남지역에서는 호남실학의 4대가로 흔히 魏伯珪, 申景濬, 黃胤錫, 河百源을 지칭하기도 하고 洪大容을 함께 거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들 이외에도, 그리고 이들에 앞서서 호남지역에 실학적 토양과 분위기를 만들었던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장흥의 재야지식인 위백규는 『정현신보』와 『만언봉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모순을 지적, 그 개혁론을 제시하였고, 『환영지』라는 세계지도와 『해도지』, 『지제지』 같은 향토지리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는 관리들의 부패와 각종 제도의 문란상을 40여 조목으로 세분하여 매우 혹독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산 정약용은 위백규가 죽은 뒤 2년만에 이웃한 강진 땅으로 귀양 와서 18년을 지냈던 것이니, 그의 개혁사상 형성에 이러한 호남지역의 여러 실학적 분위기가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나아가 다산이 강진에 있을 때 글을 배운 『다신계절목』에 기록되어 있는 다산의 18제자들은 다산의 실학사상 정립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다산에게서 실학사상을 전수 받아 그것을 더 넓게 펼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다산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주변 인사들의 성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좀더 부연하면 다산은 호남에 客으로 와서 主人이던 호남의 학자.문인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경륜과 포부를 십분 발휘한 인물이었고, 그가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바탕에는 당 시대 호남인들의 정신적 분위기와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다. 우리는 때로 다산이 만약 호남이 아닌 영남이나 관동지방으로 유배되었더라도 과연 그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으

며, 만약 그것이 호남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점이 바로 우리가 호남실학을 개념 지우려 애쓰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 4. 근·현대사와 민중논리의 현장

깊은 문화의 저력과 자부심, 풍요로운 물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치적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오랜 질시와 냉대 속에 존재했던 호남지역, 이 호남지역이 우리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다른 어느 시기.어느 지역보다도 의미있게 부각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호남지역은 조선 제일의 곡창으로서 국가재정의 기둥이 되었고 그에 부수된 봉건정부와 관리들의 불법적인 수탈이 자행되어 적지않은 민중의 반발이 있었던가 하면, 지식인들은 지식인들대로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년, 선조 22년)와 영조 때의 무신란(戊申亂, 1728년, 영조 4년)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박해와 차별을 피부로 느낄 만 했다. 이같은 차별과 소외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여 왔고, 피해자라거나 당사자로서 호남지역인들도 그 점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따돌림과 견제와 핍박의 연속이라는 역사의 너울이 이들에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감'과 '저항' 뿐이었어야 했고, 그 대상은 왕실(봉건정부)이거나 지배층이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이들은 「민족」이라는 커다란 굴레를 끝내 잊지 않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힘찬 의지를 시혜 받은 타 지역보다 앞서 몸으로 구현해내는 기수가 되었던 것이다.

국가환란기의 의병활동에서 보이는 지식인들의 충절행적도 그러하지만, 특히 한국 근.현대사 과정에서 발휘된 호남지역의 반외세.민중적인 움직임들이, 이젠 앞선 시대와 다르게 지배계층(지식인) 중심에서 벗어나 그들에 의해 침탈과 핍박을 받았던 소농민·민중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실학시대 이후 사회구조가 재편되고 의식적 변환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호남의 민중세력들은 타 지역과 다른 조직적 역량과 방향감을 갖고 그 선봉에 나섰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반봉건 민중으로 상징되는 동학농민항쟁, 한말~일제하의 의병항쟁과 광주학생운동 등 반외세 민족운동의 기치가 모두 이곳 호남 땅에서 크게 솟아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으며, 비록 좌.우익 논쟁으로 사장되어 버리긴 하였으되 민중조직운동의 현장들이 이 호남 땅에 수없이 있어왔음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까지도 이 같은 역사적 경험과 정신사적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중요한 한국사상의 역사적 상황들이 왜 호남지역에서, 호남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지의 문제는 그 역사와 환경의 밑바탕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의식이나 정신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닐 것이다.

제2강

# 무등산에 다녀간 사람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박 명 희

전남대 교수

# 무등산에 다녀간 사람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박명희** (전남대 교수)

1. 무등산에 다녀간 사람들
2. 무등산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 1. 무등산에 다녀간 사람들

무등산은 호남의 진산(鎭山)으로, 전통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무명 인사들이 다녀갔다. 특히, 전통 시대 무등산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 유산기(遊山記)와 유산시(遊山詩)를 남긴 경우도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무등산 유산기

| 연번 | 작자 | 작품 | 무등산과의 관련성 |
|---|---|---|---|
| 1 | 정지유<br>(鄭之遊, 15~16세기) |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 | 자세히 알 수 없음. |
| 2 | 고경명<br>(高敬命, 1533~1592) | 〈유서석록(遊瑞石錄)〉 | 고경명의 나이 42세(1574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등산을 유람함. |
| 3 | 정약용<br>(丁若鏞, 1762~1836) |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 | 16세(1777년) 가을에 화순 현감에 부임한 부친을 따라가서 그 이듬해에는 화순현의 동림사에서 독서를 하고, 가을에는 동복현의 물염정 및 무등산 등을 유람함. |
| 4 | 양진영 |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 | 자세히 알 수 없음. |

| | | | |
|---|---|---|---|
| | (梁進永, 1788 ~ 1860) | | |
| 5 | 송정희<br>(宋正熙, 1802 ~ 1881) | 〈유무등산기(遊無等山記)〉 | 61세(1863년) 때 무등산을 유람함. |
| 6 | 조봉묵<br>(曺鳳默, 1805 ~ 1883) | 〈유무등산기(遊無等山記)〉 | 24세(1828년) 무렵 무등산을 유람함. |
| 7 | 나도규<br>(羅燾圭, 1826 ~ 1885) | 〈서석록(瑞石錄)〉 | 43세(1868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무등산을 유람함. |
| 8 | 나도규<br>(羅燾圭, 1826 ~ 1885) | 〈서석속록(瑞石續錄)〉 | 45세(1870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무등산을 유람함. |
| 9 | 정의림<br>(鄭義林, 1845 ~ 1910) | 〈서석창수운(瑞石唱酬韻)〉 | 43세(1887년)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0 | 송병선<br>(宋秉璿, 1836 ~ 1905) | 〈서석산기(瑞石山記)〉 | 34세(1869년)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1 | 홍삼우당<br>(洪三友堂, 1848 ~ ?) | 〈서석록(瑞石錄)〉 | 38세(1886년) 초여름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2 | 김운덕<br>(金雲悳, 1857 ~ 1936) | 〈서석유람기(瑞石遊覽記)〉 | 53세(1909년) 4월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3 | 이연관<br>(李淵觀, 1857 ~ 1935) | 〈신묘유서석록(辛卯遊瑞石錄)〉 | 35세(1891년) 늦봄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4 | 이정회<br>(李正會, 1858 ~ 1939) | 〈서석록(瑞石錄)〉 | 62세(1919년) 4월 6일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5 | 조종덕<br>(趙鍾德, 1858 ~ 1918) | 〈등서석산기(登瑞石山記)〉 | 62세(1919년) 가을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6 | 하원순<br>(河元淳, 1858 ~ 1924) | 〈유서석일기(遊瑞石日記)〉 | 19세말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7 | 양재경<br>(梁在慶, 1859 ~ 1918) |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 | 54세(1912년) 4월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8 | 염재신<br>(廉在愼. 1862 ~ 1935) |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 | 31세(1892년) 7월에 무등산을 유람함. |
| 19 | 고재붕<br>(高在鵬, 1869 ~ 1936) | 〈유서석기(遊瑞石記)〉 | 27세(1895년) 4월에 무등산을 유람함. |
| 20 | 김태석<br>(金泰錫, 1872 ~ 1933) | 〈서석기(瑞石記)〉 | 자세히 알 수 없음. |
| 21 | 양회갑<br>(梁會甲, 1884 ~ 1961) | 〈서석산기(瑞石山記)〉 | 52세(1935년) 5월에 무등산을 유람함. |
| 22 | 김호영<br>(金鎬永, 1907 ~ 1984) | 〈서석산기(瑞石山記)〉 | 1957년 무렵 무등산을 유람한 것으로 추정. |

## 2) 무등산 유산시

| 연번 | 작자 | 작품 | 무등산과의 관련 배경 |
|---|---|---|---|
| 1 | 김극기<br>(金克己, ? ~ ?) | 〈규봉사(圭峯寺)〉, 〈규봉사(圭峯寺)〉, 〈증심사(證心寺)〉, 〈금석암(錦石菴)〉 | 전국을 순례하면서 무등산을 유람한 것으로 보임. |
| 2 | 정도전<br>(鄭道傳, ? ~ 1398) | 〈기서봉관상인(寄瑞峯寬上人)〉 | 미상이나 1392년에 이성계의 우익(羽翼)으로 탄핵을 받아 포주(甫州, 예천을 말함)로 압송되었다가 광주(光州)로 유배 간 적이 있음. |
| 3 | 김종직<br>(金宗直, 1431 ~ 1492) | 〈광주무등산(光州無等山)〉 | 미상이나 57세(1487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된 적이 있음. |
| 4 | 김시습<br>(金時習, 1435 ~ 1493) | 〈등무등산광주(登無等山光州)〉, 〈규봉난야(圭峰蘭若)〉 | 29세(1463년)에 〈유남유록(遊湖南錄)〉을 지은 것으로 보아 그전에 무등산 등반을 한 듯함. |
| 5 | 박상<br>(朴祥, 1474 ~ 1530) | 〈유서석산운 증정만종(遊瑞石山韻贈鄭萬鍾)〉 | 미상 |
| 6 | 송순<br>(宋純, 1493 ~ 1582) | 〈경신중추 등무등산 구호록정석헌선생 박공우자창방 눌재선생지제후개호륙봉(庚辰仲秋 登無等山 口號錄呈石軒先生 朴公祐字昌邦 訥齋先生之弟 後改號六峯)〉 | 28세(1520년) 가을에 귀향하여 무등산 등반을 함. |
| 7 | 임억령<br>(林億齡, 1496 ~ 1568) | 〈송광주목리대립명부 홍간(送光州牧李大立明府 弘幹)〉, 〈유서봉사(遊瑞峯寺)〉 | 미상 |
| 8 | 노수신<br>(盧守愼, 1515 ~ 1590) | 〈증심사 증조선이십오일 청 불사구어성 내심사 무회동숙(證心寺贈祖禪二十五日 晴 不使久於城 乃尋寺 無悔同宿)〉 | 33세(1547년)부터 51세(1565년)까지 진도에서 유배생활 함. 그 사이 41세(1555년) 여름에 왜변(倭變)을 피하여 광주로 잠시 나온 적이 있음. |

| | | | |
|---|---|---|---|
| 9 | 이지함<br>(李之菡, 1517 ~ 1578) | 〈병자동 선생자보녕 挈舟到順天 사주도보 력방정송강서하루 수등서석 유증심사자범륙일 자증심 과여설죽와 극담경야 익일여청재호 선생명이불이 개취제천명줄이지의 이이천명대명자고야 방욕청선생명 이선생행의 우득단률일편 봉정선생행헌(丙子冬 先生自保寧 挈舟到順天 舍舟徒步 歷訪鄭松江棲霞樓 遂登瑞石 留證心寺者凡六日 自證心 過余雪竹窩 劇談竟夜 翌日余請齋號 先生命以不已 蓋取諸天命不已之義 而以賤名帶命字故也 方欲請先生銘 而先生行矣 又得短律一篇 奉呈先生行軒)〉 | 60세(1576년)에 순천으로 가서 정철(鄭澈)의 서하루(棲霞樓)를 거쳐 무등산의 증심사에서 6일간 머물다가 고경명을 만나 '불이(不已)'란 재명(齋名)을 지어 줌. |
| 10 | 기대승<br>(奇大升, 1527 ~ 1572) | 〈도규봉(到圭峯)〉 3수, 〈감음(感吟)〉, 〈원효사차인운(元曉寺次人韻)〉, 〈규봉우우 동제군부득송자(圭峯遇雨 同諸君賦得松字)〉 | 31세(1557년) 3월에 부친상을 마치고 무등산을 유람함. |
| 11 | 김부륜<br>(金富倫, 1531 ~ 1598) | 〈원효암 경용선생단협운(元曉庵 敬用先生丹峽韻)〉, 〈등서석산(登瑞石山)〉, 〈유규암(遊圭庵)〉 | 55세(1585년)부터 60세(1590년)까지 무등산 인근에 소재한 동복 현감을 지냄. |
| 12 | 이순인<br>(李純仁, 1533 ~ 1592) | 〈서석산 차고이순경명운(瑞石山 次高而順敬命韻)〉 | 미상 |
| 13 | 고경명<br>(高敬命, 1533 ~ 1592) | 〈차석천운 서서봉승수미권(次石川韻 書瑞峯僧修眉卷)〉, 〈우중 증강숙 시야화기자부현 연설력일주야 기급무등산요 우우시멸(雨中 贈剛叔 時野火起自釜峴 延蔓歷一晝夜 幾及無等山腰 遇雨始滅)〉, 〈토정견시소저과욕론 차계주 요이일언 감술비회(土亭見示所著寡慾論 且戒酒 邀以一言 敢述鄙懷)〉, 〈차계 | 41세(1574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당시 광주목사인 임훈(林薰)과 함께 무등산을 등반 함. 그리고 〈유서석록(遊瑞石錄)〉을 지음. |

| | | | |
|---|---|---|---|
| | | 명재서봉사기증운(次季明在瑞峯寺寄贈韻)〉, 〈규봉 조기견백운등용만학개평 용갈천선생운(圭峰 朝起見白雲騰涌 萬壑皆平 用葛川先生韻)〉, 〈차지암운(次支巖韻)〉, 〈창랑육영(滄浪六詠)〉 중 '규봉낙조(圭峯落照)', 〈서봉사야좌 시조여규(瑞峯寺夜坐 示曺汝規)〉, 〈차유지숙영입석 증은상인운(次兪止叔詠立石 贈恩上人韻)〉 | |
| 14 | 유희경<br>(劉希慶, 1545 ~ 1636) | 〈서석산정제봉(瑞石山呈霽峯)〉 | 미상 |
| 15 | 정운희<br>(鄭運熙, 1566 ~ 1635) | 〈유서석산(遊瑞石山)〉, 〈유서석산(遊瑞石山)〉, 〈유서석산(遊瑞石山)〉 | 미상 |
| 16 | 이안눌<br>(李安訥, 1571 ~ 1637) | 〈유무등산(遊無等山)〉 | 미상이나 40세(1610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담양부사를 지낸 적이 있음. |
| 17 | 조찬한<br>(趙纘韓, 1572 ~ 1631) | 〈유서석산오십운(遊瑞石山五十韻)〉 | 미상 |
| 18 | 고용후<br>(高用厚, 1577 ~ 1652) | 〈서봉라한전 몽선대부(瑞峯羅漢殿夢先大夫)〉, 〈서봉사 봉기송찰방복여(瑞峯寺 奉寄宋察訪福汝)〉, 〈서봉사류별량사립제우(瑞峯寺留別梁士立諸友)〉 | 미상 |
| 19 | 신즙<br>(申楫, 1580 ~ 1639) | 〈서석산 차정릉주몽뢰 양필 운(瑞石山 次鄭綾州夢賚 良弼 韻)〉 | 미상 |
| 20 | 정홍명<br>(鄭弘溟, 1582 ~ 1650) | 〈여동우방서봉사(與洞友訪瑞峯寺)〉, 〈병서서석소감제벽(病棲瑞石小龕題壁)〉 | 미상 |
| 21 | 이명한<br>(李明漢, 1595 ~ 1645) | 〈등서석산 증고군섭(登瑞石山 贈高君涉)〉 | 미상이나 31세(1625년)에 안태사(安胎使)로 호남에 다녀온 적이 있음. |
| 22 | 이시성<br>(李時省, 1598 ~ ?) | 〈서봉사(瑞峰寺)〉, 〈부도암(浮屠庵)〉, 〈입석암(立石庵)〉, 〈장원봉 | 미상 |

| | | | |
|---|---|---|---|
| | | (壯元峰)〉, 〈규봉사(圭峰寺)〉, 〈서봉사(瑞峰寺)〉, 〈원효사서상실 제응보사축미(元曉寺西上室 題應寶師軸尾)〉 | |
| 23 | 신익전<br>(申翊全, 1605 ~ 1660) | 〈증심사구점(證心寺口占)〉 | 미상이나 41세(1645년) 겨울에 광주 목사에 제수됨. |
| 24 | 윤증<br>(尹拯, 1629 ~ 1714) | 〈유입석 추차중부운(遊立石 追次仲父韻)〉 | 미상 |
| 25 | 김창흡<br>(金昌翕, 1653 ~ 1722) | 〈광석대차조정이(廣石臺次趙定而)〉, 〈규봉(圭峯)〉, 〈광석대(廣石臺)〉, 〈서석상봉 차정이운(瑞石上峰 次定而韻)〉, 〈입석(立石)〉 | 미상이나 부친 김수항(金壽恒)이 그의 나이 47세(1675년) 7월부터 50세(1678년) 9월까지 영암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는데, 이 무렵에 무등산을 등반한 것으로 보임. |
| 26 | 이해조<br>(李海朝, 1660 ~ 1711) | 〈장등서석산 모투증심사 정중여진하 선이부급상대(將登瑞石山 暮投澄心寺 鄭重汝 鎭河 先已負笈相待)〉, 〈유숙증심사 야심주성 산월만창 청철불매 잉성일률(留宿澄心寺 夜深酒醒 山月滿窓 淸徹不寐 仍成一律)〉, 〈서석산립석대(瑞石山立石臺)〉 | 미상이나 51세(1710년)에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적이 있음. |
| 27 | 어유붕<br>(魚有鳳, 1672 ~ 1744) | 〈서석십장 기사제광주목지원(瑞石十章 寄舍弟光州牧志遠)〉 | 미상 |
| 28 | 신익황<br>(申益愰, 1672 ~ 1722) | 〈무등산(無等山)〉 | 26세(1697년)에 외숙 전성익(全聖翊)의 상으로 영암군에 다녀왔고, 또한 곡성의 덕양서원(德陽書院)을 전알하였는데, 이때 무등산을 유람함. |
| 29 | 이하곤<br>(李夏坤, 1677 ~ 1724) | 〈마상망서석산(馬上望瑞石山)〉, 〈야과서봉사(夜過瑞峰寺)〉, 〈서봉사차신보운(瑞峰寺次信甫韵)〉, 〈숙서봉사 증극장로(宿瑞峰寺 贈極長老)〉 | 46세(1722년) 때 장인 송상기(宋相琦)가 강진(康津)으로 귀양 가자 찾아가는 길에 호남 지방을 유람하였는데, 이때 무등산 인근을 지나감. |

| | | | |
|---|---|---|---|
| 30 | 임상덕<br>(林象德, 1683 ~ 1719) | 〈서석산지공력(瑞石山指空礫)〉, 〈구점차극명 명 시서석산승(口占次克明 明 是瑞石山僧)〉, 〈지입석(至立石)〉, 〈관입석(觀立石)〉, 〈장답서석산 숙증심사(將踏瑞石山 宿證心寺)〉, 〈입석(立石)〉 | 미상이나 〈지입석(至立石)〉 시에 경인년이라는 간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28세(1710년)에 무등산을 유람한 것으로 보임. |
| 31 | 김도수<br>(金道洙, 1699 ~ 1733) | 〈부임경양(赴任景陽)〉, 〈유서석산(遊瑞石山)〉, 〈숙서석산원효사 여명상인담령은구유 잉차기축중운(宿瑞石山元曉寺 與明上人談靈隱舊遊 仍次其軸中韻)〉 | 28세(1726년)에 무등산을 유람함. |
| 32 | 송명흠<br>(宋明欽, 1705 ~ 1768) | 〈설후 여김사상 성휴 연기향서석(雪後 與金士祥 聖休 聯騎向瑞石)〉, 〈입석(立石)〉, 〈등천왕봉(登天王峯)〉 | 34세(1738년) 11월에 무등산을 유람함. |
| 33 | 위백규<br>(魏伯珪, 1727 ~ 1798) | 〈유서석산 광주(遊瑞石山 光州)〉 | 미상 |
| 34 | 정약용<br>(丁若鏞, 1762 ~ 1836) | 〈등서석산(登瑞石山)〉, 〈독서동림사(讀書東林寺)〉 | 16세(1777년) 가을에 화순현감에 부임한 부친을 따라 가서 그 이듬해에는 화순현의 동림사에서 독서를 하고, 가을에는 동복현의 물염정 및 무등산 등을 유람함. |
| 35 | 홍석주<br>(洪奭周, 1774 ~ 1842) | 〈환호이산자이루백수 지이이외 무등기종야 무등지최고왈서석 남림대해 도서력력 일월지출 여재궤석 여지래야 적풍우교지 계이대무 불변보무 수추창이반 연종절정이하부시 운무개종각하과 역승관야(環湖而山者以累百數 智異以外 無等其宗也 無等之最高曰瑞石 南臨大海 島嶼歷歷 日月之出 如在几席 余之來也 適風雨交至 繼以大霧不辨步武 遂惆悵而返 然從絶頂而 | 미상이나 49세(1822년)부터 이듬해까지 전라도관찰사를 지냄. |

| | | | |
|---|---|---|---|
| | | 下俯視　雲霧皆從脚下過　亦勝觀也)〉 | |
| 36 | 조인영<br>(趙寅永, 1782 ~ 1850) | 〈등광주무등산(登光州無等山)〉 | 미상이나 48세(1829년)에 전라도 관찰사를 지냄. |
| 37 | 박영원<br>(朴永元, 1791 ~ 1854) | 〈승평사군욕분로 독상무등산 우우이지 희초기조(昇平使君欲分路 獨上無等山 遇雨而止 戱草寄嘲)〉 | 미상이나 40세(1830년) 때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함. |
| 38 | 송달수<br>(宋達洙, 1808 ~ 1858) | 〈갑인초하 유서석산(甲寅初夏 遊瑞石山)〉 | 작품에 '갑인(甲寅)'이라는 간지가 있어서 47세(1854년) 때 유람한 것으로 보임. |
| 39 | 한장석<br>(韓章錫, 1832 ~ 1894) | 〈숙선료(宿禪寮)〉 | 미상 |
| 40 | 김윤식<br>(金允植, 1835 ~ 1922) | 〈광주무등산천황봉 광석립석 구재천황봉하(光州無等山天皇峯 廣石立石 俱在天皇峰下)〉, 〈광석대(廣石臺)〉, 〈입석(立石)〉 | 미상이나 67세(1901년)부터 10년 동안 지도(智島, 현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서 유배생활을 한 적이 있음. |
| 41 | 송병선<br>(宋秉璿, 1836 ~ 1905) | 〈서석산 경차백부운(瑞石山 敬次伯父韻)〉 | 34세(1869년)에 무등산을 유람함. |

이상 무등산을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유산기와 유산시를 대략 정리하였다. 이들이 무등산과 관련을 맺게 된 배경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라도 관찰사나 광주목사, 그리고 무등산 인근 지역의 현감과 같이 지역의 관직에 부임하여 무등산을 오른 경우이다. 김종직, 김부륜, 이안눌, 이명한, 신익전, 이해조, 정약용〔부친이 화순 현감〕, 홍석주, 조인영, 박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호남지역으로 유배를 와서 무등산과 관련을 맺은 경우로 정도전, 노수신, 김창흡〔부친이 영암 유배〕, 이하곤〔장인이 강진 유배〕, 김윤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유람을 목적으로 무등산과 관련을 맺은 경우로는 김극기, 김시습, 송순, 이지함, 기대승, 고경명, 신익황, 임상덕, 김도수, 송명흠, 송달수, 송병선 등이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기회가 우연히 주어져서 유람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셋째는 어느 정도의 뚜렷한 유람 목적을 가지고 무등산을 다녀갔다고 할 수 있다.

## 2. 무등산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통 시대 수많은 문인들이 무등산을 다녀갔는데, 본 강의에서는 고경명이 쓴 〈유서석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고경명은 그의 나이 42세(1574, 선

조7)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등산을 유람하였다. 이때 동행한 사람으로는 이만인(李萬仁), 김형(金逈), 임훈(林薰, 당시 광주 목사), 신형(愼衡), 이억인(李億仁), 김성원(金成遠), 정용(鄭庸), 박천정(朴天挺), 이진(李塡), 안언룡(安彦龍), 이원정(李元禎), 그 외에 악공과 하인 등이 있었다. 〈유서석록〉은 고경명이 4박 5일 동안 무등산을 유람한 뒤 쓴 무등산의 대표 유산기로 글자 수는 총 4,800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산 경로를 날짜별로 나누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4월 20일 : 누교(樓橋) → 취백루(翠栢樓) → 증심사에서 이만인, 김형 등과 함께 유숙
◎ 4월 21일 : 아침 식사를 한 뒤 증심사에서 무등산을 향해 출발 → 증각사(證覺寺) → 이정(梨亭) → 중령(中嶺) → 냉천정(冷泉亭) → 입석암(立石庵) → 불사의암(不思議庵) → 염불암(念佛庵)에서 유숙함.
◎ 4월 22일 : 상원등(上元燈) → 정상 상봉(上峰) → 서석(瑞石) → 삼일암(三日庵)의 월대(月臺) → 은적사(隱迹寺) → 석문사(石門寺) → 금석사(錦石寺) → 대자사(大慈寺) 옛터 → 규봉암(奎峰庵) → 광석대(廣石臺) → 문수암(文殊庵) → 자월암(慈月庵) → 풍혈대(風穴臺)와 장추대(藏秋臺) → 은신대(隱身臺) → 청학대(靑鶴臺)와 법화대(法華臺) → 문수암에서 유숙
◎ 4월 23일 : 광석대 → 송하대(送下臺) → 영신동(靈神洞) → 방석보(方石洑) → 장불천(長佛川) → 노루목 고개 → 창랑(滄浪) → 적벽(赤壁) → 오봉사(五峰寺) → 침현(砧峴) → 이점(耳岾) → 소쇄원(瀟灑園) → 식영정(息影亭) → 서하당(棲霞堂)에서 유숙
◎ 4월 24일 : 서하당과 식영정

이와 같이 고경명은 무등산 곳곳을 누비며 다녔다. 그렇다면 고경명은 무등산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 4월 20일 증심사에서 유숙한 것을 시작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 무등산 유람 첫째 날(1574년 4월 20일)
고경명은 1574년 4월 20일 정오가 되기 이전에 무등산 증심사 인근 골짜기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누교(樓橋)가 있었는데, 그 주변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누교를 거쳐 올라가니 수목은 더욱 울창하고, 바위는 더욱 수척하면서도 굳건하며 시냇물 소리는 구슬이 구르는 듯했으니, 점점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취백루였다. 취백루는 증심사에 있는 누각 이름인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드디어 취백루에 올라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휴식을 취하였는데, 취백루라 이름 붙인 것은 "잣나무가 뜰 앞에 푸르다.〔栢樹庭前翠〕"라는 글귀에서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벽 위에 권흥(權興) 등 여러 사람들의 시판(詩板)이 걸려 있는데, 대개 홍무(洪武, 명나라 태

조의 연호) 연간에 쓴 것이다. 그런데 김극기(金克己)의 시만이 유실되었으니, 이 어찌 뒷사람이 한탄할 바가 아니겠는가.

고경명이 증심사에 갔을 때 맞이한 사람은 조선(祖禪) 스님이었다. 조선은 고경명에게 송화로 빚은 술과 산나물로 대접을 하였으며, 증심사 법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날 저녁에 이만인, 김형 등이 증심사에 이르러 함께 유숙하였다.

◎ 무등산 유람 둘째 날(1574년 4월 21일)
늦은 아침에 임훈이 증심사에 당도하였고, 뒤이어 신형・이억인・김성원・정용・박천정・이진・안극지 등이 왔다. 고경명 일행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무등산을 오르기 시작하여 정오에 증각사에 도착하였다. 증각사에서 차를 마신 뒤에 곧바로 길을 떠나 이정을 거쳐 중령으로 향하니 길이 매우 험준하였다. 고경명은 이 길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차를 마신 뒤 곧 길을 떠나 이정을 거쳐 중령으로 향하니 험준한 길이 위로 뻗어있어 드높기가 천계와 같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물고기를 꿰미에 엮듯이, 개미가 기어가듯이 하여 겨우 한 자 전진하면 열 자를 뒤로 물러서야 했다. 길이 다한 곳에 이르니 앞이 툭 트여 넓게 활짝 열렸으니, 쾌활하기가 차양을 걷고 해를 보는 듯하였다.

중령은 흔히, 중머리재라고 부른다. 이 글을 보면 고경명은 중머리재까지 오르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이른 곳은 냉천정이었다. '냉천'은 찬 샘물을 뜻하는데, 고경명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샘이 나무 아래에 있어 바위틈에서 솟아나니 그 차가운 것은 도솔사(兜率寺)의 샘물에 조금 미치지 못했으나 달콤한 맛은 월등하였다.【도솔사는 규봉(圭峯)의 동북방에 있는데 이제 헐어졌고, 그곳에 있는 샘물이 지극히 차가워 그 빛깔이 푸른 쪽빛과 같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입석암자이었다. 고경명은 입석암자 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형상화하였다.

암자 뒤에는 기암이 뾰족뾰족 솟아 울밀한 것은 봄 죽순이 다투어 나오는 듯하였고, 희고 깨끗함은 연꽃이 처음 피는 듯하였으며, 멀리 바라보면 의관을 정제한 선비가 홀을 들고 읍하는 것 같았고, 가까이 보면 겹겹이 막힌 요새와 철옹성에 무장한 병사 일만 명을 나열한 듯하였다. 그 한 봉우리는 홀로 드높이 서서 형세가 외로이 빼어났으니 세속에서 초월한 선비가 군중을 떠나 홀로 가는 듯하였다.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네 귀퉁이가 옥을 깎아 세운 듯 층계가 첩첩하여 먹줄로 친 것 같았다. 생각하건대, 천지가 개벽할 처음에 아무런 뜻도 없이 결합되어 우연히 기이한 모습을 이룩한 것인가? 아니면 신공(神工)과

귀장(鬼匠)이 바람과 우레를 불러 이 교묘한 솜씨를 부린 것인가? 아, 그 누가 이것을 만들었으며 그 누가 이를 다듬었던가. 아미산(蛾眉山)의 옥으로 된 문이 땅 속에서 솟아나온 것이 아닌지, 성도(成都)의 석순(石筍)이 해안(海眼)을 둘러 진압한 것은 아닌가? 알 수가 없었다.

아미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으며, 보현보살의 성지를 가리킨다. 성도는 중국 사천성의 도읍을 말하고, 석순은 마치 죽순 모양으로 곧게 솟은 큰 돌을 말하며, 해안은 샘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강과 바다로 통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경명 일행은 이어서 입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 불사의암자에 도착하여 잠시 머문 뒤에 곧바로 자리를 떠 염불암자에 당도하였고, 그곳에서 유숙하였다. 이때 판관 안언룡과 찰방 이원정이 합류하였다. 고경명은 염불암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암자는 원래 강월(江月)이 창건한 것으로 중간에 폐허가 된 지 오래되었다. 정덕(正德, 명나라 무종 연호) 을해년(1515, 중종10)에 일웅(一雄)이 중창하였고, 융경(隆慶, 명나라 목종의 연호) 임신년(1572, 선조5)에 보은이 중수했으며, 옆에 작은 원우(院宇)를 설치했으니, 이는 하안거 때 참선하는 곳이었다. 일찍이 눌재(訥齋, 박상의 호)가 일웅을 위하여 중창기를 지었는데, 글자가 깎이거나 사라진 곳이 많았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

◎ 무등산 유람 셋째 날(1574년 4월 22일)

무등산 유람 셋째 날에 처음 간 곳은 상원등으로, 이곳은 작은 암자이다. 이어 정상 상봉에 올랐다. 고경명은 무등산 정상 상봉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상봉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셋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것은 천왕봉(天王峰)이요, 가운데 있는 것은 비로봉(毘盧峰)인데, 그 사이가 백여 척이다. 평지에 서서 바라보면 대궐문과 비슷한 것이 이것이요, 서쪽에 있는 것은 반야봉(般若峰)인데 비로봉과 더불어 두 정상의 거리가 거의 포목 한 필의 길이가 되고 그 아래는 겨우 한 척 남짓이니 평지에서 바라보면 화살촉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정상에는 잡목이 없고, 다만 진달래 철쭉이 바위틈에서 소복하게 나와 길이는 한 척 가량 되고 가지는 모두 남쪽으로 쏠려 깃발과 비슷했다. 그 지형이 높고 기후가 차갑기 때문에 풍설에 시달려 그렇게 된 것이다.

정상 상봉을 지나쳐 고경명이 이른 곳은 서석이었다. 서석은 보통 서석대(瑞石臺)라고 부르는데, 총석(叢石)이 즐비하게 모여 있다. 서석대를 뒤로 하고 반야봉과 비로봉의 아래를 돌아 상원등의 동쪽에 위치한 삼일암의 월대를 지났다. 이 월대에서도 선바위가 기이하게 있는 모습을 보았다. 월대를 지나 이른 곳은 은적사였다. 은적사는 금탑사의 동쪽에 있는데, 옹성(瓮城)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다음에 이른 곳은 석문사였다. 석문사는 금탑사의 서쪽 80보쯤에 있는데, 동서에 각각 기이한 바위가 쌍으로 서있어 여기를 거쳐 출입하였다. 석문사 다음에 간 곳은 금석사였다. 금석사는 석문사의 동남방에 있는데, 바로

뒤에 수십 개의 기이한 바위가 무더기로 솟아있고 그 아래에 샘이 있었다. 금탑사 아래로 대자사의 옛터가 있었는데, 길가에 석실이 있어 비바람을 가릴 만하였으며, 사람들이 '소은굴(小隱窟)'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고경명이 그 다음 이른 곳은 규봉암이다. 규봉암 서쪽으로 광석대가 있었는데, 바위 모습은 깎은 듯했으며, 넓고 평평하여 둘러앉으면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광석대의 남쪽에는 삼존석이 있었다. 고경명은 삼존석의 높이가 나무숲 위에 나와 창연히 솟아있으니, 광석대의 장엄함을 더하고 기세를 더욱 도와준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 광석대 서쪽에 위치한 문수암에 갔다가 이어 자월암에 갔다. 자월암은 광석대의 서북방에 위치해 있었다. 다음은 풍혈대와 장추대를 갔다. 자월암 동쪽에 풍혈대가 있고, 서쪽에 장추대가 있었다. 이어 장추대에서 서쪽으로 비탈길을 따라 가다가 이른 곳은 은신대였다. 은신대 북쪽으로 청학대와 법화대가 있었는데, 도처에 바위 구멍이 뚫려있어 배와 등을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식경 뒤에 절정에서 내려와 문수암에서 유숙하였다.

◎ 무등산 유람 넷째 날(1574년 4월 23일)

이날의 유람은 광석대에서 시작하였다. 이어 광석대로부터 남쪽으로 송하대에 이르렀고, 또 다시 동쪽으로 가 영신동에 다다랐으며, 방석보까지 갔다. 고경명은 이곳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영신동으로부터 방석보에 당도하니 그 사이의 마을은 모두 시냇물을 끼고 있었고, 돌밭과 띠집의 풍경은 소슬하게 닭이나 개소리도 서로 잊었으니 비록 무릉(武陵)의 주진촌(朱陳村)이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을 것이다.

동구에서 나와 시냇물을 따라 남쪽으로 가니 늙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꼭대기를 덮었으며, 석벽 사이로 한 가닥의 길이 겨우 통하여 주민들이 그 길을 경유하여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불천이 그 아래에 흐르고 있었는데,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마을 이름이 몽교(夢橋)라 하였다. 장불천을 건너 동쪽으로 한 가닥 작은 길이 있는 노루목 고개에 이르렀다. 노루목 고개에서 남쪽에 있는 창랑 연못에 이르렀고, 이어 적벽에 당도하였다. 고경명은 적벽 주변의 풍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일찍이 보건대 응성의 산은 순전히 바위로 되어 첩첩한 분위기가 혹은 낮고 혹은 높아 형세가 마치 진마(陣馬)가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 이 절벽이 된 듯 우뚝 높이 솟았다. 그리하여 몇 리를 뻗어내려 종횡으로 뒤얽힌 형세가 위로는 푸른 하늘에 닿았고, 아래로는 티끌세상을 진압했으니, 만약 조화의 원기가 뭉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장엄할 수 있겠는가. 그 높은 곳은 덩굴이 이어져 대략 어림잡아 보니 거의 70장(丈)이 되며 창랑의 물이 굽이쳐 돌아 깊고도 물빛이 검푸르나 마음에 두려워 굽어볼 수가 없었다.

적벽을 지나 오봉사에 이르렀고, 이어서 침현과 이점을 지나나 저녁에 소쇄원에 당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소쇄원은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지은 별서(別墅)로 알려져 있는데, 고경명은 이곳의 경치가 인상 깊었던 듯하다. 소쇄원의 주변 경치를 세밀히 묘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냇물이 집의 동쪽으로부터 흘러왔는데, 담장을 뚫고 끌어들여 졸졸 흐르는 물줄기가 뜰 아래로 흘러간다. 그 위에는 작은 다리가 있고, 다리 아래로는 바위가 오목하게 생겨 '조담(槽潭)'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작은 폭포가 되어 쏟아 내리니 그 소리가 영롱하여 거문고를 울리는 듯하였다. 조담의 위에는 노송이 굽어서 쓰러지듯 덮어 연못을 걸쳐 비껴있다. 작은 폭포의 서쪽에는 아담한 서재가 있으니 완연히 화방(畵舫)과 비슷하였다. 그 남쪽에는 돌을 높게 쌓아 날개를 편 듯 작은 정자를 세웠는데, 형상이 일산(日傘)과 같았다. 처마 앞에는 벽오동이 서 있는데, 고목이 되어 가지가 반쯤 썩어 있었다. 정자 아래로는 작은 연못을 파고 나무 홈통으로 시냇물을 이끌어 댔다. 연못의 서쪽에 죽림이 있어 큰 대나무 백여 그루가 구슬과 같이 서있어 완상할 만하였다. 죽림 서쪽에 연지(蓮池)가 있는데, 둘레를 돌로 쌓고 시냇물을 이끌어 작은 연못을 이루었다. 죽림 아래를 거쳐 연지 북쪽을 지나니 또 물방아가 있어 보는 것마다 소쇄하지 않음이 없었다. 김하서(金河西)의 48영에 그 아름다운 풍치가 모두 그려져 있다.

당시 소쇄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김하서는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말한다. 김인후는 양산보와 사돈 사이로 소쇄원을 자주 드나들었으며, 이로써 나온 시작품이 〈소쇄원48영〉이다. 소쇄원의 경치를 구경한 고경명은 저녁에 식영정에 이르렀다. 식영정은 김성원(金成遠, 1525～1597)이 지어 스승 겸 장인인 임억령(林億齡, 1496～1568)에게 희사한 누정으로 알려져 있다. 식영정을 감상한 뒤에 서하당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유숙하였다.

◎ 무등산 유람 다섯째 날(1574년 4월 24일)
고경명은 이날 서하당과 식영정에서 술자리를 끝으로 무등산 유람을 마쳤다.

제3강

# 담대헌(澹對軒)에서 무등(無等)을 바라보다

—노사학파(蘆沙學派)의 지성사적 기원—

**이 향 준**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담대헌(澹對軒)에서 무등(無等)을 바라보다
## —노사학파(蘆沙學派)의 지성사적 기원—

**이향준**(전남대 학술연구교수)

1.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7~1879)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학파(蘆沙學派)는 호남지성사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호남지역의 최초의 유학자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그 발흥 시기가 역사적 조선이 비틀거리면서 멸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19세기의 후반기라는 점에서 그렇다. 노사학파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탐구는 이 지역 지성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당면한 학술적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학계와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노사학파를 언급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이 학술 집단의 지성사적 기원을 개괄하고자 한다. 나는 먼저 몇 가지 은유적인 관념을 중심으로 성리학과 역사적 조선이 함께 얽혀 들어가는 독특한 양식을 묘사할 것이다. 제일 먼저 「리의 현실태로서의 조선」 혹은 「리국(理國)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은유적 이해를 가정할 것이다. 이것은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사족들이 조선이라는 역사적 실재를 추상적 리의 현실적 구체화로 간주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은유적 기초에서 파생된 세 가지 관념체계를 삼국체제(三國體制)라는 이름으로 제안할 것이다. 그것들은 각각 중국체제(中國體制), 왕국체제(王國體制), 사국체제(士國體制)라고 불린다. 이러한 관념축들에 근거해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추상적 원리와 역사적 현실을 관통하는 일종의 성리학적 사관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어휘를 통해 조선 역사의 몇몇 장면들을 성리학적 관념 변화의 양상들과 연결시킬 것이다. 이 변화 양상의 끝자락에서 나타난 것이 이항로, 기정진, 이진상과 같은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불꽃들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2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조선이라는 역사적인 국가의 서사와 추상적인 성리학적 이념을 뜻하는 리와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이것은 「리=국가」, 혹은 「리국(理國)으로서의 조선」 혹은 「리의 현실태로서의 조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적 이해에 기초할 때 조선의 서사를 성리학의 서사, 좁혀서

말하자면 리의 서사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성리학적 사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선을 뒷받침하는 대내외적 요소를 나눠보면 대외적으로는 조공의 대상이자 조선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증하는 명나라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있고, 안으로는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늘 언급하는 왕권과 신권의 상호 작용이 있다. 이제 이것들을 각각 중국체제, 왕국체제, 사국체제라는 낱말로 부르기로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리국으로서의 조선을 바탕으로 '리의 서사'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서 다음 세 가지 은유적 개념화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체제는 「리의 기원과 보증으로서의 중국」이란 관념을 역사적인 실재로서 명나라에 투사한 것이다. 둘째 왕국체제는 「리의 상징이자 대표로서의 최고통치자」를 조선의 왕에게 투사한 것이다. 셋째 사국체제는 「리의 담지자로서의 사족(士族)」을 조선의 사대부들과 융합한 것이다. 기원과 대표, 그리고 담지자들은 모두 '리'라는 한 낱말에 묶여 있다.

먼저 성리학적 리 개념을 국가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뿌리 관념이 있다. 한나라와 유학의 관계를 성리학과 조선의 관계와 비교해보면 이런 관념의 의의를 알 수 있다. 알려진 것처럼 한나라는 나라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수성(守城)의 방책으로서 유학을 재발견했다. 이 과정의 구체적 양상은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지만 그 대략의 방향성은 다음 두 가지 신화적 기록 속에 담겨 있다.

> 말 등에 올라타 천하를 얻었다고 하여 어찌 말 등에서 올라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옛날 상나라 탕왕(商湯)과 주나라 무왕(周武王)은 신하의 신분으로 천하를 취했으나 민심에 순응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문과 무를 같이 사용해야 나라를 길이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인의를 행하고 옛 성인의 법을 본받았다면 폐하께서 어찌 나라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1]

> 동중서는 「대책」에서 '공씨(의 학문을) 미루어 밝히고, 기타 제자백가를 억누르고 물리친다推明孔氏, 抑黜百家.'고 제안했다.[2]

전자는 육가(陸賈)와 한고조 유방의 대화인데, 이 대화에 이어서 유방은 육가에서 '진나라 망하고 한나라가 일어나게 된 까닭을 저술하라'고 명을 내려 『신어(新語)』 12편이 저술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일화는 흔히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언급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말 위에서' 즉 '전쟁'을 통해 창업을 이루었지, 유학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역사 인식이다. 오히려 유학에 대한 유방의 평소 태도는 "객 가운데에 유사의 관을 쓰고 오는 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패공이 그 관을 벗기고는 그 안에 오줌을 누곤 했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3] 때문에 이와 같은 대조적인 구절이 「육가열전」이라는 동일한 텍스트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방의 태도 변환을 강조하려는 장치가 아닌가 의심된다. 결국 이 대조적 병치를 통해 유방이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유학에 주목했다는 신화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1) "居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之乎? 且湯武逆取而以順守之, 文武並用, 長久之術也.…鄉使秦已并天下, 行仁義, 法先聖, 陛下安得而有之?" 司馬遷, 『史記』 권97(중화서국 25사본), 「陸賈列傳」 제37, 2699쪽.

2) "仲舒對冊, 推明孔氏, 抑黜百家." 班固, 『前漢書』(중화서국 25사본) 권56, 「董仲舒傳」 제26, 2525쪽.

3) "沛公不好儒, 諸客冠儒冠來者, 沛公輒解其冠, 溲溺其中." 『사기』, 「陸賈列傳」 제37, 2692쪽.

한편 후자는 동중서(董仲舒)의 건의와 한 무제의 결정에 의해 중국사상사에서 유학이 관학화되는 순간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이 구절은 「무제기」의 '제자백가를 물리치고 육경을 표장한다[罷黜百家 表章六經]'는 표현을 거쳐서, 지성사에서는 '제자백가를 물리치고 오로지 유학만을 존중한다[罷黜百家, 獨存儒術]'는 관용적 표현이 나타난 계기라고 받아들여진다. 이런 인식은 다음과 같은 표현 속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漢 武帝 때인 기원전 136년 董仲舒(179~104년, BC)의 건의로 官學이 된 儒學은 이후 漢·唐에 걸쳐 訓詁學風을 열어갔으며, 근대에 이르기까지 2천여 년 동안 그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일대를 '유교문화권'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4]

그러나 동중서와 한무제의 신화적 조치는 오늘날의 문헌비평적 연구를 통해 그 다지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염철론」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박성진은 이렇게 주장했다.

> 武帝부터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기에 儒家는 그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되는 존재였다. 《鹽鐵論》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武帝 및 昭帝, 宣帝까지의 漢代 中期까지 儒家는 현실 정치나 학술영역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5]

이것은 한나라에 대해 「이상적인 유교국가로서의 한나라」라는 은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에 대해서는 유학이 '그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되는' 그런 것이었을지 모른다. 유학자들은 한나라의 개국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한나라와 자신들의 학문을 동일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성리학을 후대의 지배적 조류로 만들었던 송대 성리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중국의 신유학자들이 당나라 몰락에 개입하지 않았다"[6] 반면에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들과 달랐다.

>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고려에서의 주자학 수용은 그 후의 왕조인 조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즉 새로운 지식인층[여말의 신진 사대부]과 군권軍權의 결합에 의한 조선의 건국은 주자학적 가치관의 본격적 전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음과 동시에 체제교학으로서의 주자학이 조선 사회에서 500년 동안 기득권의 지위를 차지하는 서막에 다름 아니었다. 이제 주자학은 명실상부하게 조선의 정치·경제·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된다.[7]

마르티나 도이힐러 역시 '새로운 지식인층'의 실체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비슷한 주장을 제기한다.[8] 이들의 견해를 따르자면 조선은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적으로 정향된 채 태어났다. 한나라는 나라를 세운 후에 유학을 받아들였지만, 조선은 유학적 이념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졌다. 이 때문에 조선은 하나의 독특한 은유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성리학적 이상국가로서의 조선」이 그것이다.
이 '성리학적 이상'을 대표하는 낱말로서 리(理)를 제안할 수 있다면, 결국 「리의 현실태로서의 국가」

4) 홍원식, 「동중서 철학의 중국유학사적 위치」, 『동아인문학』 39집(동아인문학회, 2017), 180쪽.
5) 박성진, 「한무제 「독존유술」 재론」, 『중국문학연구』 51집(한국중문학회, 2013), 20쪽.
6)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이훈상 옮김(너머북스, 2013), 393쪽.
7) 고지마 쯔요시 지음, 『사대부의 시대』, 신현승 옮김(도서출판 동아시아, 2007), 101쪽.
8)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이훈상 옮김(너머북스, 2013), 394쪽.

즉「리국으로서의 조선」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  조선이란 국호에서 이 이념을 명확하게 밝힌 이는 정도전이었다. 그는 명 태조가 조선의 국호를 허락하면서 했던 짧은 발언을 곧바로 기자의 이름을 빌려 신유학적 이상을 세속에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연결시켰다.

>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洪範)을 설명하고 홍범의 뜻을 부연하여 8조(條)의 교(敎)를 지어서 국중에 실시하니, 정치와 교화가 성하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러므로 조선이란 이름이 천하 후세에 이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제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자의 선정(善政) 또한 당연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 명천자의 덕도 주무왕에게 부끄러울 게 없거니와, 전하의 덕 또한 어찌 기자에게 부끄러울 게 있겠는가? 장차 홍범의 학과 8조의 교가 금일에 다시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공자가, "나는 동주(東周)를 만들겠다."라고 하였으니, 공자가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9]

기자의 이념과 조선의 건국이념을 일치시키고 있지만, 실상 정도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리학의 이상국가를 가리킨다. 즉 그들은 조선을 처음부터「리의 현실태」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리의 현실태를 보증하는 기원을 중국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은 원도 아니고 미래의 청도 아닌 역사적인 명나라이다.

## 3.

역사적인 명나라에 대해 조선의 배경이나 보증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는 역사적 발상을 리의 서사로 옮기면 리의 배경이나 보증으로서의 중국을 뜻하는 '중국체제'가 된다. 이 관념은 몇 가지 방식으로 조선 역사의 특정한 순간들을 만나 변동되었다. 그런데 이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가지의 관념축, 즉 왕국체제와 사국체제와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변동의 설명에 앞서 왕국체제와 사국체제를 간략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왕국체제라는 낱말은 얼핏 동어반복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이 왕국체제가 그리 단단한 지반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조선의 역사 전체에 새겨져 있다. 왕권와 신권의 긴장과 갈등에 관한 서사는 정치학과 사회학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체제는 상호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출현했다. 따라서 조선은 하나의 계열체에 결부된 두 가지 정통성을 왕과 사족들이 양분하고 있다. 소진형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치통(治統)과 도통(道統)의 양립이라고 할 수 있다.

> 성리학은 왕권을 학문적 권위와 정치권력으로 쪼갬으로써 통치를 왕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구분된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규정한다. 소위 도통(道統)과 치통(治統))으로 이해되는 도덕과 정치의 분리는 도덕에 기초한 규범적 질서와 그에 근거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통치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성리학자들의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

9) "今旣襲朝鮮之美號, 則箕子之善政亦在所當講焉. 嗚呼! 天子之德無愧於周武, 殿下之德亦豈有愧於箕子哉? 將見洪範之學, 八條之敎, 復行於今日也. 孔子曰: 吾其爲東周乎, 豈欺我哉?" 鄭道傳,『三峯集』권13(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vol.5),『朝鮮經國典』,「國號」, 414쪽.

정치적 정당성은 왕이 갖고, 학문적 정당성을 사족들이 갖는 이런 이분화를 왕국체제와 사국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낱말들은 하나의 조선을 구성하는 이념적 정당성의 축을 구분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처음부터 사대부들에게 조선이라는 "국가는 비할 바 없는 사회적 정당화의 원천 그 자체"[11]였기 때문이다. "과거 합격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하고 사회 지위를 비준하는 것은 바로 국가"[12]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역사에서 뒤섞여 있으면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두 체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왕국체제에서 왕은 자신을 리의 대표자 혹은 리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성리학적으로 보자면 리일(理一), 곧 태극(太極)이라는 개념에 왕이 대응한다는 관념을 뜻한다. 따라서 이 왕국체제라는 관념에서 핵심은 「리의 상징으로서의 왕」이라는 은유가 조선의 왕들에게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사적인 것은 이 주장이 노골적으로 표명되는 시점 자체이다. 어떤 이데올로기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간주될 때 그것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원칙들은 분명히 공언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왕국체제에 대한 옹호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체제가 리의 서사의 일부라는 강한 주장은 임진·병자로 인한 왕권의 실추와 무기력을 목격한 조선 후기 강력한 왕국체제의 옹호자였던 정조의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 달이 물속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그대로 밝다....물이 흐르면 달도 함께 흐르고, 물이 멎으면 달도 함께 멎고,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달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물이 소용돌이치면 달도 함께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그 물의 원뿌리는 달의 정기(精氣)이다. 거기에서 나는, 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달이 비춰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 각자의 얼굴이고 달은 태극(太極)인데, 그 태극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만천(萬川)의 밝은 달에 태극의 신비한 작용을 비유하여 말한 그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나는, 저 달이 틈만 있으면 반드시 비춰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태극의 테두리를 어림잡아 보려고 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그는 물속에 들어가서 달을 잡아 보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무 소용없는 짓임도 알고 있다.[13]

이것은 '월인만천(月印萬川)'이라는 전형적인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은유적 구도를 태극으로서의 왕과, 백성들의 관계에 다시 한 번 투사한 것이다. 정조의 은유에서 달은 태극—다른 말로 하자면 이일(理一)이다—으로서의 왕이며, 물은 백성이고, 물에 비친 달은 분수(分殊)로서의 백성의 얼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소진형은 이 구절이 리의 움직이는 대리자로서의 왕의 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 만천에 해당되는 신민들에게 달인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다는 비유는, 리의 동일성에 기반한 도덕-정치주체를 왕의 정치적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는 대리자(agent)로 전환시킨다. 정조는 분수, 즉 차이를 개별자의 본질적 특징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개별자들의 동일성이 자신에 의해 담보

10) 소진형. 「조선후기 왕의 권위와 권력의 관계」(서울대 박사, 2016), 32쪽.
11)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이훈상 옮김(너머북스, 2013), 403쪽.
12) 같은 책, 401～402쪽.
13) 正祖, 『弘齋全書』 권10(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vol.262), 「萬川明月主人翁自序」. 158～159쪽.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왕을 정치의 근원이자 질서의 원천, 그리고 리일분수로 정치적 영역을 조직함으로써 정치를 완성하는 유일한 정치주체로 만들었다.[14]

왕국체제가 왕에게 리의 대표성을 부여할 때, 사족들은 동일한 리의 서사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는가? 이론상 사국체제는 것은 리의 상징이자 대표로서의 왕과는 또 다른 면에서 사족들이 리의 서사와 가지는 연관을 주장해야 한다. 그것의 단적인 사례는 수없이 많이 발견되는 사대부를 표현하는 관용어로서 원기(元氣)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 성리학적 사유에서 기(氣)가 리의 그릇[器], 즉 리의 담지자라는 발상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라의 원기는 사림에게 매여 있다"[15] "사림은 나라의 원기다"[16]는 표현은 흔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성현(成俔, 1439~1504)은 분명하게 '어떤 나라도 유학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17]고 단언했다. 결과적으로 이 유학자들, 사대부들, 사족들의 조선에 대한 권리주장을 사국체제라고 간주한다면, 이 사국체제의 기본적 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선시대 유교 헌정주의는 인정(仁政)・왕도(王道) 등으로 표현되는 유교적 가치를 지향하고 선진(先秦)・한당(漢唐)을 걸쳐 발전해온 유교적 정부구조로 출발했지만, 그것이 헌정주의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용하여 유교적 헌정 원리를 구현할 인적 주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주자(朱子)와 그의 제자 황간(黃幹)이 발전시킨 도통론(道統論)을 활용하여 정치적 주체의 역할을 정당화했다. 도통론의 내적 논리에 따르면, 도통을 담지한다는 것은 유교 경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권위를 차지한다는 것, 즉 정치권력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18]

조선의 권력을 치통과 도통으로 나누고, 사족을 '도통을 담지하는' 집단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사족체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것은 사족체제의 내밀한 의미가 「리의 담지자로서 사족」을 개념화한 낱말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 4.

리로서의 조선을 뒷받침하는 관념축으로서 중국체제, 왕국체제, 사국체제는 조선이란 국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들을 리의 서사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통로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념축들의 상호작용과 조선의 역사적 서사들은 어떻게 연관되는가?
중국체제는 「리의 기원/배경으로서 중국」이란 관념이다. 여기에서 중국은 역사적인 명나라라는 사실

14) 소진형. 「조선후기 왕의 권위와 권력의 관계」(서울대 박사, 2016), 175～176쪽.
15) "國之元氣之繫於士林也." 趙光祖, 『靜菴集·附錄』 권2(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vol.22), 「己卯救諸賢疏」, 159쪽.
16) "士林者, 有國之元氣也." 李珥, 『栗谷全書』 권7(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vol.44),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133쪽.
17) "國不可一日無儒也." 成俔, 『虛白堂文集』 권11(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vol.14), 「擬東坡十論」, 497쪽.
18) 이석희·강정인, 「조선유교 헌정주의의 성립: 도통론과 문묘배향논쟁을 중시믕로」, 『한국정치학회회보』 52집(한국정치학회, 2018), 159～160쪽.

이 중요하다. 1368년 나타난 명나라는 1392년 세워진 조선의 정치적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인해주는 최종 심급이었다. 조선은 명의 비준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단적으로 화령(和寧)과 조선(朝鮮)이란 두 국호 사이에서 조선을 택한 것도 명나라의 결정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조선의 존속 기간보다 명나라의 존속 기간은 더 짧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 1644년 명나라의 멸망은 이 「리의 기원으로서의 중국」이란 관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시각에서 중국체제가 조선의 서사에 개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존재한다. 1592년의 임진왜란의 발발과 명나라의 개입, 1636년 병자호란에 뒤이은 1644년 명나라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계기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중국체제와 효과와 몰락,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조선의 관념장의 변동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왕국체제를 중심에 두고 사국체제와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면 리의 대표자로서 국왕의 위상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반정(反正)관 환국(換局)이라는 낱말보다 이것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 두 가지 정치적 현상은 왕국체제와 사국체제의 상호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으로 묘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낱말들은 조선의 왕권이 놓여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왕국체제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사국체제이고, 그것은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다. 조선 시대 정치사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설명인 왕권과 신권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은 이 두 낱말이 함축하는 두 체제의 상호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왕국체제가 중국체제에 의존한다는 대외적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건이 있다. 그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다. 임진왜란에 참여한 명에 대한 조선 사대부들의 입장은 재조지은(再造之恩)이라는 낱말에 담겨 있다. 리의 서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하나는 전쟁 발발 초기에 한양을 포기하고 의주로의 피란을 결정한 왕국체제의 무능이었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훗날 임진·정유재란이 끝났을 때 공신을 책봉하면서 한양에서 의주까지 자신의 피란을 수행했던 종친과 관료들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제일 먼저 호명함으로서, 선무공신 및 정난공신보다 자신의 피란이 결과적으로 더 전쟁의 극복에 주요 동력이었다고 자부했다. 한양을 버렸던 선조가 이렇게 자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중국체제가 기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조선 초기 요동의 문제라든지 종계변무 등을 이유로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친밀한 책봉–조공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항왜원조抗倭援朝'로 돌아왔다.

> 명과 조선의 관계는 전형적인 책봉-조공 관계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사대事大-자소字小 관계였다....명에 대한 조선의 '사대'가 지극했기에, 명도 '자소字小'로써 응답하려 했으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곧 '항왜원조抗倭援朝'였다. 1592년에 일본군이 조선을 침공했을 때, 명은 대군을 보내어 "조선을 도와 일본군을 격퇴했던 것이다."[20]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리의 현실태로서의 조선을 가정하는 사대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왕국체제는 내적으로 무능했지만, 대외적으로 중국체제를 동원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것은 외교적인

---

19) 이것을 상징하는 선조의 피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신명호,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군사』 81집(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115-150쪽 참조.

20) 김한규 지음, 『천하국가』(소나무, 2005), 285～286쪽.

성공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다시 말해 왕국체제와 중국체제가 가장 효과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역사적 경험을 조선의 사대부들은 임진왜란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 왕국체제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인다는 사유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1636년 조선은 이제 왕국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위기를 겪었고, 그 결과는 왕국체제의 완전한 무기력함이었다. 중국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자, 조선은 청나라의 침입에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반정으로 의심받고, 임진왜란기를 통해 대외적 효과를 입증했던 왕국체제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현실의 중국체제로서 명나라마저 1644년 망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리의 현실태로서 조선을 지탱하는 삼국체제 가운데 두 가지가 거의 현실적 효과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론상 이제 남은 것은 사국체제 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조선후기 정치와 사상이 뒤얽힌 세 가지 현상을 색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 5.

1636년 드러난 왕국체제의 무기력과 1644년 현실적인 중국체제의 종말로 간주되는 두 현상은 조선의 사족들에게 어떤 관념적 변동을 낳았다. 그 변화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적 권력다툼으로 격화된 예론의 등장, 즉 예송논쟁이 나타났다. 둘째 현실 속에서 사라진 중국체제는 조선 사대부들의 정신세계 속으로 자리를 옮겨 관념화된 중화사상으로 변모했다. 셋째 명나라가 담당하고 있었던 리의 기원이자 보증으로서의 역할은 주자학의 기원으로서 주자를 조선의 지성사에 호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해서 한국 성리학은『주자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학적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먼저 리의 서사라는 측면에서 왕의 이름은 권위를 잃었다. 이 왕이 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리학적 리의 위기였다. 왜냐하면 이 리의 부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조선의 존립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외적으로는 중국에서, 내적으로는 왕에게서 더 이상 리의 근거와 대표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제 그것은 오로지 리의 담지자로서 사족들 자신에게서 나와야만 했다. 사대부를 다른 인간들과 분리시켜 주면서, 동시에 이들이 리의 담지자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사국체제는 이미 조선이 탄생할 때부터 강조되고 있었던 것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예(禮)였다. 예는 고려 사회를 유교사회로 바꾸려고 했던 성리학자들이 처음부터 주목했던 강력한 도구로써 17세기에 갑자기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었다.

> 16세기 성리학의 심성론이 심화된 결과 17세기에 가서 비로소 예학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16세기 중반부터 예학은 그 자체 내의 독자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해오다 17세기에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양란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한 단계 더욱 발전한(level up)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1]

21) 고영진,『조선중기예학사상사』(한길사, 1995), 361쪽.

고영진은 이미 16세기 중반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예학의 발달을 보고하면서, 17세기의 예론이 우연한 역사적 돌출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각을 더 넓히면 이것은 사실 고려 사회에서 조선으로의 전환 속에 포함된 유교적 변환의 역사적 양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려 사회가 유교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며 대체로 조선 왕조 건국 이후 250년에 걸쳐 일어났다....왕조 건립 이후 2세기가 되면서 종족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고 적용되면서 관성이 붙었다"[22]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론 혹은 예학의 발달은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역사적 흐름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리의 서사와 삼국체제라는 관점은 17세기 예송논쟁의 중요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의례 논쟁이 정치적 권력 투쟁과 동일시되는 현상은 예를 진리의 구체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왕국체제와 중국체제의 몰락을 지켜본 17세기의 사족들에게 예는 이제 리국으로서의 조선을 정당화하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사례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17세기 예론의 발달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독특하고, 격렬하게 만든 두 체제의 몰락과 그 사이에서 리의 현실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국체제의 절실함이 낳은 지성사적 결과가 진리 논쟁으로서의 예송이자 정치논쟁으로서의 예송이었던 것이다.

결국 17세기의 현상으로서 예론의 격화는 사대부 계층이 무너진 권위일망정 왕국체제로서의 조선을 인정함과 동시에 왕이 리의 상징일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리의 실재성과 그 실재성의 담지자로서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는 이론 실천적 양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대부들 자신들의 의례뿐만 아니라 왕실의 의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왕은 리의 상징이면서 그 자체가 가장 큰 사족집단이 전주이씨의 종자(宗子), 즉, 왕국체제의 정점이면서 사국체제의 정점이었기 때문이다.[23] 그러므로 왕실의 의례를 둘러싼 예송논쟁의 주요 쟁점은 즉 왕실을 사국체제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왕국체제의 예외성 속에서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 6.

두 번째 현상은 중화주의와 주자정통주의의 출현이었다. 김봉곤은 기정진의 척사위정사상의 기반 가운데 하나로 춘추적 관념인 '대일통' 사상에 두면서, 이것을 송시열의 영향과 만동묘의 복설을 주장하는 텍스트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 논지에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은 다시 송시열과 만동묘, 춘추의 대일통은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질문을 한 단계만 더 넓혀 나가도 김봉곤의 논의가 어떤 거시적인 맥락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의 서사에서 보자면 김봉곤의 의의와 한계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명할 수 있다. 송시열과 그가 대변하는 철학적 입장의 대두는 명확하게 1644년 이후의 조선 체제의 영향이라는 것

22)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이훈상 옮김(너머북스, 2013), 386쪽.

23) 이러한 이중성은 하나의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 시대 전기간을 통틀어 대략 14,600명 정도의 문과합격자가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740여개의 종족 집단에서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 53%를 39개의 주도적 종족 집단이 장악했는데, 왕실을 포함하는 전주 이씨는 모두 84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서 그 가운데서도 수위를 다투고 있다.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이훈상 옮김(너머북스, 2013), 400쪽 참조.

이 분명하다. 만동묘는 신종과 의종을 배향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곳인데, 신종은 임진왜란의 참전을 결정한 황제였고, 의종은 명의 마지막 황제였다. 지금껏 논해온 리의 서사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신종은 리국으로서의 조선을 지원하는 중국체제의 현실적 작동을 증명하는 인물이고, 의종은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중국체제의 몰락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가 제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조선의 사국체제가 몰락한 중국체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즉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의 현실적 몰락을 관념적 현존으로 대치하는 의례의 장소로서 만동묘를 설치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중국체제가 리의 배경이자 보증으로서 너무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제의 몰락을 인정하는 대신 관념화라는 기제를 이용해 그 '현존'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뜻한다.

만동묘로부터 춘추의 대일통 사상으로의 연결을 찾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신화적 관념을 떠올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리학 일반에 팽배해 있는 '복기초'의 신화다.[24] 애초에 대일통(大一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제안된 텍스트가 『춘추』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주의 몰락을 지켜본 뒤에 그러한 질서의 재확립을 가져올 과정으로서 대일통이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송시열 시대의 춘추의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복기초'의 서사에 매몰되어 있었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원복(不遠復)'의 기대감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시각은 조선의 사족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연관된 네 가지 서사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말에서 북송 시대에 나타난 선진유학 전통의 되살림으로서 성리학적 사유의 대두가 있다. 이러한 운동의 성리학적 이념화로서 이론화된 수양론적 표어로서 '복기초' 서사가 있다. 이민족의 제국이었던 원나라를 극복하고 중화의 질서를 되찾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명나라의 건국 서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영향받아 세운 나라의 이념을 고대 기자조선의 재구현으로 간주하고 있는 정도전의 조선 이해가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25]

이런 점에서 이항로의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이 어째서 원나라의 역사적 의미를 '무통(無統)'으로 처리한다는 발상을 떠올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명에서 청으로의 교체가 비가역적인 역사 현상이 아니라, 다시 명과 같은 나라가 되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만동묘와 소중화의 이념을 유지한다는 것의 의의란 찾아질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송과 명 사이의 원을 무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명과 미래의 회복된 중국체제로서의 가상의 국가 사이에 있는 청 또한 무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이런 점에서 소중화사상은 중국체제의 가상역사적 도래에 대한 기대이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회복될 중국체제가 다시 한 번 리국으로서의 조선의 보증이 되기를 소망하는 관념적 태도인 것이다.

이 가상의 중화체제는 중국체제와 엄연히 다르다. 중국체제는 역사적 실체로서 명나라와 이 명나라를 리의 서사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은유적 관념의 결합을 뜻한다. 중화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중국체제의 관념화를 첫 번째 조건으로 하고, 이 추상적 관념의 실재성을 현존하는 조선과 결합

24) 주희는 '복기초(復其初)'라는 구도를 『논어집주』의 첫머리에서 학문의 보편 이념으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이념의 은유적 개념화는 「잃어버린 보물」 은유로 명명되었다. 이향준, 『조선의 유학자들 켄타우로스를 상상하며 리와 기를 논하다』(예문서원, 2011), 148쪽.

25) 이런 의미에서 정성원의 『더럽혀진 성리학적 질서의 되살림』이라는 책명은 시사적이다. 위정척사론 자체가 하나의 기원을 가정하는 '복기초(復其初)'의 서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조건으로 한다.
중국체제가 중화체제로 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더 있다. 명나라는 사라졌고, 청의 이름이 결코 이 관념을 대신할 수 없기에 이 은유적 관념은 자신의 귀착처를 다른 것에서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은 문자 그대로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근본주의적 관념의 탄생이었다. 필요한 절차는 치통(治統)으로서의 국가 관념을 도통(道統)으로서의 성리학적 관념으로 치환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한 개인의 이름으로 변형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개인이 성리학적 리의 수원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한 번 도통을 호명했고, 이 도통의 가장 중요한 귀결처로서 주희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결국 성리학적 「리의 기원으로서의 주희」는 「리의 기원으로서의 중국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귀결이었고, 이것은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어휘의 출현과 함께 『주자대전차의』로 대변되는 주자학에 대한 해석학적 탐구의 발흥이라는 조선 특유의 지성사적 양상을 설명해준다.[26]
특히 『주자대전차의』는 "『대전』 전체에 대한 주석을 최초로 달성한 저술이라는 점 이외에도...체제상의 특징을 통해 자신의 성격이 이전의 퇴계학파의 선행하는 작업으로부터 구분되는, 새로운 영역의 시작을 알리는 저술이라고 주장"[27]하고 있다는 대목은 시사적이다. 기호학파의 다수 구성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편찬자로 송시열이 대두하였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삼국체제에 근거해서 해석학적 발전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두 체제의 몰락으로 인한 체제 유지의 부담을 단독으로 져야 하는 사국체제가 잃어버린 중국체제의 현존성을 주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동한 근본주의적 운동의 한 형태로서 대두한 주자정통주의의 한 결과였던 것이다. 주희는 한 사람의 성리학자가 아니라 사문난적을 배제하는 하나의 전범이어야 했으며, 그 깊이와 내용은 리의 담지자인 사족들에 의해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주자대전차의』는 복잡한 주석서와 해석서들의 가지로 뻗어나갔고, 이 이후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 대한 비평은 많든 작든 거의 모든 유력한—특히, 기호학계— 성리학자들의 문집 속에서 한 칸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그들은 중국체제와 왕국체제의 몰락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계기들을 접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서양의 발견이었고, 이 서양의 발견에 대응하는 담론의 최초 양상이 18세기 초엽의 인물성동이론의 한 축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처음 발견된 서양은 중국, 왕국, 사국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들의 존재론적 가치론적 위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서학(西學)으로 명명되었고, 서학의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서 그것이 성리학적 질서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협적이라는 것이 점점 노골화되었다. 조선과 서학, 조선과 서양의 관계는 리의 서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우호적일 수는 없었다. 성리학자들의 방황은 서학의 도입과 이에 대한 반응 및 일련의 역사적 계기들이 신유박해를 거쳐 천주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과정의 긴 사슬의 마지막에 이항로, 이진상과 함께 노사 기정진의 성리학적 사유가 예비되어 있었다.

---

26) 『주자문록』과 『주자서절요』에서 발단한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이 편집서, 주석서, 해석학적 저술의 순으로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개괄은 이향준,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 『율곡학연구』 25집(율곡연구원, 2012), 129~160쪽 참조.
27) 같은 글, 같은 책, 142쪽.

제4강

# 언론을 통해 본
# 광주학생독립운동

김 성
(사)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 언론을 통해 본 광주학생독립운동

**김 성** (사)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1.학생독립운동의 의의
2.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가. 1929년 이전 학생운동 관련 보도들
나. 1929년 학생독립운동 이후 관련 보도들
다. 1945년 해방 이후 1952년까지의 언론보도
라. 1953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1983년까지 기념행사
마. 1984년 다시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념행사

## 1. 학생독립운동의 의의[1)]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되어 1930년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던 학생독립운동은 이후에도 다시 전세계 우리 동포가 사는 국가로 확산되었다.

학생독립운동의 의의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리된 몇 가지 정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동걸 교수는 식민지시기의 특성으로 순수성, 진보성, 종합성, 민족지성의 대변 등을 지적했다. **순수성**이란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처럼 자기계급의 권익운동을 본질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지성을 대변한다는 것으로 이상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성**이란 식민지 교육의 피교육자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과되는 교육 지성과 무관하게 혹은 그에 반발하는 가운데 진보를 탐색하게 되었고 아울러 구세대의 봉건적 잔재를 극복한다는 신세대 지향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라는 말이고, **종합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역별 종합성을 말하는데 계급적 종합성을 나타날때도 있다. **민족지성**을 대변한다는 것은 기성세대가 빼앗긴 나라를 자신들이 광복한다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2)]

---

1) 김성.「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 변천과정과 향후 기념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광주학생독립운동 89주년 세미나(국회의원회관), 2018. 10. 16 에서 요약발췌
2) 조동걸,「광주학생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11·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광주학생독립운동 7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1999. 10. 23 p.5.

또 광주학생운동의 **한국학생운동 상의 위치**를 11월 12일 광주에서 살포된 격문에 광주학생의 특수문제와 더불어 조선본위의 교육, 교우회의 자치권 문제, 식민지적 차별교육 철폐,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보장,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 등 그동안 제기됐던 전국학생의 일반문제를 대변하면서 1920년대의 맹휴투쟁의 주장을 총결산하듯이 종합적으로 대변했다[3]고 분석했다

**민족운동상의 위치**에 대해서도 학원문제에 한정했던 학생운동을 독립운동으로 발돋움하며 민족운동의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비록 광주학생운동이 독립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으로 끝맺게 된 이유는 신간회나 근우회 같은 사회운동 조직들이 학생운동을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운동사 측면에서는 1920년대 민족운동의 총결산이자 1930년대 민족운동의 방향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4]

박찬승 교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0년대 말 신간회 운동을 비롯하여 노동·농민운동 등이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 하에서 전체 민족해방운동을 다시 한 번 고양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1930년 이후 여러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당시 구속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이후에도 청년, 노동, 농민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을 통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함으로써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발전시켜 나갔다'[5]고 평가하였다.

이상식·오종일 교수도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임진왜란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언급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09년의 한말 의병(45.6%가 전남인), 3·1운동에 이어 일어났으며 다시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연결되었다고 하였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역사의 계승과 발전이란 관점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했다. 다른 지방에서는 신군부의 총칼에 압도되어 침묵하고 있을 때 광주·전남의 민중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그들의 야욕을 분쇄하러 온 몸으로 항거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애국심과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이 지방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이 표출된 것[6]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생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장편소설 ≪'알 수 없는 내일≫을 발표한 문순태는 "학생독립운동은 5·18 광주정신의 뿌리"라고 하였다.[7]

노산 이은상은 학생독립운동의 의의와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해준 글 남겼다. 이 글을 먼저 소개하도록 한다.

---

3) 조동걸, 앞의 글 p.12.
4) 조동걸, 앞의 글 pp.11-16.
5) 박찬승,「전남지방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역사학연구(9)』호남사학회, 1995. pp.383-406.
6) 이상식·오종일 공저,「제 7장 역사의 가르침과 참다운 삶」,『義鄕』, 광주광역시교육청, 1997. 전남대출판부, p383 - 386.
7) 오늘 '광주학생독립운동' 80돌…'알 수 없는 내일' 쓴 소설가 문순태 씨. "20년 뒤엔 민족운동 실체 밝혀야" "우발적 사건 아닌 조직적 항일운동"『전남일보』2009년 11월 3일. 문순태 작가는 "(일반인들이) 5·18은 알아도 11월3일은 모른다는 사실이 서글프다"며 "광주 정신의 뿌리가 학생운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항일투쟁 당시 시민들이 시위학생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며 격려하고 호응했던 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5·18과 똑같은지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학생운동에 대한 자료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자치단체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날」의 현실적 의의 - 광주학생운동의 역사적 성격[8]  이은상[9].

1929년 11월 3일은 광주에서 동포학생들이 일제에 대항하여 의거를 일으킨 날이다. 그래서 해방 후에 우리들은 이날을 광주학생운동기념일로 지켜왔고 그러다가 1953년에 이르러서는 문교부에서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정하고 그 당시 의거의 근거지인 광주서중학교 동창회의 발기로 본교 교정에 학생탑을 세우는 한편 학도호국단의 이름으로 전국 대중소학교를 통하여 제창할 수 있는 '학생의 노래'를 제정할 적에 필자는 즐거이 붓을 들고 위에 쓴 3절의 가사를 지었던 것이다. 나는 이 가사에서 광주학생운동을 통하여 나타난 이 나라 학생들의 기질과 지향(指向)을 제시했던 것이어니와 국토(國土)와 민족(民族)과 정의(正義)를 위하여서는 생명이라도 달게 던져 항쟁하는 거기에 이 나라 학생들의 영광과 긍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학생의 날'에 대한 진정한 의의와 가치도 정(正)히 이 일점(一點)에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884년 갑신정변이 있은지 10년이 지난 1894년에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다시 또 10년이 지난 1904년도에 노일전쟁이 일어났다 끝나면서 국운(國運)은 낙일(落日)을 재촉하여 마침내 1910년 경술(庚戌)에 국치(國恥) 민욕(民辱)의 날을 만나고야 말았다. 기리(己利)와 안일(安逸)과 부패(腐敗)와 겁약(怯弱)이 필경 매국(賣國)에까지 이르렀던 특권층의 죄악이야말로 천추(千秋)에 씻지 못할 것이었거니와 그 매국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국토를 팔고 민족을 팔고 정의를 팔았던 것이다. 그런지 10년만인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거니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토를 찾고 민족을 찾고 정의를 찾으려던 운동이었다 할 것이요 또다시 10년이 지난 1929년 이날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역시 다른 것 아닌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것이다. 3·1운동에 있어서도 그 참가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던 것을 잊어버릴 수 없거니와 그래도 그것은 지도자의 선창(先唱)에 의하여 전민족의 아픔으로 일어났던 것이지만은 10년 후의 광주학생운동은 학생 자체의 자발적인 항쟁이었다는 것에 특색이 있었던 것이며 다시 나아가 그들이 선봉이 되고 지도층이 오히려 뒤를 따르게 되었던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시의 사실을 다시금 회고해 보면 오늘 우리 학생들과 및 전 민족이 그 속에 하나의 엄숙한 계시가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의거의 전전일인 11월 1일 나주 광주간의 통학차중에서 일본인 학생이 우리 여학생을 모욕적으로 희롱하자 그의 아우 당 15세의 소년 광주고보(현 광주서중) 재학 중의 박준채(朴準埰)군이 의분의 항쟁을 감행하다가 강약의 차로 무수히 구타를 당한 것이 그 사건의 발단이었거니와 그날 오후 돌아가는 차중에서는 그것에 분개한 우리 통학생들이 합력하여 일본인 학생 장본자(張本者)에게 복수함으로써 일전(一戰)하고 다음날인 2일에는 아침 차중에서 한일 통학생 전원 사이에 집

8) 이은상,「학생의 날」의 현실적 의의 - 광주학생운동의 역사적 성격,『조선일보』1957년 11월 2일.

9) 이은상(1930.~1982.) : 호 노산(鷺山). 경상남도 마산(馬山) 출생. 언론인, 시인, 광주에서 발간된 호남신문 사장(1946. 1. ~ 1948. 10. 1952. 5. ~ 1955. 3.)을 지냈다.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고 적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전면 비문과 후면 비문을 작성하였으며, '학생의 날'노래(1953.)를 작사했다. 또 호남지방 여러 학교 교가의 가사를 지었다. 시조로는 가곡으로 작곡되어 널리 불리고 있는《가고파》《성불사의 밤》《옛동산에 올라》등이 있고, 저서로는《노산사화집》《노산시조집》《노산시문집》《이충무공 일대기》《난중일기해의(亂中日記解義)》《나의 인생관》《민족의 향기》등이 있다. [출전] 두산백과사전 및 필자의 정리.

단투쟁으로 재전(再轉)하고 다시 그 다음날인 3일에 와서는 전교 학생이 수업을 중지하고서 역전 광장에 집합하여 일본인 학생 전원과 대접전(大接戰)을 전개하자 일제경찰은 소방대 기마대 인군관헌(隣郡官憲)까지 비상소집하여 그야말로 수화(水火)를 교발(交發)하고 총검을 난사해가면 00 살상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 소식이 전국 학생들을 고무시켰고 거기따라 당시의 3대 신문이던 조선 동아 중외지 등 전 언론진이 동원되었으며 그 이듬해 3월에는 민족지도층 및 사회단체까지 합류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제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대업(大業)을 이루지 못하고 말기는 했지만은 그 운동의 성격과 및 그 운동의 항일투쟁사(抗日鬪爭史)상에 던진 효과야 말로 막대한 것이니 어찌 그것을 한낮 모욕받는 동기 누이를 위하여 의분(義憤)을 참지 못했던 박(朴)소년 1인의 미담이거나 또는 광주 일향(一鄕) 학생들의 의사(義事)로만 따질 것이랴.

그것은 실로 한국 민족의 전통적 생명력과 및 청년학생 전체의 의분이 박 소년 및 광주 학생들을 통하여 용출(湧(出) 발성(發聲)되었을 따름이다.

우리는 일두(一頭)의 사석(砂石)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립(一粒)의 금옥(金玉)을 원하는 것이다. 정열도 의기도 식어버린 만명의 노후물(老朽物)이 무슨 쓸데랴. 정의(正義)에 살아 뛰는 1명의 청년학생이 더 귀한 것이다. 과연 그날 그들은 국토를 찾기 위해서 물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민족을 찾기 위해서 총칼 앞에 달겨들어 갔으며 나아가 후래(後來)의 역사를 향해서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조일석에 돌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민족의 의기(義氣)란 실로 역사적 전통에서 오는 것이다.

고구려 동천왕을 위군(魏軍)의 포위망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신 던지던 밀우(密友)의 피가, 또 위군의 진중으로 들어가 적장을 죽이고 같이 죽던 유유(紐由)의 피가, 금창산신(金瘡散身)[10]으로 임전무퇴하던 신라청년 귀산(貴山)과 추항(箒項)의 피가, 홀로 고성(孤城)을 사수할망정 굴하지 아니하던 눌○(訥○)와 죽죽(竹竹)의 피가, 형이 아우를 따르고 아우가 형을 따라 모두가 전사(戰死)한 부과(夫果)·취도(驟徒)·핍실(逼實) 등 3형제의 피가, ○○의 아들 ○○, 심나(沈那)의 아들 소나(素那), 비령자(丕寧子)의 아들 거진(擧眞) 등 시부시자(是父是子)의 뿌린 피가, 그리고 충무공의 피, 三學士의 피가, 아니 저 3·1의 제물 유관순의 피까지 우리 학생들의 혈관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같은 의거가 감행되었던 것이요, 또 그 피가 바꾸이지 않는 한(限) 언제고 그 정기(正氣)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여기서 광주학생운동의 역사성을 밝힌 것만으로 족(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보다는 '학생의 날'의 현실적 의의를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양단된 국토를 통일시켜야 할 자로 다름이 아닌 청년학생일 것이요, 민족의 문화와 명예와 생존을 ○존해야 할 자도 또한 다름이 아닌 청년학생일 것이며 흐려진 의기(義氣), 마비된 정기(正氣)를 밝히고 일깨울 자도 오직 다름이 아닌 청년학생일 것이다.

허명(虛名)으로써 자기 노력을 부식(扶植)하고 아부로써 거기에 기식(寄食)함을 능사로 삼는 부패한 기성층에 의하여 이 민족의 역사가 바로잡히지는 못할 것이요 다만 자라나

10) 금창산신(金瘡散身) : 칼이나 창、화살 따위 쇠끝에 다친 상처에 약을 바른 몸.

는 청년학생들의 새로운 힘이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다.
모든 학문과 과학의 수련도 구경(究竟)[11]에 이르러서는 국토수호와 민족존영과 정의현양에 그 진정한 효과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11월 3일이야말로 과연 이 나라 학생들의 참된 기질이 무엇이며 바른 지향이 어디냐는 것을 일러주는 자랑스러운 ○○인 것이다. 국토를 지키라 잃어버린 국토의 북반을 찾으라 민족을 빛내라 대중전체를 끌어올리라 정의를 세우라 바른 힘으로 새 역사를 전개시키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다. (필자 시인)

## 2.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

우리나라에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문은 1883년 발행되기 시작한 한성순보이다. 이후 1896년 독립신문이 나왔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문 등이 속속 등장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형태의 신문이 등장한 것은 1920년 조선총독부가 문화정책을 펴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허가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 가. 1929년 이전 학생운동 관련 보도들

1920년대 동안 동아·조선 두 개의 국문신문은 조선총독부 정책에 비판을 가하면서 자주 정간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1920년대의 상황은 국내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노동조합, 농민조합들이 속속 설립되기 시작한 때이다. 또 토지조사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1917년) 농림지의 40%를 점하게 된 일본인 지주들과 일부 조선인 지주들까지 나서서 과도한 소작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전국 곳곳에서 소작쟁의가 수천건씩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조선인 초·중학교에서는 일본인 학생과 다른 차별 교육, 민족말살 교육 등에 항의하느라 동맹휴업이 끊이지 않았다. 동아·조선은 이같은 사회갈등문제를 보도하면서 수차례 정간도 당하였다. 이러한 갈등국면 속에서 1929년 학생독립운동을 맞이하게 되었다.
최초의 보도는 동아일보가 1920년 4월 14일자에 광주고보가 인가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광주고보는 이후 지역유지들의 지원으로 5월 1일 광주군 동헌 객사였던 광산관(전 무등극장 터)에서 사립학교로 개교식을 갖고 한 학년에 2학급 학생으로 출발하였다. 첫 해에는 8도에서 온 학생 104명을 선발했는데 이 가운데는 일본인도 8명이 있었다. 1920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는 광주 부자 최선진(崔善鎭)씨가 광주청년회관 건축비용을 부담했다는 기사를 실었고, 이어 1921년 3월 26일자에서는 최선진씨의 부친 최명구(崔命龜)씨의 회갑연을 기념하기 위해 4월 3일 호남정구대회를 거행하는 한편 광주청년들을 위한 흥학관(興學館) 낙성식을 갖는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흥학관은 오랫동안 외부인사들의 강연회, 부녀자들을 위한 야학, 시민사회단체의 사무실, 심지어는 광주고보 임시교사로 사용되

11) 구경(究竟) : 마지막에 이르름. <불교>가장 지극한 깨달음.

었을 뿐만 아니라 정구대회 야구대회까지 갖는 등 1920년대 청년들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신문에는 간혹 '육혈포(六穴砲) 강도, 광주에 출몰하야 부자의 집을 음습'(1920. 07. 06 동아일보) '4명 일단(一團)의 강도, 광주 김영섭(金永燮)의 집 등에 출몰하여'(1921. 04. 20 동아일보) '광주에도 괴이한 폭성. 별안간 쾅하는 소리가 진동'(1923. 03. 17 매일신보) 등의 기사가 실렸고, 1922년에는 '군자금모집단 신덕영(申德永) 등의 연루자, 한 집이 젼부 독립운동을 한 이윤호(李允鎬)는 령광에서 잡히어'(1922. 06. 19 동아일보) 등이 보도됨으로써 군자금을 모금하던 임시정부 관련자들을 '강도'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1921년 7월 12일자 동아일보는 '호남야구대회, 광주기독청년회(YMCA) 주최 본사 광주지국후원'으로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광주고보의 야구팀은 흥학관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923년에 결성돼 1921년 이후 광주에 야구팀이 이미 여럿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3년 1월 30일자 매일신보에는 1922년 12월 26일 광주고보 영어 담임선생으로부터 학생이 구타당하자 교사를 배척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제히 동맹휴학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2단으로 게재하였다.

1923년 3월 17일자 매일신보는 4년제인 농업학교 학생들이 광주고보와 같이 5년제로 개선해 달라는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당국이 이를 부인하자 분개하여 동맹휴교에 들어갔다. 이 맹휴는 학부형의 주선으로 5년제로 승격하기로 함으로써 학생들이 4월 5일부터 등교하게 되었다.(1923. 03. 31 매일신보)

조선인 학생들이 주로 재학하는 중등학교가 광주고보였다면 일본인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는 광주중학교로, 현재의 광주고등학교 자리에서 1923년 개교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의 신축부지가 당시에 1만 6천평이나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1923. 08. 28 매일신보) 1922년 신축한 루문리(현 광주일고 터)의 광주고보 부지가 1만3천평이었던 것에 비해 3천평이나 더 넓은 공간이어서 공간에서부터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4년 6월 15일, 광주고보 운동장에서 광주고보 야구팀과 광주에서 살고있는 일본인들의 성인 야구팀인 '스타'팀이 친선 경기를 가졌다. 성인들과 중학생의 경기였지만 광주고보가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일본팀이 9회 초 마지막 공격에 나섰다. 2사 3루. 광주고보로서는 한 타자만 잡으면 경기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때 투수 윤처현이 3루에 견제구를 던졌는데 공이 빠져버렸다. 순간 3루 주자(일본인)가 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재빨리 공을 잡아 홈으로 던져 주자는 런다운에 걸렸고, 급기야 터치아웃으로 광주고보팀이 승리하였다. 이 순간 일본팀 응원석에 앉아있던 안도 스스무(安東 進)가 갑자기 경기장으로 뛰어들어 주심을 힐책하더니 다시 투수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키가 작은 안도가 거구인 투수에게 매달리다시피 하여 때리자 투수가 그를 내동댕이쳐 버렸다. 안도는 개업의사로 형무소 공의(公醫)도 맡고 있어 광주에서 영향력이 컸으나 반면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흥분한 고보 선수들과 4백여명의 학생,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어 안도를 발로 찼다. 일본 응원단도 운동장으로 몰려들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기하던 교사와 경찰관들이 개입하여 사태가 수습됐다. 그런데 안도의 이마 상처에 스파이크 자국

이 있다고 하여 고보 야구선수들만 가해자로 몰아 9명을 연행해 갔다. 이 일로 고보생들이 광주경찰서로 몰려가 야구선수들을 석방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학교측은 16일부터 대외적인 야구경기를 금지하였고, 학생들은 17일부터 맹휴에 들어갔다.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받지 않자 171명에 대해 무기정학을 내렸다. 이 처분은 9월 1일 해제됐다.[12)]

이와 같은 내용들이 '1924. 06. 26 매일신보. 광주고보문제 점익악화. 지금은 교장과 학부형의 싸움' '1924. 06. 28 매일신보. 연경(※강온) 양파로 분리한 광주고보 학부형. 결론 못내려' '1924. 06. 29 시대일보. 학생들, 학부형측도 불신임, 학무위원의 결의문 광고를 학생들은 찢어버리고 야단' '1924. 07. 10 매일신보. 광주고보교 정학문제 학부형회 결의로 (흥학관에서)도민대회 열기로' '1924. 08. 29 매일신보. 광주고보 정학해제. 오는 학기에는 전원 상학(※등교) 할터'라는 제목으로 속속 보도돼 야구경기 사건이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라 차별정책에  항의한 심각한 사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형무소 공의 안도에 대해서는 매일신보가 1925년 6월 1일자 신문에서 '광주형무소 의사에 대한 악평. 사오백명 죄수의 생명을 맡아가지고 불친절한 태도 날로 늘어나'라는 제하의 기사로 비판했다.

1926년 11월 3일 광주고보·농업학교·사범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비밀결사 '성진회'가 왕재일·장재성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일제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여 대외적으로는 해체하는 척하고 비밀 집회를 계속하며 후배들을 받아들였다. 나중에는 각 학교의 비밀조직인 독서회를 조직하여 단체학습을 하면서 힘을 키워나갔다. 그 결과로 1929년 11월 12일 조직적인 제 2차 시위를 벌일 수 있었다.

1928년 6월 26일 소위 '이경채 사건'이 벌어져 전교생이 맹휴에 들어갔다.(1928. 06. 28 매일신보. 광주고보 4백명 돌연히 맹휴-복교 진정에 불응한다고. 복잡한 맹휴의 내용) 이 맹휴는 농업학교로까지 번져 4개월간 계속됐다.(1928. 06. 29 광주일보. 光州高普校盟休事件  //  1928. 06. 30 매일신보  '4백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 광주고보 맹휴. 광주농교도 동요, 선생을 배척하고서)

## 나. 1929년 학생독립운동 이후 관련 보도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 앞에서 한일 학생들의 충돌사건은 다음날인 4일(월요일)자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 (1929. 11. 04 매일신보. '광주중학생도들과 고보교생 대난투  3일 광주역전에서'  //  1929. 11. 04 동아일보. '數百餘名 畢竟衝突, 雙方數十名 負傷 光高普中學生衝突事件, 交通杜絶 警鍾亂鳴')

이후 매일 충돌 과정, 검거 과정 등을 상보로 내보냈다. 5일자부터는 2면에 톱기사 크기인 3단으로 보도하기 시작함으로써 언론도 심상치 않은 독립운동임을 강조하였다. (1929. 11. 05  매일신보 2면 3단. '광주중학교 생도들과 고보교생의 대난투. 3일 광주역전의 큰 소동. 원인은 사소한 감정문제. 경찰이 출동 진무.  2단 3일간 휴교. 양교 당국에서 선후책 강구중'  //  1929. 11. 05 동아일보 2면 3단. '광주서 검거에 착수, 입원 중상생도 인

12)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회, 『광주고보·서중·일고 80년사』, p159-161

치. 일본학생 부상자는 16명, 조선인은 29명')

동아일보는 6일자에 1면 머릿기사로 '광주학생 충돌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의 의미를 다루었고, 2면에서 다시 톱기사로 광주고보-중학생 충돌사건을 상보로 보도했다. 7일자는 2면 톱기사가 삭제된 채 발간되었고, 다음날인 8일자 1면에 1단으로 '본보 압수'(7일자 기사로)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후에도 '1929. 11. 09 동아일보 2면 2단. 고보생 21명 형무소 송치, 3검사 합력조사중' '1929. 11. 10 동아일보 3단. 고보생 20명 또 송국. 농교 사범생도 검거. 고보생 검거는 일단락 된 듯' '1929. 11. 11 동아일보 2면 톱기사. 검거는 의연 계속. 18명 또 송국. 농업사범광교에 검거생 속출. 광주형무소 대번잡' '1929. 11. 12 동아일보 3단. 고보, 농교, 사범교 62명 송국생. 학교당국에서는 정학처분, 11일부터 공부시작' 등이 이어졌다.

11월 12일 4개교 학생들의 치밀한 준비 끝에 광주 장날을 이용하여 2차 시위가 벌어졌다. 3일의 우발적인 충돌과는 달리, 선도하는 학생대표가 있었고, 유인물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뿌렸다. 주의주장이 분명했고 조직적인 시위였다. 그러나 언론은 13일자부터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6일자 동아일보가 '광주학생사건 당분간 게제를 못한다. -경찰국의 경고로(1929. 11. 16 동아일보 2면 2단 박스)라고 보도하면서 알게 됐다.

조선총독부가 보도금지를 내린 것이다. 하여 19일 목포상업학교(현 목포제일고등학교)의 시위, 27일 나주보습학교와 보통학교의 시위, 전라남도 곳곳에서 일어난 시위도 알려지지 않게 됐다.

광주의 장석천 등이 서울로 올라가 청년단체와 접촉하면서 광주의 사정을 알게 된 중등학교들이 격문 살포(12월 2일)를 계기로 서울의 많은 학교들이 시위와 맹휴에 들어갔다.

조선총독부가 신문사에 대해 '광주학생사건'의 보도금지를 해제한 것은 이 해가 저물어가던 12월 28일이었다. 동아일보는 2면 전면에 걸쳐 그동안에 못 알렸던 학생독립운동 기사를 쏟아냈다. 신문 기사의 제목들을 나열해 보면 '全朝鮮學生運動眞想, 導火線은 光州高普生과 中學生 衝突, 萬歲高唱, 檄文撒布, 示威行列, 一波萬波로 沸騰한 學海' '數百餘名學生對峙, 市日에 示威長蛇陣, 朝鮮女學生은 繃帶로 高普生을 救護, 日本女高生은 礫石으로 中學生援助, 學生衝突 初日光景' '第二次 示威行列, 二百八十名 檢擧' '羅州에선 普校生까지 示威運動에 參加 마츰 장날임으로 대혼잡, 警官隊와 衝突續出' '日本人 中學生等이 朝鮮女學生戲弄 조선학생이 분개로 충돌, 事件發端의 直接原因' '木浦商業校示威, 삼십칠명을 검거하얏다, 自進하야 警察署로' '各方面 人士 網羅, 某決議文發表, 保安法違反으로 十一人送局' '坊坊曲曲에 檢擧의 旋風, 지방서는 아직도 계속 靑年團體中心' '朝劇에 突現 檄文을 撒布, 경찰이 차즈하려든 金武森 被逮' '各思想團體 百餘名檢擧 오일부터 십오일까지, 全南道警察部活動' '學生事件畵報'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는 이 지면이 나와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1930년 1월에는 15일을 전후하여 서울지역에 격렬하게 일어난 학생시위 및 맹휴사건을 집중 보도하였고('1930. 01. 16 동아일보 2면 톱기사. 再次動搖한 市內男女學校, 十四校男女學生 萬歲高唱코 一齊示威 騎馬警官隊가 各學校包圍 市內 各署總出活動. 旗빨을 先頭로 梨花女高生 示威 가두로 나오려다 경관에게 막혀 越便培材生도 呼應. 警戒線突破 培材

生 脫出. 街頭로 進出示威 문을 부수고 가두로 나와 시위'), 간간히 광주의 잔인한 경찰 탄압, 백지동맹 등도 알렸다. ('1930. 01. 13 동아일보 2면 2단. 學校에 警官駐在 先生이 學生引渡, 통지 못밧고 간 퇴학생을 인도, 光州高普에 非難聲' '1930. 01. 13 동아일보 2면 3단. 又復七名에 無期停學處分, 학생은 모종결의 중에 해산, 光州高普白紙同盟後報' '1930. 01. 15 동아일보 2단. 光州高女에 在學튼 朝鮮女學生 退學. 네사람이 동맹하고 퇴학, 理由는 '良心上苛責'')

2월부터는 전국으로 시위와 맹휴가 번지자 각 신문의 2면은 이같은 내용으로 꽉 채우게 됐고, 동아일보는 1930. 03. 21자 1면에 '獨逸人이 본 學生萬歲事件, 「풋시웨 차이퉁」紙所載' 제하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1930년 2월 20일부터 광주 시위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1930. 02. 22 동아일보 2면 톱기사. 光州學生事件求刑 最高體刑 十個月 最下 四個月役의 執行猶豫, 제이일에 삼십삼인을 심리해 버려, 一瀉千里的으로 結審. 五學年級長 盧秉柱 供述 제일 먼저 심리를 시작해, 第二日 公判經過. 審理가 問題되어 權承烈 辯護士 蹴席退場, 재판장의 자문자답으로 심리진행, 피고들의 유익한 것은 뭇지도 안해, 學生公判廷에 波瀾')

광주지방법원과 대구의 복심법원에서 독립운동 4개월 뒤부터 18개월 뒤까지 재판이 계속되었는데 광주지역 구속자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독서회와 성진회원, 소녀회원이 아닌 일반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했다. 재판 결과는 김향남·조길용 징역 8월, 김안진·이형우 금고 8월, 최상윤 외 4명 징역 6월, 노병주 외 6명 금고 6월, 황남옥 외 7명 징역 4월, 김용준 외 25명 금고 4월이었다. 이 가운데 징역 4월과 금고 4월의 피고인 34명은 5년간 집행유예조치를 내렸다. (1930. 02. 27 동아일보 2면 01 3단 기사. 執行猶豫 卅四名 最高 八個月 言渡, 독서회 관계자 외엔 출옥 光州學生事件 判決. 春雨 무릅쓰고 殺到한 傍聽客 // 1930. 02. 27 조선일보 3단 기사. 보석이 허가되어 광주 학생 15인 출옥)

▲1930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소녀회 관련자 재판에서 검사는 장매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0월 6일 공판에서는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대로 장매성만 2년 형을 받고 나머지 11명은 5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930. 09. 30 동아일보 2면 01 톱기사. 光州學生 三大秘社 其一, 少女會 今日 開廷, 光州法院 初有의 治維法公判, 법정 내외의 경계는 자못 엄중, 曉頭부터 傍聽客殺到. 公開 五分만에 傍聽을 禁止, 오전 여덜시에 공판개정, 公安妨害의 理由로. 檢事 求刑 最高 二年. 一瀉千里로 審理는 進行, 금일 안으로 결심될 듯 // 1930. 10. 01 동아일보 2면 07 憤慨한 父兄 不委任同盟, 光州少女會事件辯護에 共同辯護拒絶問題 // 1930. 10. 07 동아일보 2면 06 光州少女會 今日에 判決 열한 명은 오년 집행유예 張梅性만 懲役 二年)

▲1930년 10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70명의 독서회 관련자가 참석한 공판이 비공개로 시작됐고, 11일 김상환 최고 4년 등 구형을 하였다. 18일 판결이 내려졌는데 6명만 약간 감경되고 나머지는 검사의 구형과 같았다. (1930. 10. 12 동아일보 2면 01 톱기사(3단) 讀書會事件求刑 最高는 四年 懲役에 最下로는 禁錮刑 十六名 七十名에게 全部體刑. 十日 公判 經過 被告와 父兄 公開를 希望, 방청을 금지하고 말아, 傍

聽禁止刹那光景. 事實審理는 當日로 完了, 오후 여섯시에 페정햇다, 一瀉千里的 訊問 // 1930. 10. 19 동아일보 2면 05 讀書會事件 判決 求刑대로 重刑言渡 륙명에게만 다소 경감 最高는 懲役 四年에. 法廷은 淚海로 慈母는 放聲大哭, 판결언도 찰나의 광경 警官도 同情淚)

▲1930년 10월 20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성진회 관련자 35명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박무길은 누워서 재판을 받았다. 일본인 재판장은 개정후 비공개로 전환하여 피고인과 학부형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그리고 27일 정재성 징역 7년 등을 언도했다. (1930. 10. 21 동아일보 2면 06. 被告 卄五名 出廷 醒進會 今朝 開廷 보석된 피고까지 출정해 秋雨中에도 傍聽殺到. 住所氏名 뭇고 傍聽을 禁止 리유는 공안 방해의 념려 張錫天은 公開要求. 親知와 目禮交換 법정에 눈물겨운 정경 朴武吉은 누어 供述 // 1930. 10. 28 동아일보 2면 03 3단 기사. 醒進會事件 言渡 最高 七年 最下 一年, 최고 七년 최하 一년 징역구형, 張載性 이하가 학생만세를 불러, 言渡後 裁判長에 質問. 言渡된 被告刑期. 喧騷끄테 淚海 刹那 相逢의 人情劇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눈물)

▲1931년 4월 23일에는 대구 복심법원에서 성진회와 독서회 사건 피고인 8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이후 6번이나 속행 기일을 바꿔 5월 19일 검사는 85명에게 구형을 내렸고, 6월 13일 판결을 했다. 판결 내용은 최고 4년(장재성)에서부터 최하 1년이었다. 독서회 관련 피고인 16명은 형기가 남아 계속 복역했고 69명은 집행유예로 16일 출감하였다. (1931. 04. 24 동아일보. 2면 01 3단기사. 醒進會와 讀書會事件 公開禁止裡開廷, 今日 大邱覆審法院에서 刑務所 警察署側이 聯合해 警戒, 出廷被告 八十五名 // 1931. 06. 14 동아일보 2면 05. 3단기사. 醒進會 八十五名에 最高 四年役의 判決, 兩名 執猶外엔 全部 體刑, 大邱覆審에서 言渡 光州學生事件의 중요 인물들)

▲1931년 12월 14일 광주학생독립운동관련자인 장석천 왕재일 임종국이 광주형무소에서 만기출소를 하였다. (1931. 12. 17 동아일보 2면 06 2단 기사. 張錫天 等 三人 十四日滿期出獄 광주학생사건 중요인물)

▲1932년 1월 22일 소녀회 사건으로 2년형을 받았던 장매성이 만기출감하였다.(1932. 01. 27 동아일보 2면 09 2단 기사. 光州少女會事件 張梅性孃出獄, 二년 징역 바다 복역타가 去二十二日에 出監)

▲1932년 12월 24일 장석천이 다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형의 판결을 받았다.(1932. 12. 25 동아일보 2면 06. 2단 기사. 光州學生事件 張錫天 判決 금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體刑二個年言渡)

▲1934년 4월 11일 정재성이 광주교도소에서 만기출옥을 했다. (1934. 04. 14 동아일보 3면 09. 1단 기사. 光州學生事件 張載性氏 出獄, 被檢六年만에)

일제 식민지 하의 언론은 학생독립운동 재판보도 이후 항일운동에 대한 보도는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사라지고 오히려 태평양전쟁 참전을 독려하는 기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940년 8월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폐간되면서 1943년 일어났던 광주고보의 항일운동인 제 2학생독립운동(무등회 사건) 등은 100여명이 구

속·퇴학당하고 일제의 고문으로 4명의 사망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리고 말았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학생들의 숫자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 참여학교마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기에다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북한의 참여학교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독립운동에 궐기했던 전국의 학교 총수를 일본 경찰은 비밀문서에 194개교로 보통학교 54, 중등학교 91, 전문학교 4개교이며 참가학생은 54,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일본측의 주장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1929년 당시 보통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수가 모두 518,000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10분이 1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로 남녀 중등학교와 실업학교, 전문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중등학생이상 이라면 대부분이 참가, 혹은 동조했다고 할 수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경찰에게 검거된 사람으로부터 검사 송치, 즉결, 훈계방면 등을 받은 사람은 모두 5,571명이었다. 이 가운데 학생은 4,565명이었다. 학생들 가운데는 퇴학 533명, 유시퇴학 49명, 무기정학 2,330명으로 모두 2,912명이 학교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으며 나머지는 경찰로부터 처벌을 당했다. 퇴학생들은 전라남도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 97명 평안남도 67명 순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335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0대가 113명, 20대 214명, 30대 이상 8명으로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주도 했음을 알 수 있다.[13)]

광주에서는 학생·일반 180여명이 실형(實刑)을 받았고, 반수이상이 형사적으로나 학교규칙에 의해 처벌을 당했다. 광주고보의 경우 경찰에 검속되지 않은 학생은 몇 사람 되지 않아 거의가 희생자가 됐다. 하지만 이렇게 통계에 나타난 숫자 외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병을 얻어 두문불출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그 숭고한 독립운동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이름없는 별'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다. 1945년 해방 이후 1952년까지의 언론보도

해방이 되자 광주시민들은 처음 맞이하게 된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렀다. 또 이 달 25일에는 1943년 무등회사건때 고문으로 숨진 기환도 강한수 윤봉현 주만우 등 4명에 대해 광주시민장 및 광주서중동창회장으로 위령제를 지냈다. 그러나 이때까지 지역사회에 언론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도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방 이후 성대한 기념식이 치러질 것으로 생각했던 학생독립운동은 그러나 8·15광복절, 3·1만세운동과 비교해 유난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

13) 신주백.「광주학생운동의 주체」,『광주학생운동연구』, 2000. 아세아문화사.에서 재인용. 조선총독부 경무국 극비문서 통계.

**그러니까 해방 8년 후에야 '학생의 날' 가결(1953년) → 국가기념일 제외(1973년)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 대정부건의안' 제출(1973년)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건의안' 부결(1978년)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건의안' 제출(1982년, 나중에 자진철회) → '학생의 날'제정 의결(1984년) → '학생의 날 명칭변경 청원'(2005년) → '학생의 날 명칭변경 건의안' 의결(2006년) 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왔다.** '학생의 날'로 정해진 사이사이에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의 명칭변경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했다.

1945년 11월 언론들은 일제의 탄압 때문에 그동안 묻혀있던 '광주학생사건'의 진실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명칭도 '학생의 날'이라고 하여 학생들의 항일투쟁 의식을 강조하는 이름이 붙여졌다. (1945. 11. 03 자유신문 02 01 기억 새로운 光州사건 금일 뜻깊은 '학생의 날', 해방운동에 불멸할 역사 살리라, 記念鬪爭委員會 대강연 // 1945. 11. 04 자유신문 02 07 [운동경기] 학생일 기념 축구)

그러나 1946년에는 전남도내에서 좌우익 갈등이 심해져 계엄령까지 내려지면서 기념행사를 갖기조차 어렵게 됐다. (1946. 11. 04 자유신문 02 04 死傷 의외 다수 全南 폭동사건 속보, 경무부에 보고 도달 // 1946. 11. 05 부산신문 2면 2단 학생의 날, 서울에서 학생시위 // 1946. 11. 05 동아일보 석간 02 04 光州學生事件 雄辯大會中止 // 1946. 11. 05 동아일보 석간 02 01 騷擾 湖南에로 飛火 木浦에 戒嚴令 和順炭鑛은 閉鎖(光州에서 本社特派員 申昌浩) // 1946. 11. 09 동아일보 석간 02 06 光州騷擾의 同族殺害計劃 警官看守等의 住所까지 調査 取調 받는 學生의 陳述)

이후 기념식도 좌우갈등 등으로 성대하게 치러지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 기념사업회가 결성되고(1948. 10. 20 조선일보 02 1단 광주학생사건 기념사업회 결성 // 1949. 04. 02 자유신문 02 11 光州학생사건 기념탑을 건립(동창회가 독립운동사 발간도)), 퇴학을 당했던 학생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행사들이 계속됐다.( 1948. 10. 29 동아일보 석간 02 09 十九年 만에 卒業狀 光州學生事件記念(280명에게 통보))

학생독립운동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던 서울과 지방의 도시 곳곳에서도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서울에서의 기념식은 동대문구장에서 1950년대에도 계속됐다. (1955. 10. 30 조선일보 조간 3면 횡2단. '학생의 날' 서울운동장서 기념식)

## 라. 1953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1983년까지 기념행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국가기념일 제정은 나주출신 김종순 의원(광주고보 졸업생)의 제안으로 10월 2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1953. 10. 22 조선일보 조간 2면 횡2단 학생의날 제정. 국회서 11월 3일로. 10월 20일 만장일치로 의결) 그리하여 1953년 11월 3일 뜻깊은 제1회 기념식이 열리게 됐다.(1953. 11. 05 조선일보 조간 2면 톱. 제 1회 학생의 날. 각지에서 성대한 행사. 항일선배 류방을 추모. 서울서는 기념강연과 음악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도 이승만 대통령이 휘호를 보내고 전국민이 보내온 성금으로 학생운동 발상지인 광주서중학교 구내에서 공사가 시작되어(1953. 09. 11 사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공사진행중. 동창회가 쓰고 이은상 다듬고 김상필(영광) 그리다) 1954

년 6월 10일 성대하게 개막식이 치러졌다.(1954. 06. 12 동아일보 석간 02 04 壯嚴한 奏樂裏盛大擧行 十日 光州學生獨立運動記念塔 除幕式(光州 高在언特派員))

1959년은 광주학생독립운동 30주년으로 성대한 기념식이 열리고(1959. 11. 04 전남일보 30주년 기념식 (전면 사진 있음) // 1959. 11. 03 조선일보 석간 3면 4단. 광주학생사건기념식 성대. 민족혼을 살려 30년. 광주서중교서 전국대표 참석리), 이 학생독립운동을 다룬 최초의 영화인 '이름없는 별들'이 개봉됐다.

1964년 제 11회 학생의 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이효상 국회의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광주서중운동장에서 열렸다. 대통령은 치사에서 대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의식해서인 지 "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면학에 집중해달라"는 말을 강조했다. (1965. 11. 04 전남일보 3면 톱 학생의 날 기념식. 광주서중 운동장에 도열한 수만명의 학생.)

1967년에는 학생회관이 완공돼 기념식과 함께 개관식도 가졌다. (1967. 11. 04 전남일보 03. 01 톱기사 우리민족의 독립을 외치던 날, 숭고한 그 얼 되새겨. 광주학생회관도 정식 개관)

그러나 1970년부터 광주무등경기장에서 기념식을 가지면서부터는 학생들의 군사훈련 평가를 겸한 행사로 변질되고 말았다. (1970. 11. 04 전남일보 03. 01 톱기사 학생의 날 18돌.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기념식. 선배의 그 '얼' 새로이. 모범.선행학생 표창)

한편 1956년부터 학생의 날 전후로 열려온 전국학생연극제(1970. 11. 04 전남일보 제14회 학생연극제 개막)가 14회를 맞았는데 1973년 4월 국가기념일에서 학생의 날이 제외되면서 끝을 맺고 기념식만 근근히 명맥을 이어나갔다. ( 1974. 11. 04 [전남일보] 18회 연극제 시상 학생독립운동 45돌 동창생끼리 모여 기념식)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되자 당장 부활을 청원하면서(1973. 05. 19 조선일보 조간 1면 횡3단. '학생의 날' 부활 청원, 국회 접수, 상위에.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다른 한편으로는 명맥만 겨우 유지해갔다.(1979. 11. 12 [全南日報] 07. 10 02 [사진] 학생독립운동 50돌 기념탑 헌화 참배(11월 3일 박정희 대통령 國葬으로 12일로 연기)

## 마. 1984년 다시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념행사

1980년 제 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광복회 등 각계 시민단체와 야당인 민한당은 끊임없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에 관한 건의문'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하여 1984년 7월 9일 여야가 공동으로 '학생의 날 제정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정부는 9월 1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11년만에 국가기념일로 부활했다. (1984. 09. 20 전남일보 11면 03 5단 11월 3일 '학생의 날'로. 권농일은 5월 네째 화요일로 변경. (19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개정안 의결) // 1984. 11. 04 광주일보 11면 01. 사이드톱기사. 11년만에 부활된 제1회 학생의 날. [3단] 가치관 확립 호국정신 계승을. 권문교 담화)

각계에서는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명칭을 희

망했으나 다시 '학생의 날'이 되어 면학 의지를 가다듬은 어정쩡한 날이 되고 말았다. 또 국가기념일인데 반해 그 기념식이 광주에서만 갖게돼 '지역화' '박제화'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대학생들의 시국시위도 학생의 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1989. 11. 04 조선일보 조간 19면 1단. 학생의날 60돌 88개대생 집회)

2006년 2월 그 명칭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하자는 대정부 결의안이 의결돼 이 해부터 광주'도 빠진 전국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2006. 10. 28 조선일보 A18면 톱박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승격. 광복이후 폐지, 축소 둥 우여곡절 끝. '학생의 날'서 명칭 변경 전국행사로 // 2006. 11. 01 중앙일보 [전국프리즘] '11.3 학생독립운동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다' 김성(지역활성화연구소장)

2016년에는 북한 대표단이 광주에 와 학생탑에 참배하기도 했다. (2016. 06. 17 [사진] 북한 대표단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참배)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기념일이므로 교육부가 주관해서 기념식을 치르되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행사를 갖도록 함으로써 17년만에 되돌아오게 돼 망각을 재촉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2016년 11월 3일 광주에서 교육청 주최로 열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초라한 기념식에 크게 실망했었다.(2016. 11. 00 [사진] 문재인 후보 광주일고 총동창회 방문)

하여 2018년 대구의 2·28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보훈처와 교육부가 주관하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기념식을 갖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후 광주에서 이낙연·정세균 국무총리가 연달아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2019. 11. 03 [사진] 2019년 11월 3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 9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 2020. 11. 04 무등일보 1929, 그날의 함성을 되새긴다. 학생독립운동 91주기 기념식. 정세균 총리 김종인 위원장 등 참석)

최근에는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가운데 많은 숫자가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유공자가 되지 못하자 광주학생독립운동 주역 장재성의 기념행사(2021. 03. 09 뉴스1 박용진 의원, 장재성 선생 흉상 앞에서 묵념 // 2021. 07. 05 무등일보 광주일고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장재성 선생 추모제)를 갖는가 하면 300여명에 대한 유공자 신청을 보훈처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9. 08. 12 [사진] 일본의 경제봉쇄조치를 규탄하는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원들)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도 해마다 세미나를 갖는 한편(2018. 10. 24 광주일보 "광주학생독립운동 공훈자 발굴 나서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 // 2019. 10. 19 [사진] 학술세미나 전남여고 역사관 2층에서. 주제-학생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 100주년 준비방향), 2018년부터 해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설사 과정'을 개설해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심화학습을 펴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2019년 90주년을 맞았으며(2019. 11. 01 무등일보 2면 전면 "한국 최초의 학생 주도 전국적 민족·사회운동이었다"), 앞으로 8년 뒷면 100주년이 된다. 이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제5강

# 선교사의 눈에 비친 남도, 남도인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 선교사의 눈에 비친 남도, 남도인

**노 성 태**(남도역사연구원장)

광주 양림동은 '서양촌' 혹은 '근대 건축의 보고(寶庫)' 등으로 불린다. 이는 배유지(유진벨)로부터 시작된 광주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포로 들어온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는 광주에 선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904년 12월 25일 양림동 배유지 선교사 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 배유지 선교사 사택에서의 예배는 광주 기독교의 출발이 된다.

이후 이들 선교사들에 의해 1905년 기독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이 설립되고, 1908년에는 '숭일', '수피아'여학교가 건립된다. 그리고 광주를 비롯한 전남 일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

배유지 등 선교사들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의 전파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전파에만 머물지 않았다. 당시 모든 면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광주·전남인들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을 주었고, 거지와 한센병 환자 등을 포함한 광주·전남인들의 아픔을 보듬었다.

남도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쏟았던 선교사로는 배유지(Eugene Bell)를 비롯하여 변요한(John Fairman Preston), 오기원(ClementCarringtonOwen), 우월슨(Robert Manton Wilson), 보위렴(William Hamilton Forsythe), 타마자(John Van Neste Talmage), 서로득(Martin Luther Swinehart), 서서평(Elizabeth Johanna Shepping), 엄언라(Ellen Ibernia Graham), 도마리아(Mary Lucy Dodson), 유화례(Florence E. Root), 노라복(Robert Knox), 어고돈(Gordon W. Avison), 부란도(Louis Christian Brand), 고허번(Herbert Augusta Codington), 이철원(Ronald Butler Dietrick), 유수만(Dick H. Nieusma), 부명광(George Thompson Brown), 허철선(Charles Betts Huntley) 등 많다.

이들은 광주를 사랑하였고 죽어 양림산에 묻혔다. 이들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 연례보고를 올렸고, 편지나 회고담 등을 통해 광주·전남의 모습과 풍습, 남도인에 대한 견해를 남긴다. 연례보고서나 회고담, 편지 글 속에 보이는 남도와 남도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게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선교사의 눈에 비친 남도, 남도인'을 선교사가 남긴 보고나 및 편지, 회고담 등의 흔적을 통해 개략적이나마 정리해 보는 이유다.

## 배유지 선교사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95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이곳 관리들은 매우 배타적이어서 자기 아닌 다른 관리가 출세하는 것을 못견뎌 한다네. (1896년 3월 유진벨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이 백성에게는 복음 이외에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적인 독립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리계층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으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1898년 1월 유진벨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이곳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와 같이 총을 쏘거나 서로를 죽이는 등의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성이 착하기 때문이지요.(1898년 7월 3일 목포에 파견된 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문에 들어서면 거울이 거의 틀림없이 방문객(구경꾼)의 눈길을 끈다. 이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예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터이므로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당황스러워하며 턱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입을 다물 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침대를 처음 본 사람은 바닥에서 이렇게 높이 떨어져 춥지 않느냐고 묻는다.

우리가 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매우 걱정이라는 표정이다. 우리에 대한 과장된 소문이 난무하여 나에게 비와 눈을 만드는 기계를 보여달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1906년 기록)

## 서서평 선교사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서 여인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열 명도 안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으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1921년 내쉬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

어느 추운 겨울날, 잠자고 있는 자기를 누군가 발로 툭툭 치길래 깨어보니 서서평이었다. 서서평은 이복님 선생에게 "이 저녁에 누가 가장 추울까요?"라고 질문하였고, 이 선생은 "그야 부동교 다리 밑의 거지들이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 서서평과 이 선생은 자신들의 요와 이불을 싸고, 이 선생이 머리에 이고, 양림동에서 부동교 다리 밑 걸인들이 사는 움막으로 갔다. 가마니로 만든 움막에서 잠자고 있는 걸인 대장을 서서평이 발로 차서 깨웠다. "참 춥지요, 여기 이불하고 요가 있소"라고 하면서 놓고 왔다.(수피아 여학교 고등과 11회 졸업생 이복님의 서서평에 대한 회고)

## 노라노 선교사

환자: 기체후일향만강(氣體候一向萬康)하신지요?

의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 타러 오셨나요?

환자: 예 그렇습니다. 병을 잘 고친다는 명성이 사방에 소문이 나서 의사 선생님을 뵙기 위해 200리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의사: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환자: 오! 저는 현재 임금(고종 즉위년은 1863년)의 즉위 2년 넉달, 열흘에 태어났습니다.

의사: 대충 알아들었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말입니다. 우리 둘 뿐인데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세 좀 말씀해 주시죠

환자: 거시기, 생일 떡을 30번이나 먹었습니다.

의사: 어디에 사십니까?

환자: 제가 사는 곳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큰길을 따라가다가 큰절이 보이는데까지

가서 왼쪽으로 돌아서면 거기에 제 집이 있습니다.
의사: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기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자: 제 이웃에 사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의사: 그분의 아들이 수천 명인들 무슨 상관입니까?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세요.
환자: 그 김아무개란 녀석이 내 남편의 삼촌의 아들(조카)과 결혼을 했는데 말입니다....
의사: 당신의 족보를 읽어보아야 할 것 같군요. 족보가 적혀 있는 책이나 문헌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본 후에 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아닙니다. 지금 약을 꼭 받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을 끄집어내자마자 그 녀석이 제 조카인 자기 처를 마구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더니, 그 녀석이 곰방대로 나 를 때려서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1906년, 진료실의 어느날 오후)

## 우월순 선교사

1912년 11월 15일 나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집을 헌당하였다. 별과 구름을 이불삼았던 사람들 15명이 찾아와 따뜻한 집으로 들여보냈으며,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인 후, 커다란 온수 병, 풍성한 담요와 여타의 필수품을 제공받았다. 오후 3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건물은 E자 형이며, 한쪽은 남자반 다른 한쪽은 여자반, 그리고 중앙에는 진료실과 교회가 있다. 마을로부터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1913년 나병진료소 건립에 관한 보고서(Dr. R. M. Wilson, "Dedication of the Kwangju Leper Home" The Missionary Survey, March, 1913)

많은 선교지부에서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일은 지부 성경교실에서 공주위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설사, 말라리아, 나병, 불임, 해충, 결핵 및 다양한 장내 기생충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 강의합니다. 또한 선교부의 의사로서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욕실(저는 결코 욕실이 있는 조선집을 보지 못했습니다)을 개선하는 방법과, 사람들에게 목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에는 선교사들이 관리하는 나환자 요양소가 3곳 있고, 정부 시설로 된 나환자 요양소가 1곳 있습니다. 부산에 153명, 광주에 237명, 대구에 100명의 나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남해의 작은 섬 소록도에 있는 정부 시설에 약 100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모든 조선인들의 95%가 어떤 형태든 기생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한 교육이 그들에게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의 공중위생과 위생설비(The Korea Mission Field, April 1918)

조선인이 집에나 또는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모자를 쓰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관습과는 아주 반대입니다. 그들은 바닥에 앉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집 안에는 의자도 없고 침대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조선인의 방은 9평방피트이며 종종 5~6명의 사람들이 한방에서 보통 덮는 것 없이 하루종일 입고 다니던 옷을 입은 그대로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사용되는 유일한 침구는 베개로 사용되는 작은 나무토막입니다. 조선인의 문물(The Korea Mission Field, July 1920)

우리는 조선식 온돌바닥이 병원의 시설로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종류의 관절염이나 통증이 있다면 바로 이 뜨거운 바닥에 눕히는 것이 커다란 뜨거운 벽돌이나 물병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많은 큰 수술을 했음에도 이

제까지 쇼크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이것은 뜨거운 바닥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자를 수술하자마자 그 환자를 이러한 뜨거운 곳 중 한곳에 두면 머지 않아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이 같은 형태의 난방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다 내던져 버리는 소나무 덤불로 점삼밥이 지어질 때 연기와 열기가 방 아래로 지나가면서 모든 돌과 흙덩어리들을 가열시켜서 저녁 내내 따뜻하게 합니다. 낙엽, 덤불 또는 솔방울들을 약 15분 태우면 방바닥이 뜨거워져서 다음날까지 더 이상의 열기가 필요없게 됩니다. 조선인의 문물(The Korea Mission Field, July 1920)

1909년 폐렴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오웬 의사가 70마일 길을 조선인 기독교인 등에 업혀왔을 때 저는 목포에 있는 포사이트 의사에게 협진을 위해 광주로 와 달라는 전보를 쳤습니다. 그는 검은색의 작은 조랑말을 타고 60마일의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길가에서 병들어 거의 죽어가는 비참한 나환자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병이 난 선교사의 병상 곁에 도착하기 위해 무척 서둘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가난한 나환자를 돌보기 위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오래살 수 없고, 사람들의 관심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에게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없이 그는 말에서 내려 그녀를 말 안장에 태우고 본인은 광주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 여자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길 요청했지만, 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녀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기를 애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빈 벽돌가마터를 알맞게 꾸몄습니다. 오웬의사의 간이침대를 그녀에게 주었고, 날마다 우리는 그녀를 돌보았으며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깨끗했고 몇 달후 그녀는 죽었을 지라도 우리 모두 그녀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맨 첫 번째 나환자였고 조선에서 나환자역의 시작이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큰 나환자 요양소가 되었습니다. 포사이트 의사는 나환자 사역의 진전에 더 이상의 관심을 둘 수 없었지만 이 가난한 여자에 대한 그의 친절은 조선 전역의 나환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나환자들은 그에게 아주 감탄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인에게 "예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4년 전 광주에 있는 나환자촌의 나환자들이 선교부에 와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달라고 하여 그들의 요구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저축과 구걸로 포사이드 의사오 윌슨 의사를 기념하여 광주에 있는 오웬기념각 바로 앞에 약 9피트 높이인 구대의 아름다운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의 비문은 한문, 영어, 한글로 쓰였습니다. 제가 이 기념비를 지나칠때면 제 묘비 앞을 지나갈 때 제가 정말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 맥박을 짚어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사람이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든지간에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기념비를 세우는 조선적인 방법입니다. 영웅적인 땅에서(The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30)

## 엄언라 선교사

시작은 매우 미약했다. 건물은 오두막집 한 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정규교사도 없다.
1908년에는 5명의 기숙사생과 9명의 통학생이 등록했다. 첫 학기에는 거의 내 어학선생이 가르쳤다. 가을에는 정규교사 한사람으로 개학했다. 나는 이때 여학교 뿐만 아니라 남학교(숭일)에서도 산수를 가르쳐야 했다. 6년 후인 1914년 3월 25일, 처음 14명의 학생 중 8명은 고등과로 진학했고, 6명은 보통과를 졸업했다. 3천년의 역사와 백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이 지역에서 여학교가 처음 설립된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학업의 진전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1908년 4월 수피아를 개

교하면서 친구 엘리스에게 보낸 편지)

Dear Fannie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쥔 일본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제반 업무에 대한 이들의 통제는 완전히 끝났다. 우체국, 값 나가는 모든 공공장소들은 일본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일본인들은 소요를 두려워한 나머지 한국인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 광주에도 많은 일본인 군인들이 보인다. 나는 거리에 나갈 때마다 군도를 옆으로 달아 내린 정복을 착용한 일본 군인들을 틀림없이 보게 된다. 물론, 한국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나의 하인들은 그제 밤에 "**한국인 반도**들이 일본인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광주 시내로 들어왔다는 소문으로 발칵 뒤집혔었다"라고 한다. 배유지 목사 부인은 선교부 내에 남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몹시 불안했었다라고 한다. 물론 반도들일지라도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였겠지만. your loving sister Ella Graham(1908년 1월 8일자)

토요일 오후 녹스(Knox) 목사 내외와 시골(능주)에 합류하려 왔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어떤 마을, 아주 작은 진흙 오두막집의 가로 세로 2.4미터 정도 되는 방에 있네요. 시골에 갈 때면 언제나 수피아 학교 여학생들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이 마을에는 현재 수피아 여학생이 단 한 명 있군요. 학생 이름은 칠순이이에요. 딸이 여덟, 아들이 둘인 가정의 일곱 번째 딸이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크리스천이지만 부모님은 두 분 다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일요일 오후 칠순이를 보러 들렀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작고 휑한 앞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교회에 오실 것을 초대했지만,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갈 수 없노라고 대답했어요. 칠순이 어머니는 저에게 아랫목을 내어 주었어요.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은 존경을 나타내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어머니는 저에게 은행나무로 만든 8각형 모양의 쟁반을 내왔어요. 그 위에는 껍질만 벗겨 길게 채 쓴 크고 하얀 생(生) 무가 쟁반에 놓여 있었답니다. 칠순이는 배움에 있어 매우 의욕적이랍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6시 50분 기차를 타고 17마일(약 27킬로미터) 떨어진 광주로 와서 수피아여학교까지 1마일(1.6킬로미터)을 걸어옵니다. 오후에는 또 다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요. (1933년 11월 능주에서)

5,000명 정도의 전쟁포로들이 수감된 포로수용소가 이곳 광주에 세워졌어요. 저는 언제든지 그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지요. 전쟁포로들 가운데는 공산군에 붙잡혀 병들고 부상당한 북한 군인들을 돌보기 위해 끌려간 젊은 의대생도 있었어요. 그는 제가 여러 번 방문한 교회들 가운데 한 곳의 훌륭한 크리스천 여인의 아들이었죠. (1952년 4월)

## 변요한 선교사

(여학교) 학생의 절반은 시골지역에서 온 기독교인 소녀들이며 학교에 기숙한다. 광주 남학교와 여학교의 학생들은 각 시골 지역의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공급받는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리한 2에이커(약 2,5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장소는 여러모로 보아 우리의 필요에 적합하지만, 현재적으로는 콩이 심어져 있다. 우리는 내년에는 이 콩밭이 $2,000에서 $5,000달러를 넘지 않는 아름다운 건물로 대체될 것으로 믿고 기도한다. (1909년 선교사 연례대회 보고, 남학교 건립에 투자해 주시길)

## 노라복 선교사

1937년 9월 6일 수피아 학생들을 광주 신사에 참배시키라는 명령을 전달받았으며, 일부 선생들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마치고 돌아오자 노라복 목사는 학교의 정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학교는 폐쇄되었다라고 선포하였다. 더욱 자세하게 상황을 알려 주었다.

폐교를 반대하는 3명의 남자 선생들과 이들과 선이 닿아 있는 시내의 조직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정선생(정희섭)이며 학생들을 조절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 때에 시내의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개입하여 정 선생을 '면려회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한 사람으로서 나이 든 여학생들과의 부적절한 관계(married man improper relations with some of the older girls)를 거론하겠노라고 말하자, 정 선생은 사표를 제출하였다. (Mrs. Knox, 1937. 9. 26, 노라복 목사의 부인 노몌의의 증언)

## 부란도 선교사

최영욱은 광주기독병원 원장직을 2년간 수행하였다. 최영욱의 후임자는 군산 선교병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부란도(Louis C. Brand) 의료 선교사였다. 부란도는 미국 켄터키주 주립대학교 의과대학과 조지아주 에모리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였다. 그는 1930년 9월부터 광주 제중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부란도 의사는 1930년 8월 30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전임 원장이 최영욱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Miss Prichard(광주 기독병원 간호과장), Mrs. Brand 그리고 나는 광주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나의 전임자 최영욱 의사(Dr. Y. O. Choi)는 이 병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감사의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헌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 (1930년 8월 30일자 편지)

삶의 활동 영역이 매우 제한된 이 시골 형제들은 우리의 3층 병원 건물과 환자침대를 보고 아주 흥미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기구, 멸균소독기, 열치료기, 그리고 결핵 치료를 위한 인공 기흉 장비를 갖춘 우리 수술실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거리였습니다. 우리들은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머리, 폐, 심장, 뼈 등의 정상적인 상태와 병든 상태의 차이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오래된 한국 시술에 의하면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는 작은 구리 조각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골절 부위로 들어가서 하나의 금속 띠가 되어 부러진 뼈를 묶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931년 3월 2일자 편지)

오늘 저녁에 회진할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수술한 환자 2명의 사려깊은 이타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오한으로 떨고 있는 다른 환자에게 자발적으로 그들의 뜨거운 물병들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광주인들은) 확실히 사랑스러운 민족이며,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많은 동정을 베풉니다.

수피아여학교 교사 한분은 우리 병원에 있는 한 어린 고아 소녀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며칠 전에는 한 공무원 부인이 와서 2년 전 우리 병원에서 받은 빚진 치료비를 50달러 지불했습니다. (1935년 1월 16일 편지, 광주에서)

## 리비아 선교사 편지

10월이 찾아옴과 동시에 경찰 검열관이 우리 집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를 우리 현관문

에 붙여놓았습니다.

상해와 남경 그리고 마닐라에서 오는 라디오 뉴스는 매일 우리에게 중국 전선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자비한 만행에 대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단파는 사용할 수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전해지는 모든 뉴스는 검열되고 있으며, 온통 현 전투에서 승리하는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경찰력이 더 커져서, 만약 한국인이 '전쟁'이란 단어를 속삭인 것을 들키기만 해도 그는 경찰서 가까이에 있는 이미 만원이 된 감방으로 끌려 들어갑니다....(1937년 10월 15일,광주에서)

## 프리차드 선교사 편지

많은 환자들이 질병의 너무 늦은 마지막 단계에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가난과 무지와 미신과 모든 종류의 한약을 사용해 본 후, 마지막 수단으로 양약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해야 할 많은 이이 있습니다. (1931년 11월 17일, 광주 제중원에서)

저는 올 겨울에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한국 '침'의 끔찍한 결과에 아주 나쁜 인상을 받았습니다. 침은 나쁜 공기와 악령을 쫓아내는 안에 구멍이 없는 커다란 둥근 주사 바늘입니다. 침을 놓을 때 약은 주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약간의 나쁜 세균들이 더러운 침에 묻어 주사되어집니다. 올 겨울에 우리 환자들 1/3이 침으로 감염되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의 다리 하나는, 확실하건데 본국에서 그것을 의사가 보았다면 단번에 절단했을 상태였으나, 우리는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느 모양으로든 자신의 신체가 훼손되거나 또는 절름발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으려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섯 번의 절개 시술 후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그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1932년 2월 29일, 광주 제중원에서)

## 부명광 선교사의 딸, 메리

길거리에는 온통 거지들로 가득했고 광주천 양옆의 집들은 판자나 미군의 C-Ration 상자로 얼기설기 지어져 있었고, 지저분하고 더러웠다. (1954년, 부명광 목사의 큰딸 메리의 회고 )

## 허철선 선교사

...(대전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광주의) 정황을 묻는 친구들 전화를 쉴 새 없이 받았다. 주일 내내 거리의 시민들은 계엄군 공격을 받았다. 구타가 행해졌고 교도소로 압송됐다. 그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기독교인 상당수가 사전경고 없이 계엄군의 공격을 받았다. 그날은 한국역사에 있어 매우 슬픈 날이었다....(허 목사의 5·18 회고중에서)

제6강

# 야나기 무네요시의 ‘전라기행’ 속 전라도의 멋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전라기행' 속 전라도의 멋

조인호(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살다보면 무시로 자신의 성향이나 모습을 제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다른 이를 통해 새삼 깨닫기도 한다. 타인의 눈은 나의 실체와 정체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반추이면서도 그의 개인적인 정서나 의식에 비춰진 주관화된 관점이고 일부만을 본 것일 터이어서 자칫 곡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왔었다면 그의 반응이나 표현은 가벼이 넘기지 못하고 곱씹으며 나의 주체적 성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의 [전라기행]은 수십 년 전 근대로 전환되어 가는 시기의 전라도 생활상과 풍물, 사람들에 대한 이방인의 눈에 비쳐진 짧은 기행록이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5월에 너댓 일행들과 함께 전라도 고을들을 돌면서 만나고 접촉한 것들을 간략한 인상기로 남긴 것이다. 그 전라도에서도 전북과는 다소 다른 결을 지닌 전남지역을 방문했던 5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간의 여정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며 남도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보려 한다.

## 조선을 사랑한 민예학자 야나기 무네요시

[전라기행(全羅紀行)](1922년 초판된 『朝鮮と 藝術』의 1954년 신판에 포함)의 저자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미학과 관련해 반드시 언급되는 학자이자 문화운동가이다. 왕공귀족사회의 고급 공예품들과 대비되는 서민들의 공예를 '민예(民藝)'라 일컬으며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조선시대 민속그림들을 '민화'(民畵)라 이름하였는가 하면, 1920년 조선총독부 정문을 짓기 위해 경복궁 광화문을 철거하려 할 때 신문기고와 여론조성을 통해 이를 중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의 옛 문화재나 전통문화, 민속공예에서 배어나는 조선

고유의 미를 예찬하고 그 보전 필요성을 역설했던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과 미의식에 대해 감사와 공감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가진 환경이나 입장에 비추어 경계심과 비판적인 견해들 또한 적지 않다.

1889년 생으로 동경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그는 부친이 해군소장이었고, 외조부가 해군대장과 해군장관을 역임한 명문가인데다, 매형들도 총독부 관리로 근무하는 등 상류사회 환경을 배경에 두고 있었다. 명문가 자제들의 교육기관인 학습원(學習院) 중·고등 과정을 거쳤는데, 재학 중에 영국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와 사상가 존 러스킨 등을 연구하며 문예지《白樺》를 창간하기도 하였다.

1912년 동경에서 열린 척식박람회장에서 조선 도자기를 처음 보았고, 이후 경성에서 자신을 찾아온 총독부 직원 아사카와 다쿠미로부터 조선백자를 선물 받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 관련 자료조사와 연구를 하게 되었다. 1916년 처음으로 조선 땅을 직접 여행하면서 다쿠미의 도움으로 수많은 도자기·소반·목기 등을 접하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호국정신과 석굴암 석가여래불상의 자애로운 얼굴에 한없는 감동을 느끼며 조선의 미에 깊이 매료되었다.

3.1독립만세운동 직후 <조선을 생각한다>(요미우리, 1919.5.20~24 5회 연재, 동아일보 1920.412~16 연재), <조선친구에게 보내는 편지>(1920) 등을 신문에 기고하며 조선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기도 하였다. 성악가인 아내 야나기 가네코가 조선 첫 서양식 음악회를 열었는데 순회공연까지 더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도자기와 목공예·금속공예·자수·민화 등 수천 점을 모아 1926년 경복궁 집경당에 '조선민족박물관'을 개관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1931년 일본에서 잡지《工芸》를 창간하여 일본 전통공예와 조선 도자기 등에 관한 글을 싣기도 했고, 1936년에는 동경에 '일본민예관'을 설립하는 등 주로 '민예품'에 관한 조사 연구와 보전운동, 집필활동에 힘썼다. 그 시기인 1937년 조선 민예품의 원형을 찾아 '전라기행'을 다녀갔던 것이며, 이후로도 1961년 타계할 때까지 일본과 한국의 민예미에 관한 집필과 강연활동을 계속하였다.

## 야나기의 남도여행 행적

야나기의 집필원고 저술들을 모은 전집 22권 중『朝鮮と 藝術』의 1부에 수록된 <전라기행>은 1937년 5월의 남도풍물과 민예품들에 관한 일기 같은 기행문이다. 서문에서 그는 "과거의 조선을 보려면 현재의 조선을 보는 것이 낫다... 어떤 환경과 마음가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근원을 알아내고 싶었다. 붐비지 않은 한국을 보려면 시골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택한 전라남북도는 기후 덕분에 재료들이 풍부하고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공예품들이 발달한 곳이다... 우리는 이 전라도 여행에 대해 아주 오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부산을 거쳐 들어와 전남지역을 돌고 남원 전주로 떠나기까지 6일간의 답사일정과 주로 접촉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날짜 | 방문지 | 주요행적 | 접촉, 구입물품 | 비고 |
|---|---|---|---|---|
| 5.3 (월) | 여수 | 여수도착 | 진남관 | 군수 안내 |
| | 순천 | 순천 서병규가옥 | 가죽신, 칠보반지, 자수류 | |
| | 곡성 | 죽곡면 하한리 가마터, 가마마을, 곡성 오일장 | 덕석, 黃麻布, 마스노미 다완, 고리버들, 도시락통, 쇠경첩, 흰사발 등 | 군청간부 영접 |
| | 광주 | 천옥여관(泉屋旅館) | 조선요리 진미, 젓갈류 | 지사 환영만찬, 현준호 동석 |
| 5.4 (화) | 담양 | 향교리 서당, 참빗집, 낙죽집, 담양산업조합 | 대나무발, 대나무가죽공예품, 색염죽문고(色染竹文庫), 빗, 부채, 대바구니, 부엌 빗자루, 낙죽(낙화) 등 | |
| | 구례 | 화엄사 | 화엄사 법당, 석탑, 망태기 | |
| 5.5 (수) | 곡성 | 곡성읍 오지리, 안규선 면장댁, 하한리 가마터 | 조선식 사당, 멍석, 키, 고배, 다완, 접시, 술병, 사발, 천목, 백자 등 | 면장집 영접 |
| | 창평 | 창평 오일장 | 홍어, 장터비빔밥, 청주 | |
| | 장성 | 지업조합, 이치봉 가옥 | 한지, 장판지, 태지 등<br>장독, 외양간 구유, 막걸리사발 등 | 조합장 안내, 민가 만찬 |
| 5.6 (목) | 나주 | 이석규 나주반 명장 | 나주반, 경첩장롱, 마루, | |
| | 남평 | 남평 큰장, 남평관아 | 항아리독, 금속부속품, 환조, 조롱박 조롱박, 선정비 등 | 면장 환대 |
| | 광주 | 내선인 좌담회 | 조선의 생활과 작물 주제 토론 | 지사 주최 |
| 5.7 (금) | 광주 | 광주 큰장, 상공장려관 | 베개자수, 가마솥, 빗, 도자기, 화채, 문어요리, | 현준호댁 오찬 |
| | 나주 | 정수루, 나주 오일장 | 도자기, 시장물건들, 목사송덕비 | |
| | 목포 | 목포 나들목 고개 | 유달산 석양, 목포항, 산동네 풍경 | |
| 5.8 (토) | 목포 | 공설시장 | 목공품, 죽공, 도기류, 물항아리, 장독, 사발 등 | 부윤 환대 |
| | 나주 | 다시면 오일장 | 장터풍경, 목면 | |

※ 이후 야나기 일행의 여정은 남원, 전주를 거쳐 경성으로 이어진다.

# 야나기가 본 남도의 민속풍물

6일간의 전남지역 탐방에서 주요 행적을 눈여겨보면 야나기의 우리 민예품이나 생활풍습에 관한 시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그의 명문가 배경만큼이나 제도권과 고위 공직자들, 상류층 인사들의 환대와 안내가 이어지는 고급진 여행이었다. 향촌 서민들이나 장인들과의 마음 깊은 이해와 공감이 가능했겠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둘째는, 그렇게 유한계급처럼 여유를 부릴만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시간을 쪼개가며 여러 고을을 찾아다녔다. 마음 끌리는 이국의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든 감성적 매혹이든 작심하고 최대한 조선의 민예품들을 직접 느끼고 모으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셋째는, 관에서 운영하는 공인된 상공장려관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각 지역의 오일장이나 수공예 마을, 가마터 등 민예품의 집산지와 다양한 품목의 제작자들을 현장에서 접하며 조선문화의 원형질과 바탕을 확인하는데 우선하였다.

넷째는, 주된 관심사나 구입품목은 도기류, 목기 등이지만 수집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활과 밀착된 토속적 민예품들이라면 무엇이든 폭넓게 접하면서, 눈에 드는 것은 바로바로 구입하거나 주문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모으고 다녔다.

다섯째, 조선의 풍토적 색채가 담긴 기물이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장인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비위생적이어서 개화되어야 한다는 생활상이나 제작방식도 오히려 보전되어야 할 고유한 가치로 보았다.

여섯째, 주된 답사 수집대상인 조선의 민예품이나 방문지, 접촉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아닌 간략한 일정기록이나 인상기 정도의 피상적 접근이면서 이방인의 이국취미나 감상적 연민의 시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몇 가지의 특징들과 더불어 그의 기행록에 묘사된 표현들을 보면 야나기의 조선 문화나 민예에 대한 시선을 읽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순천에서 조선의 가죽신을 보고 "신발은 모양도 좋고 손질도 아주 예쁘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쓸모없게 되어 모두 없어지고 고무신으로 대체되고 있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신발을 진열해 놓은 가게가 조선에서는 거의 사라졌으니 얼마나 도시의 색채를 빼앗았는가."(5.3)라고 쓰고 있다.

광주 상공장려관에서 "양쪽에 꽃과 새, 나비 등 색실로 자수 놓인 베개... 색깔은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분포되어 있다. 모양은 촌스럽고 순수하며 서유럽 농민예술과 통하는 점이 있다. 기교가 미숙할 뿐 오히려 순수하다."고 평하였다. 전남 지사가 주재한 광주의 내선인좌담회에서는 조선의 생활과 작물에 관한 주제로 얘기들을 나눈 뒤 "조선 고유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조선인 스스로의 소질을 먼저 알아야 하고, 위정자가 이를 존중하고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5.6)고도 하였다. 목포 공설시장에서 많은 물품들을 구입하면서 "무엇이든 조선 고유의 물건에 보기

흉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조잡하게 만들어도 건강하다. 형태는 틀림이 없다."(5.8)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곡성에서는 "고개 옆 마을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가마를 발견하였다. 마을도 일터도 자연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배치되어 있다. 물건들이 이런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자연은 여기서 하나이다."라거나 "판매자가 없거나 모아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조선적인 장날의 풍물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씨앗이 숨어 있을 것이다."(5.3)고 하였다.

곡성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하한리 가마에서 "천목(天目)과 백자들로 실물과 일일이 대조하여 그림을 그리고 치수를 정하여 주문했다. 몇 백 개나 되어 '이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온 적이 없어 계산할 수가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을 다룰 필요가 없는 생활, 셈법이 엄격하지 않은 삶, 이런 경지가 어떠한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5.5)라고 기록하였다.

장성 상오리 한지 제작지를 갔을 때 "펄프가 아닌 각종 순수 닥종이를 대량으로 주문했다. 고대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조선의 지업에 명예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5.5)거나, 나주에서 소반장을 만났을 때 "당분간 이 늙은 노인을 다시 찾을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나주반을 많이 주문했다. 아름다운 쇠장식이 달린 장롱에 마음이 끌려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 부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음에 든 재료를 지금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넉넉지 못한 그가 값비싼 물건을 단호히 거절한 심정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5.6)고 하였다.

담양 향교리를 방문했을 때는 "이 마을 서당풍경을 잊을 수가 없다. 꼬마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몸을 흔들며 큰소리로 읽는다. 훈장님 담뱃대가 머리를 탁 친다. 이런 관행은 한마디로 후진적인 처사다.", "이 부락에서는 참빗 색깔을 내는데 옛날부터 소변을 사용한다고 한다. 실험소에서 암모니아수로 대체하라고 지시했지만 색깔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한다. 나주반(소반) 이음매에 똥과 옻칠을 섞어 쓴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5.4)고 적었다.

곡성 오솔길에서 만난 서당아이들 교재에서 밥에 꼬이는 파리떼와 뒷간에 달려드는 똥개를 묘사한 한시를 보고는 "이만큼 조선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없다. 자연을 벗 삼아 위생 이전의 생활, 건강을 돌보지 않는 건강, 이것이야말로 조선 물건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아닐까?"(5.5)라고 하였다.

창평장에서 홍어를 접했을 때는 "코를 찌르는 홍어의 극심한 냄새, 항아리 안의 그 토막 절임, 우리가 먹기 힘든 음식,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질병 이전의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이곳에서는 선사시대 생활의 강점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 결벽증이 있다. 난 자신이 깨끗이 해야만 하는 삶에 갇혀 있다."(5.5)고 썼다.

야나기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주저 없이 구입하거나 청하여 건네받았다. 구례 화엄사를 찾았을 때 법당이 보수공사 중이어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절집 사내가 메고 있는 망태기에 눈이 멈추었다. 풀로 엮었지만 아래 두 모서리는 종이로 덮여있고 위는 단단하다. 이것을 넘겨받아 화엄사의 추억을 깨끗이 씻었다."(5.4), 장성에

서는 우연히 민가에서 저녁을 대접받았는데, "그집 마당의 장류 장독들과 외양간 느티나무 구유를 잊을 수 없는데, 구유는 이후 건네받아 민예관에 걸었다... 길거리 술집에서 술을 마신 백자다완(막걸리잔) 등 두서너가지 아름다운 물건을 입수하였다."(5.5)는 것이다.

야나기의 글 곳곳에서 감상적인 태도가 엿보이기도 하는데, 여행 끝무렵 목포를 찾을 때 고개 너머로 유달산이 내려다보이는데 "두 봉우리 사이의 날카로운 암벽의 품에서 작은 집은 아래로부터 겹겹이 서로 의지하며 담쟁이넝쿨처럼 자란다. 마치 부드러운 흰색 우산을 쓴 버섯들이 산바탈에 모여 무성하게 보였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 끌어안고 있다... 만약 화가라면 나는 붓을 물들이고 싶다."(5.8)고 묘사하였다.

목포부윤이 "목포부의 오늘날 발전이 조선인들을 점점 유달산으로 내몰았으나 보건상태는 열악하고 산의 조망이 훼손되어 목포의 난제다."라고 말하자 "아름다운 집들로 장식된 유달산은 목포의 최고 풍경이다. 우리는 그 보존이 목포시민에게 부여된 하나의 명예로운 의무임을 강하게 천명했다."(5.8)는 것이다.

## 조선의 미, 남도의 멋

야나기 무네요시는 침탈국 일본의 실력 있는 상류층이자 지식인이면서, 일본은 물론 조선의 전통문화와 민예에 지극한 애정을 갖고 그 보전운동과 집필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가 조선의 일상과 문화현장을 수시로 찾고, 자료나 실물들을 조사 수집하고, 그 보존 전시공간을 만들고, 글과 강연으로 스스로의 가치에 눈뜨도록 설파하고 다닌 것은 한국 근대문화사에서 선각자로서 중요한 역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자신의 식견과 관념을 토대로 조선의 미를 '선의 미학'이나 '비애의 미'라고 미적 판단을 제시하여 후에 여러 이견과 반론들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것은 조선을 제2의 조국처럼 사랑한 야나기였지만 그에게 내재된 조선의 처지에 대한 연민과 측은지심이 '비애'라는 말로 집약된 것이라고 본다. 그는 1941년 발표한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등의 논문을 통해 동양3국의 문화에 대해 "중국이 뿌리이자 힘이고 입체라면, 한국은 줄기이고 슬픔이며 선이고, 일본은 꽃이고 즐거움이며 색이다."고 정리했다. 또한, '조선을 생각한다'라는 글에서는 "중국은 조선에 종교나 예술을 보냈으나 그것을 거의 파괴한 것은 대부분이 실로 놀랍게도 무서운 왜구가 범한 죄였다."며 자기 나라의 역사적 과오를 비판하였지만, 조선은 수동적이고 숱한 침탈의 상처를 안은 원한 사무친 슬픔의 민족으로 보았다.

야나기와 달리 한국의 미에 대해 근대 미학자 고유섭(1905~44)은 '구수한 큰 맛'과 '무기교의 기교'를 강조하였고, 최순우(1916~84)는 '욕심 없는 덤덤한 매무새'를, 김원룡(1922~93)은 '미추(美醜)를 초월한 미 이전의 자연의 미'를 특징으로 들었다. 남도 서양화단의 큰 거목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 오지호는 "회화는 태양과 생명과의 융합이자 환희의 예술"이라며 생명의 약동으로서 민족회화론을 밝혔다. 물론 어느 시대 무엇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 그 특징은 다를 것이므로 한국 문화예술 전체를 일원화하기는 간단치 않은 일이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화려함도 상처도 생멸의 과정도 복합되어 역사와 문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바탕에는 외부로부터 가해진 상처들이 삭혀진 '한'(恨)의 정서가 없지 않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로부터 차오르는 자발성의 '흥'(興)을 일상문화로 즐기기도 하였다. 남도의 옛 문화재에서 나타나는 삼라만물을 품는 포용미와 정겨움이 담긴 해학미, 인위적 기교를 앞세우지 않는 자연스러움과 절제미, 전통 한국화나 서양화들에서 지역화풍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내적 '감흥'(感興), 산수자연의 기운과 교감을 심상으로 비춰내는 '함축미'도 남도 멋의 주요 특징들이다.

제8강

# 기록물(記錄物)로 광주경관(光州景觀)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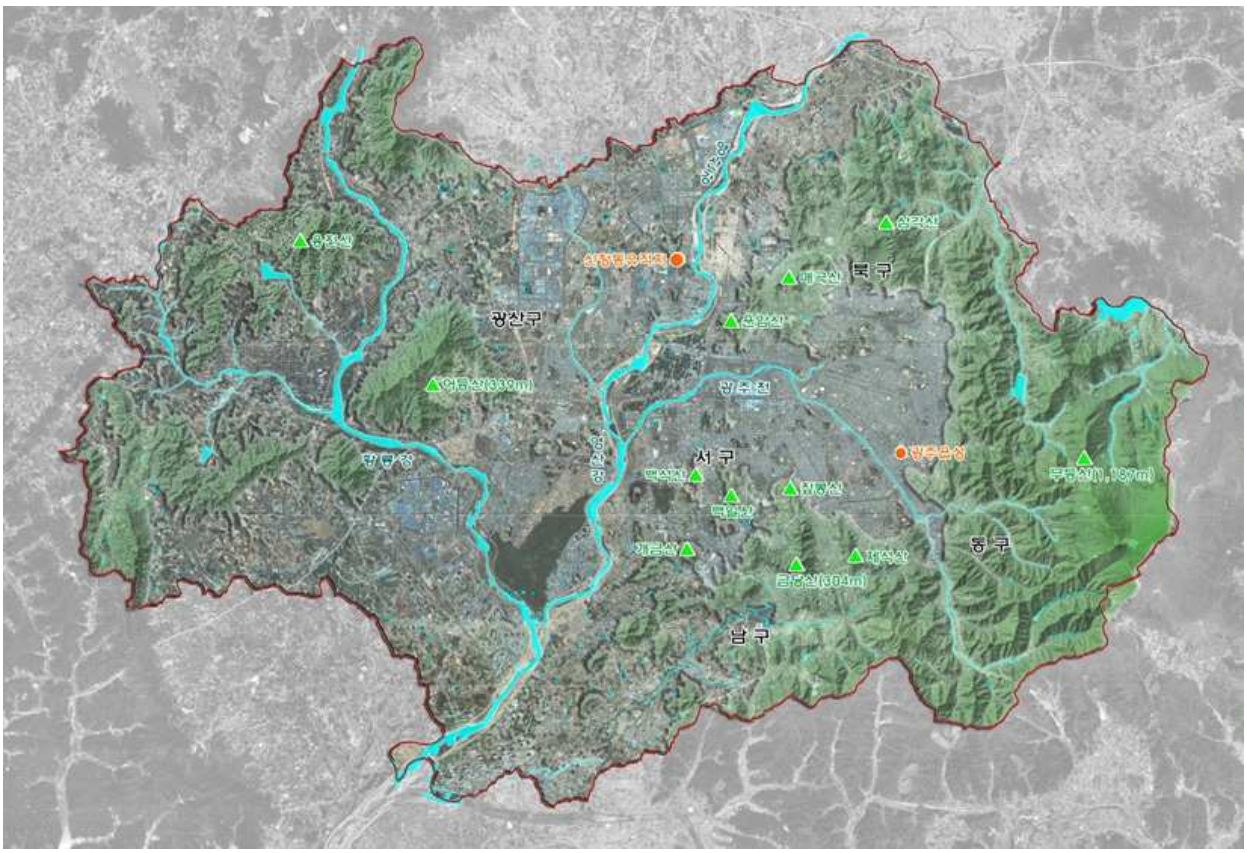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 기록물(記錄物)로 광주경관(光州景觀)을 보다

**류영국**(지오시티(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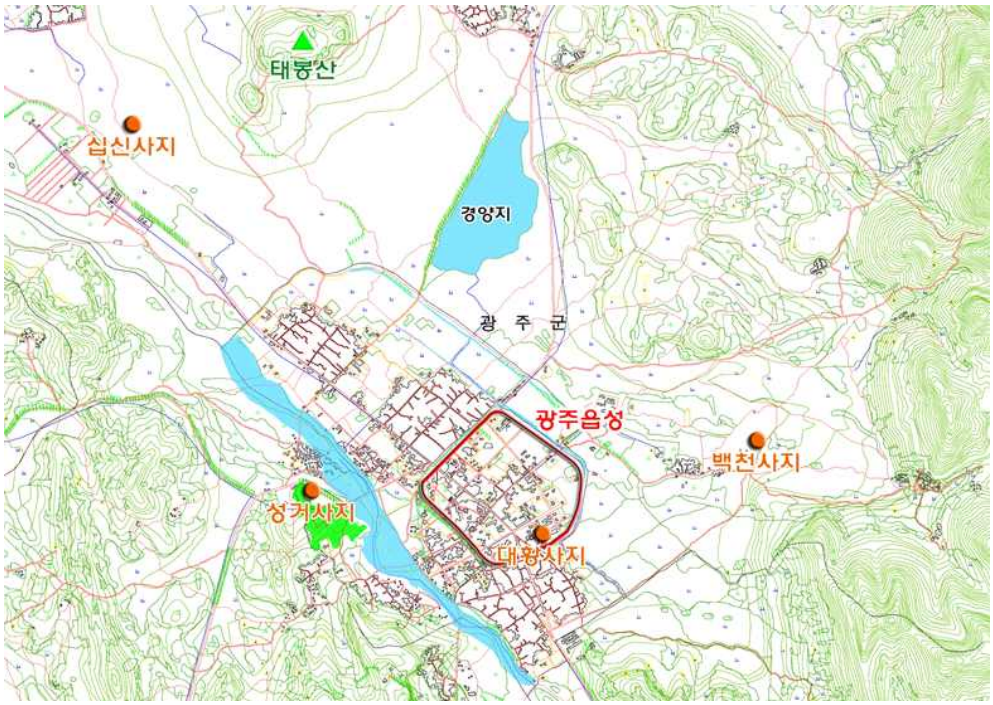
## 1. 광주의 도시공간

■ 광주의 산수(山水)와 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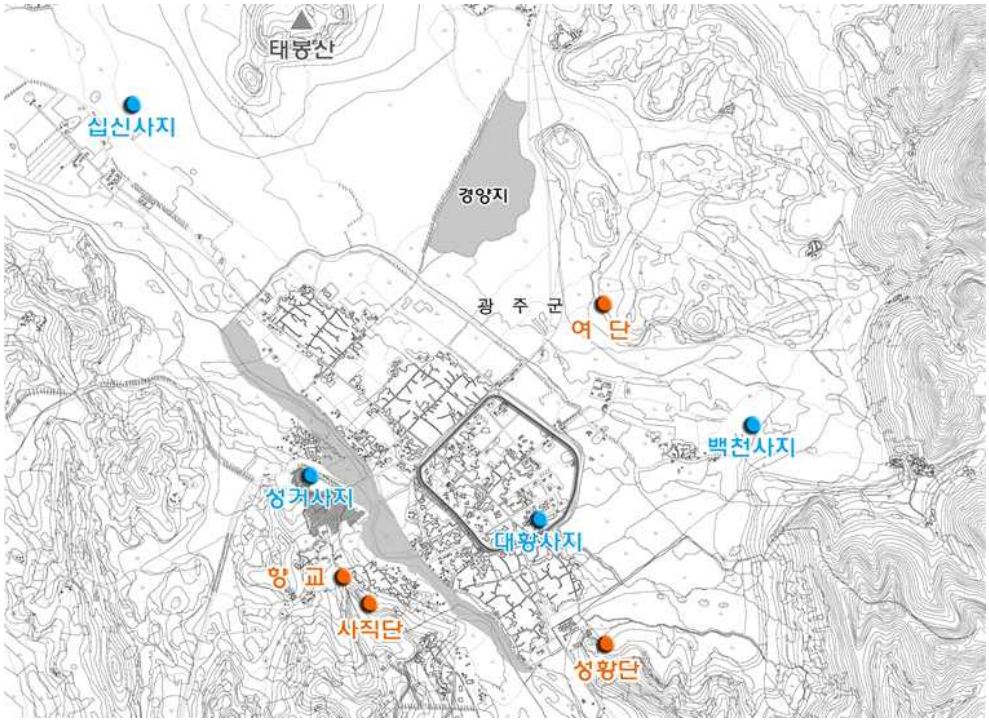



■ 광주지형도(산과 하천중심으로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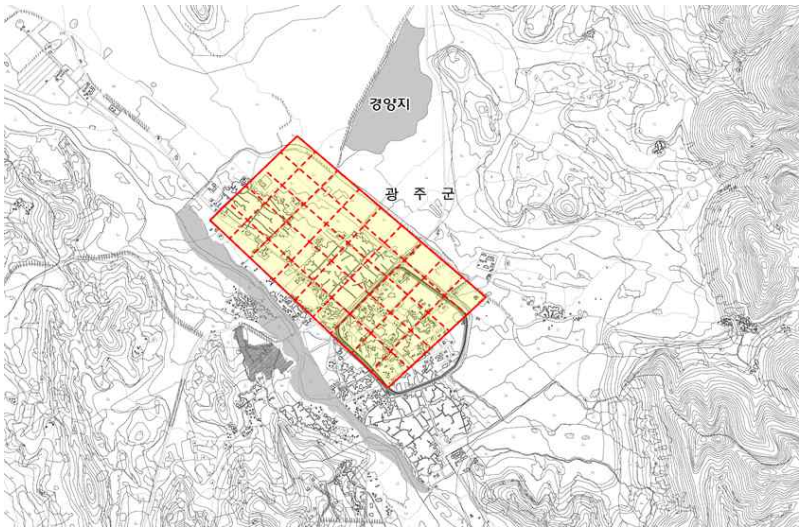
■ 광주의 시원 - 광주의 읍성과 주요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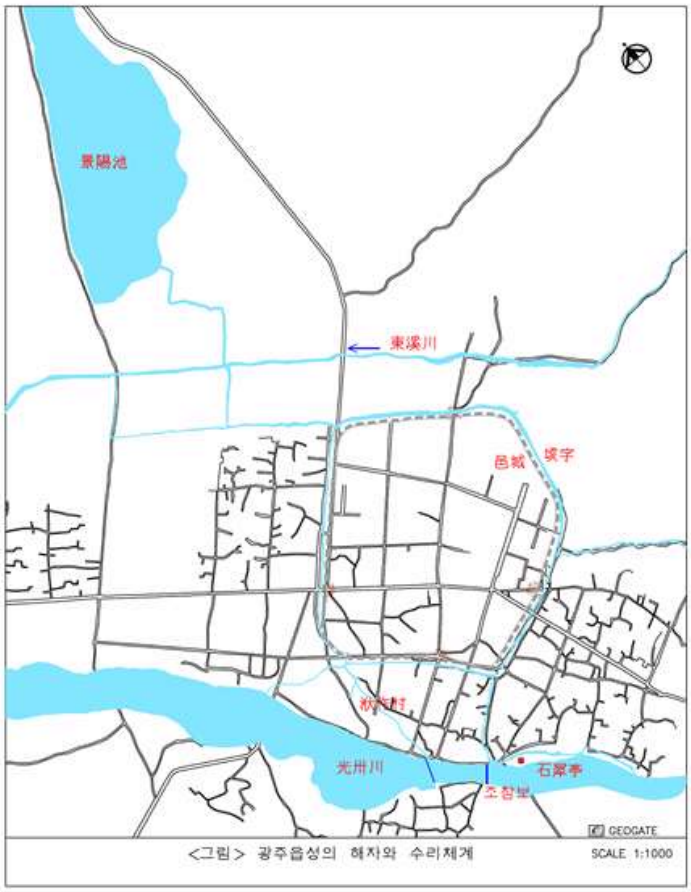

■ 광주의 시원 - 광주의 읍성과 3단1묘



■ 광주의 시원 - 광주의 읍성과 방리제(坊里制)




■ 광주의 시원 - 광주의 읍성과 수리체계




<그림> 광주읍성의 해자와 수리체계

# 2. 기록물과 지도로 본 광주

## 2.1 석서정기

### 1) 석서정기(石犀亭記) - 목은(牧隱) 이색(李穡)(1328~1396)

### 2) 목은문고(牧隱文藁) 제5권

○ 기(記)

○ 석서정기(石犀亭記)

- 광주(光州)의 지세(地勢)를 보면, 삼면이 모두 큰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오직 북쪽만이 평탄하게 멀리 터져 있다. 그리고 남산(南山)의 계곡에서 두 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의 근원이 또 멀기만 하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물줄기가 합류하면 그 형세가 더욱 커질 것 또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매년 한여름철이 되어 일단 장마가 들기만 하면 그 급류가 미친 듯이 질주하며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가옥을 무너뜨리고 전답을 할퀴는 등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점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어찌 이 점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 남산 아래에 예전부터 분수원(分水院)이 있어 왔는데, 이는 옛사람들이 물의 형세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끝내 물의 흐름을 양분(兩分)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두 개의 물이 세차게 흘러 내려와 마주치는 지점에다 돌을 쌓아 성을 만들고는 물의 흐름을 조금 서쪽으로 돌렸다가 북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자연히 지세를 따라 북쪽의 평탄한 지역으로 천천히 흘러가게 되면서 백성이 피해를 받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다.
- 이에 예전에 물이 흐르던 길목에 정자를 세우고 그 중앙을 거점으로 하여 보(洑)의 물을 양분해서 끌어들이니, 물이 정자의 사면을 에워싼 것이 흡사 벽수(辟水 벽옹(辟雍))의 체제처럼 되었다. 이와 함께 정자의 앞뒤에다 흙을 쌓아서 자그마한 섬을 조성한 뒤에, 그 두 곳에 나무와 꽃을 심어 놓고는 부교(浮橋)를 설치하여 드나들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앉아서 노래라도 읊조리노라면 마치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운무(雲霧) 자욱한 파도 속에 뭇 섬들이 출몰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으니, 그 즐거움이 참으로 어떠하였겠는가.
- 회홀(回鶻)의 설천용(偰天用)이 남쪽을 유람할 적에 그 정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서울로 돌아와서는 목사(牧使)인 김후(金侯)의 글을 보여 주며 정자의 이름과 기문을 부탁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위대한 우(禹) 임금이 치수(治水)를 했던 자취가 《서경(書經)》 우공(禹貢) 한 편(篇)에 수록되어 있는데, 요컨대 물의 형세를 따라서 물길을 인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 뒤에 진(秦)나라 효문왕(孝文王)이 이빙(李氷)을 촉(蜀) 땅의 태수(太守)로 임명하자, 이빙이 석서(石犀 돌로 조각한 물소)를 만들어서 수재(水災)를 진정시킨 일이 있었다. 그런데 후위(後魏)의 역도원(酈道元)이 지은

《수경주(水經注)》를 보면, "석서가 이미 이빙의 옛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대에 물의 이해(利害)를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빙을 일컫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서 이빙과 같은 사람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 이 때문에 두 공부(杜工部 두보(杜甫))가 이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원기가 항상 조화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홍수가 멋대로 병들게 하는 일을 절로 면할 수 있으리라. 어떡하면 장사에게 하늘의 벼리를 잡게 하여 수토를 다시 평정하고 물소를 사라지게 할까.[但見元氣常調和 自免洪濤恣凋瘵 安得壯士提天綱 再平水土犀奔茫]"라고 하였던 것이다. 대개 원기(元氣)를 조화시키고 수토(水土)를 평정하는 일은 이제 삼왕(二帝三王)과 같은 분들의 사업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제 삼왕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사를 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후세에도 원래 있었던 바로서 잠시라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또 이치에 닿지도 않는 황당한 설을 찾아서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원대한 계책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고 보면, 두 공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비록 그렇긴 하지만, 공자(孔子)는 일찍이 이르기를 "작은 기예(技藝)라 하더라도 반드시 볼 만한 점이 있게 마련이다.[雖小道 必有可觀]"고 하였다. 돌을 가지고 물을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남자나 여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거기에다 물소의 형상을 새겨 넣는 것은 필시 나름대로의 이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포박자(抱朴子)》라는 책에 "물소뿔에다 고기 모양을 새겨서 입에 물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길이 석 자쯤 열린다."고 했고 보면, 물소라는 물건으로 수재(水災)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 그러니 또 더군다나 산의 뼈라고 할 암석에다 물을 물리치는 물소의 모양을 새겨 놓는다면, 물이 이를 피해 갈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물이 이미 피할 줄을 알고 있는 데다가 다시 그 물을 아래로 유도한다면, 조금도 막힘없이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날마다 텅 빈 광활한 지역으로 흘러 내려가 넘실거리면서 바다에 이른 뒤에야 그치게 한다면, 다시 또 물 걱정을 할 것이 뭐가 있겠으며 주민들이 안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고 보면 《춘추(春秋)》에서 이 정자에 대해 한 마디로 평하더라도 당연히 폄례(貶例)를 따르지는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 내가 그래서 이 정자의 이름을 석서(石犀)로 정한 다음에 두 공부(杜工部)의 '석서행(石犀行)'을 취하여 그 근본적인 의미를 밝혔고, 다시 《포박자》의 설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은 뒤에 《춘추》의 필법으로 단안(斷案)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 정자를 지은 목적이 수재를 예방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있지 한갓 노닐면서 관람하는 장소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려고 하였다. 그러니 이 정자에 오른 사람이 정자의 이름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김후(金侯)에 대한 존경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김후의 이름은 상(賞)이다. 재부(宰府)의 지인(知印)과 헌사(憲司)의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정사를 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유능하다는 이름을 얻었다.

- **光之州理**。三方皆大山。獨北面平遠。而南山之谷。出水者二。水之來又遠。是以。合流則其勢之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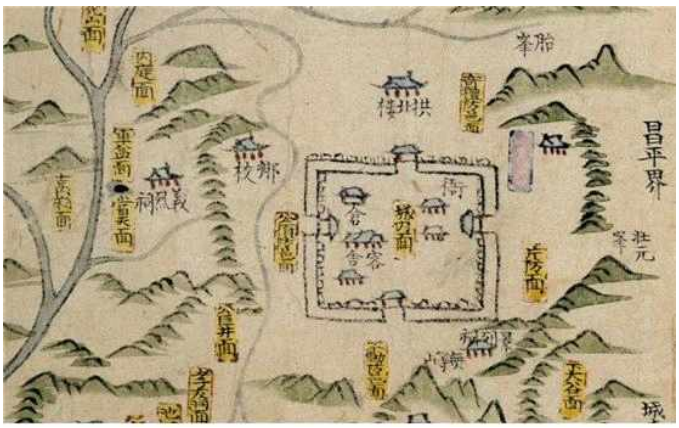
大也可知矣。每年盛夏。雨霖旣作。狂奔猛射。破屋宅。齧田壟。爲民害不小。爲之長者。寧不重爲之慮乎。南山之下。置分水院。古人所以殺水勢也。而卒莫之分。於是。二水走衝之地。積石爲城。使水小西而北流。地勢北下。水順其性。民之害斯絶矣。迺作亭於水之故道。正據其中。分引洑流。繞亭四面。如辟水之制。亭之前後。累土爲嶼。樹花木凡二所。浮橋以出入。坐嘯其中。如乘桴于海。而群島之出沒於煙濤雲浪之間。信乎其可樂也。回鶻偰天用之南游也。得至其上。旣還京。以牧使金侯之書。求名與記。予曰。大禹理水。見於禹貢一篇。大抵順其勢而導之耳。秦孝文王用李氷守蜀。氷作石犀壓水災。及酈道元撰水經。**石犀**已非永舊。然後之言水利害者。必稱氷云。因以求氷之心。可見已。是以。杜工部作歌行。乃曰。但見元氣常調和。自免波濤恣彫瘵。安得壯士提天綱。再平水土犀奔茫。蓋調元氣。平水土。二帝三王之事。而二帝三王之心之政。後世之所固有。而未嘗頃刻之亡也。然必求詭怪不經之說。以爲經濟久遠之策。則工部之心。又可見已。雖然。孔子嘗曰。雖小道。必有可觀。石之鎭水。愚夫愚婦之所共知也。象之以犀。必有其理。抱朴子之書。言曰。刻犀爲魚銜入水。水開三尺。則犀之爲物。可以避水災彰彰明矣。又況石爲山骨。犀又郤水。水於是避之必矣。水旣知避。又導之下。霈然無少齟齬。日趨於空曠之地。滔滔汩汩。至于海而後已。水患何從而復作。邑居何從而不寧。書作斯亭。當不在貶例矣。故以石犀名其亭。而取工部石犀行爲之本。又以抱朴子爲之證。而斷之以春秋之法。俾後之人知亭之作。禦水災也。奠民居也。非徒爲游觀設也。登是亭者。考名思義。其必起敬於金侯矣。侯名賞。知印宰府。掌令憲司。爲政有廉能名。

## 2.2 유서석록(遊瑞石錄)(1574), 고경명(高敬命, 1533~1592) : 무등산 기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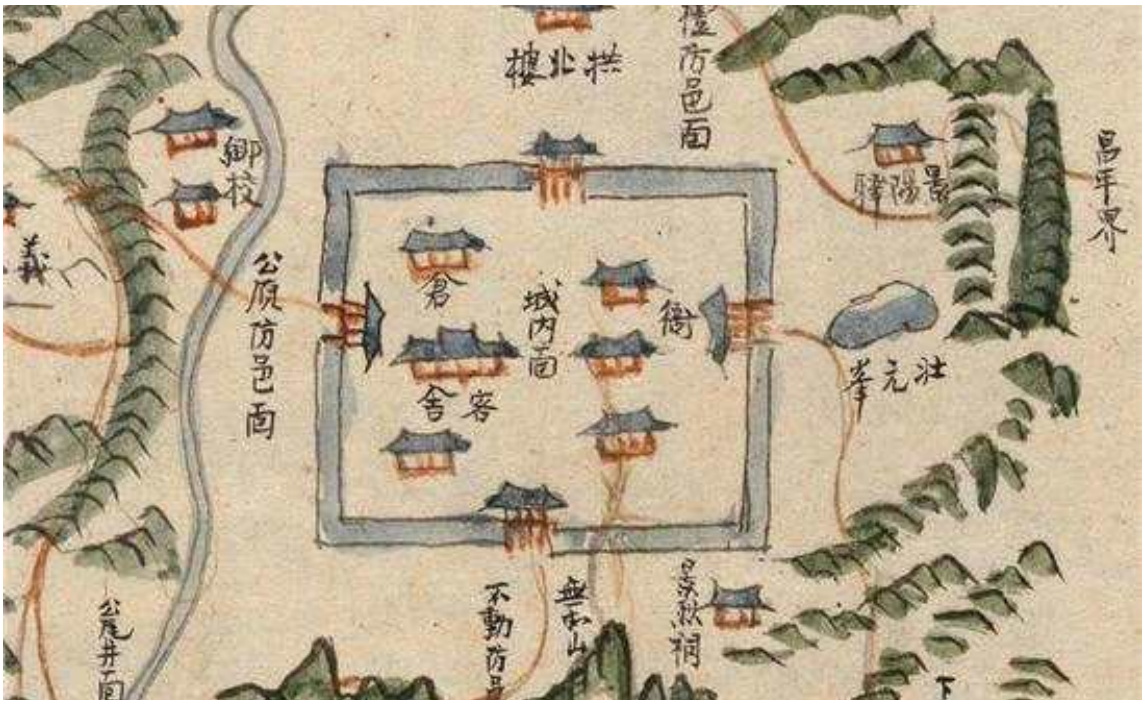
## 2.3 택리지(擇里志, 1751) 팔도총론(八道總論) 중 전라도(全羅道)

1) "然地饒沃 西南濱海 有魚鹽杭稻絲絮苧楮竹木橘柚之利 俗尙聲色富侈 人多儇薄傾巧 而不重文學 以故科第顯達 遜於慶尙"

## 2.4 여지도서(1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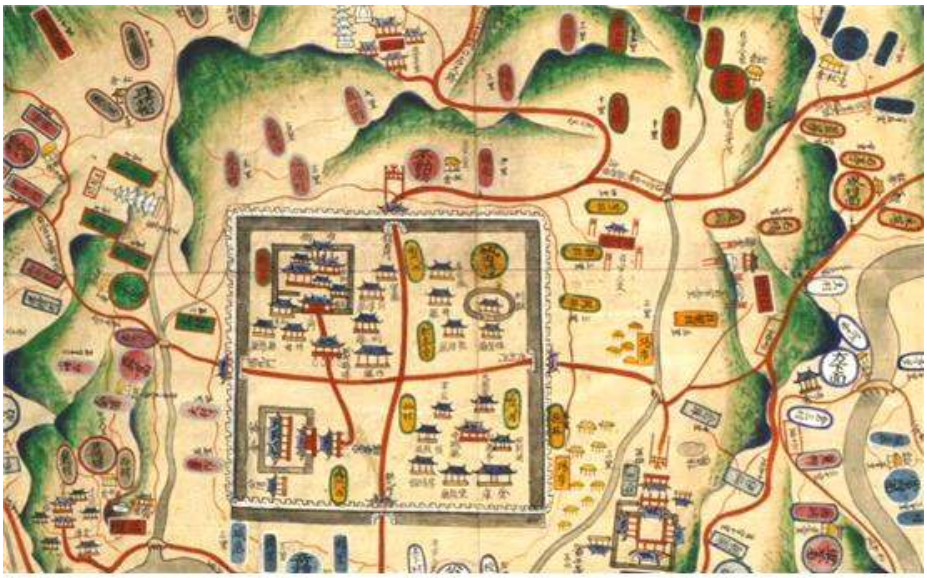


2.5 지승(地乘, 1776)




2.6 대동여지도(1861)

2.7 해동지도(1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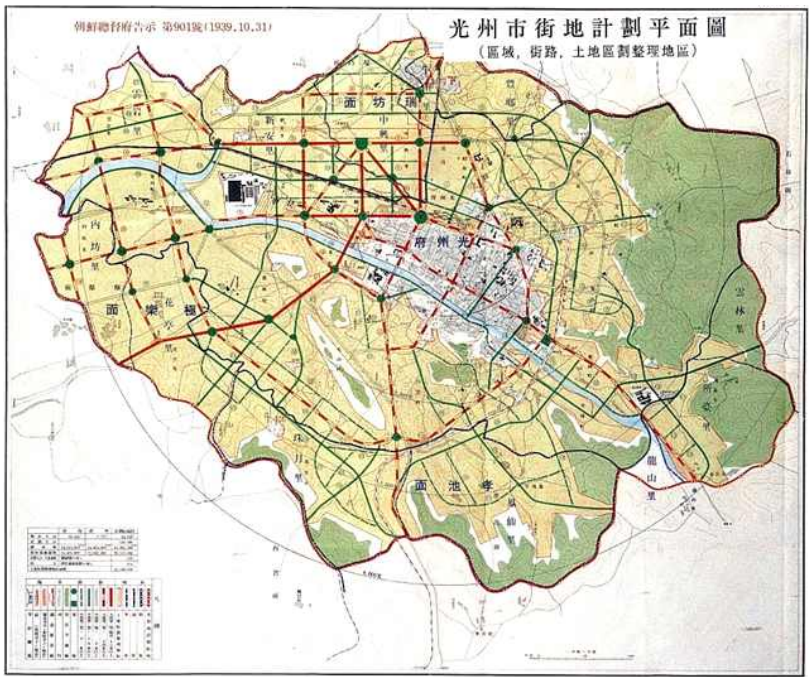
2.8 광주읍지(1914)

2. 9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 성석림순례(聖石林巡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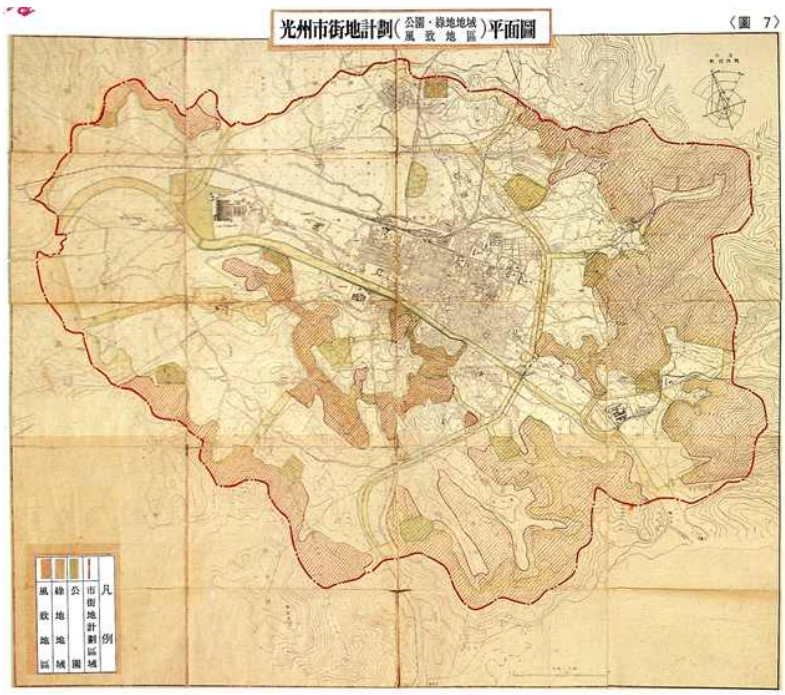
2.10 노산 이은상(李殷相, 1903~1982)의 무등산 기행

# 3. 일제 강점기의 광주도시계획과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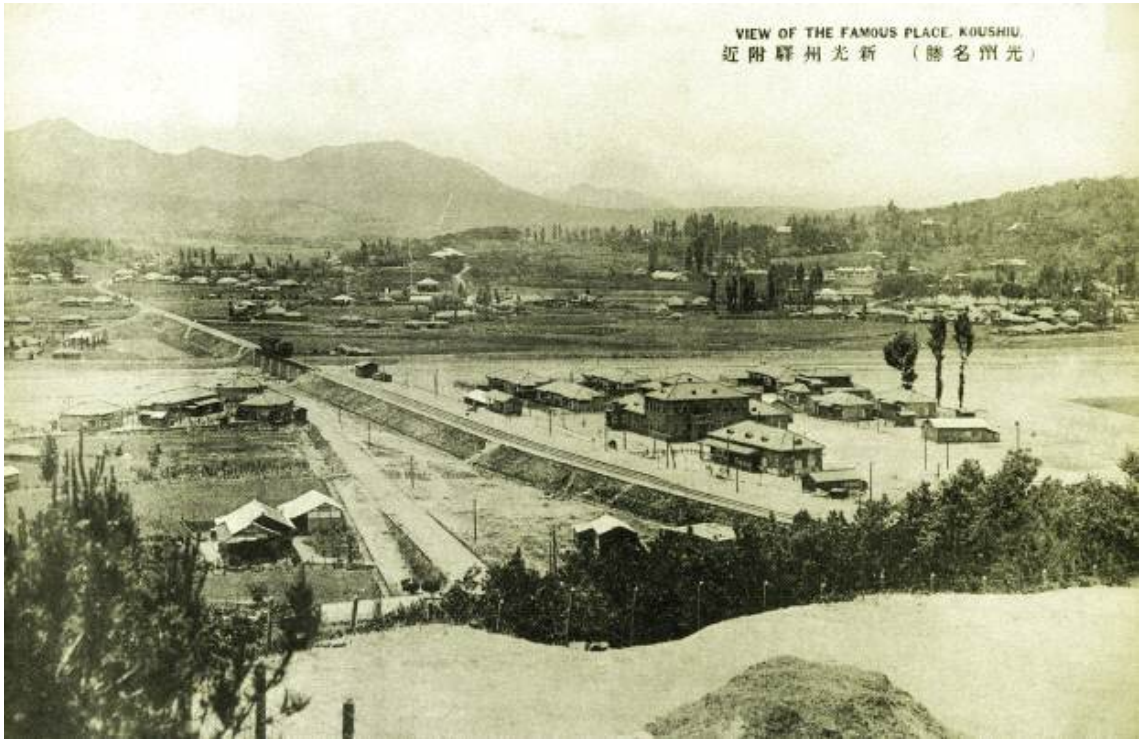
## 3.1 광주 시가지계획(1939)




## 3.2 광주 시가지계획-공원, 녹지계획(1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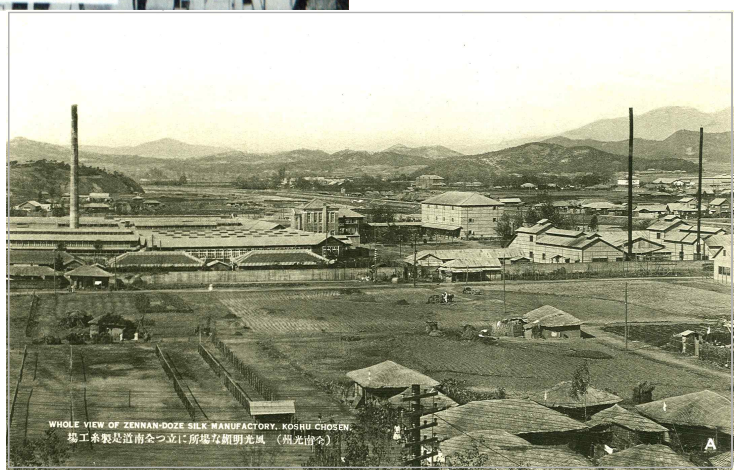


## 3.3 일제강점기의 주요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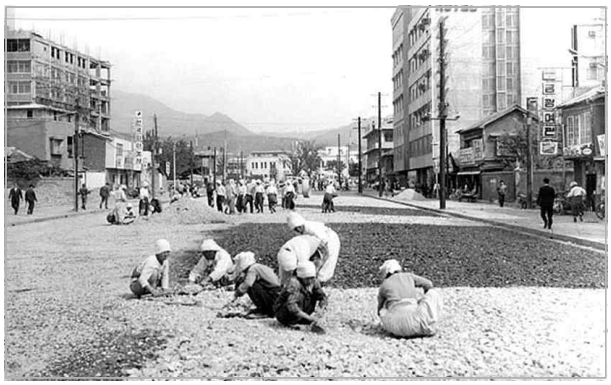


KOSHU PREFECTURAL OFFICE, ZENNAN KOSHU.
(光州名所) 全南道庁光州府庁舎

光州劇場


WHOLE VIEW OF ZENNAN-DOZE SILK MANUFACTORY, KOSHU CHOSEN.
(光州市全) 全南道製絲工場全景

## 3.4 일제강점기의 주요가로



# 4. 광주의 주요가로와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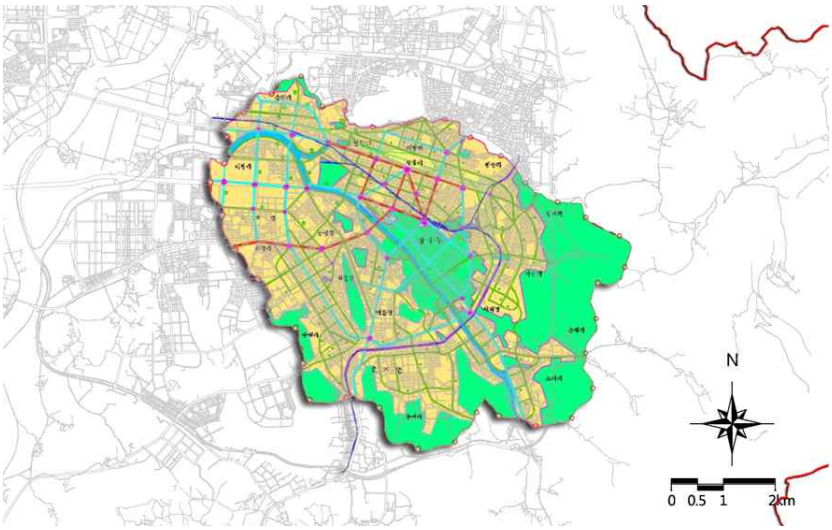
## 4.1 광주도심의 주요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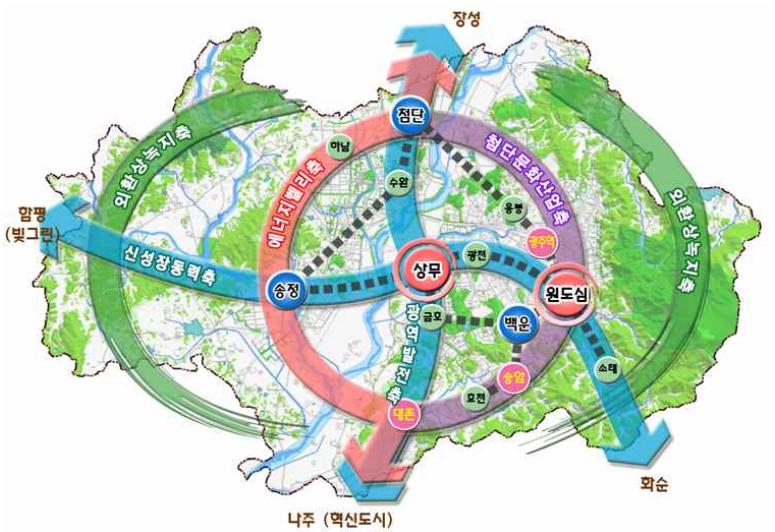
## 4.2 광주의 주요건축물

광주역
Gwangju Station
광주본부
스카이장례식장

광주송정역
Gwangjusongjeong Station
시민중심에는 광주송정역!
환상누각

4.3 광주의 도시계획




# 5. 광주의 도시이미지는?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도시이미지의 5요소**

1) landmark
2) path
3) node
4) district
5) edge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Honam Foundation

주 소 :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http://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

지은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펴낸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김덕진
펴낸일 2021년 7월 22일
인 쇄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1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한국학 열린강좌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